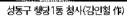


건축 사

차례 2002 4 396호







칼림	계획설계 거부 운동만이라도 실천하자!	최영집	18
작품리뷰	성동구 행담1동 청사	김인철	22
	비평 : 뜬 땅, 그 풍경건축(風景建築)에 관하여	이공회	34
회원작품	한국산업은행본점	이영희 · 정영균	36
	종교교회(양주삼 기념교회)	김한근	44
	홍익대학교 정보통신센터	오기수	54
	반포세무서 직원숙소	오기수	62
작품노트	마당, 그 카타르시스적 공간	최동호	66
기고	삶의 가치와 느림의 발견	김희곤	72
연재	박물관의 개념적 변화와 건축적 대응(1)	김용승	78
건축만평		유원재	86
건축마당	건축계소식		87
	현상설계경기		94
	해외잡지동향		100
	법령		105
	세무안내		_106

발행인: 우남용

편찬분과위원회: 위원장 / 박영식

위 원/김석환, 김수경, 목대상, 최동규

취재 · 편집: 조한국

발행처: 대한건축사협회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03-55

우편번호: 137-070

전화: 대표 (02)581-5711~4

팩시밀리: (02)586-8823

인터넷: http://www.kira.or.kr E-mail: korea@kira.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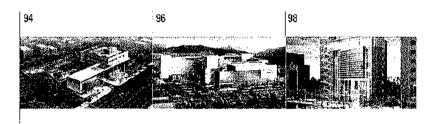
인쇄인: 김중식/중앙미술인쇄공사 (02)2269-7619

Korean Architect

Contents

Taxation Business

Vol. 396 April 2002



Column		
Don't do Preliminary Design Before Contract	Choi Young-Jip	18
Review		
Haengdang-dong Office	Kim In-Cheurl	22
Critique: The Floating Land - About its Landscape Architecture	Lee Gong-Hee	34
Works		
Korea Development Bank Headquarters	Lee Young-Hee, Jeong Young-Kyoon	36
Chongkyo Methodist Church	Kim Han-Geun	44
Imformation and Communication Center, Hongik University	0h Ki-Soo	54
Staff Dormitory for Banpo Revenue Office	Oh Ki-Soo	62
Design Note		
Madang, A Space of Catharsis	Choi Dong-Ho	66
Featur e		
Finding Life's Value and Its Leisurely Pace	Kim Hee-Gon	72
Serial Serial		
Conceptual Changes in Museums and Architectural Response	Kim Yong-Seung	78
Cartoon	Yoo Won-Jai	86
Architects' Plaza	La L	
Archi-Net		_87
Competition		_94
Overseas Journal		100
Laws & Ordinances		105

106

Publisher: Woo Nam-Yong

Editorial Member: Park Young-Sik, Kim Seok-Hwan, Kim Soo-

Kyeong, Mok Dae-Sang, Choi Dong-Kyu

Assistant Editor: Editorial Team

Publishing Office: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Address: 1603-55 Seocho-dong, Seocho-gu, Seoul, Korea

Zip Code: 137-070
Tel: (02)581-5711~4
Fax: (02)586-8823

Printer: Kim Jung-Sik (Jungang-art Printing Co.)

계획설계 거부 운동만이라도 실천하자!

Don't do Preliminary Design Before Contract

최영집 / (주)종합건축사사무소 탑 by Choi Young-Jip

지난 세기 마지막 해인 1999년 "건축문화의 해"행사를 마치고 온통 새로운 밀레니엄을 맞이한다고 들 떠 2000년을 시작했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2002년도 중반으로 들어서고 있다.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국내의 경 제불황으로 건축경기는 아직 어둠 속을 헤매고 있고 많은 건축전문인력들은 건축을 떠나고 있다. 그래도 남아있는 우 리들은 21세기 한줄기 희망을 붙들어 보고자 얼마나 인간함을 쓰고 지내고 있는가, 건축조건의 악화로 인해 상실감, 허탈감, 허무감 등에 사로잡혀 그 좋아하던 건축에 회의를 느끼게 되니 아이러니칼하게도 "건축문화의 해" 표어인 "건 축은 삶의 터전, 문화의 바탕" 이라는 말과 오버랩 되면서 또 얼마나 실소를 자아내었던가, 그런 기운데 건축설계시장 은 대책없이 개방되었고, 지구촌 시대에 어쩔 수 없이 국제 수준의 건축사제도와 건축교육제도를 갖추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이렇듯 국제화, 개방화, 정보화 시대에 오히려 우리 건축사들은 최악의 수렁에 빠져 허우적거리며 생존을 위해 발벼뚱쳐야 하니 모두들 살아남기 위해서는 의식율 전환해야하고, 체질을 개선해야하고,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고 외쳐대지만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해야 근본적인 처방이 되고, 자질향상이 되고, 문제해결이 되는지 그 구체적 인 방법을 제시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해가 바뀌어, 다소 경기가 호전되고 있다는 소리는 둘리는데 근본적으로 달라진 것은 없다. 회원을 위 한 회원에 의한 회원의 단체인 협회에서도 여전히 허공의 메이리처럼 원칙론만 반복할 뿐이지 가려운 곳을 시원하게 긁어줄 실천론을 보여주지는 못한다. 물론 어려운 시대 우리의 협회에서도 건축사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동분서주 건 축업무관련 각종 제도를 재정비하고, 건축사 생존권 보장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줄은 알고 있다. 그러나 노 력을 아무리해도 근본적으로 개선될 수 없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 우리가 아무리 단결하여 머리띠를 두르고 전국건축 사대회에서 구호를 외쳐대도 개선될 수 없는 이 시대 건축의 본질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확실하게 단계적이고 구체적 으로 대처해 나가야 한다. 협회에서는 추상적인 구호가 아니라, 전시적인 행사가 아니라 유치할 정도로 자세하게 생존 을 위한 대응방법을 강구하여 캠페인을 벌이고, 회원들에게 주지시키고, 확인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 건축사란 호칭이 나 건축사의 노래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캠페인이 중요하다.

건축은 창작이고, 예술이고, 삶의 터전이고, 문화의 바탕이다. 건축사는 그 주역으로 누가 무어래도 건 축을 작곡하고 지휘하는 전문가이고 엘리트이다. 그런데도 왜 건축은 잡탕이 되어가고 건축사는 자꾸만 초라해 지는 가. 작가정신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실력이 없어서도 아니다. 건축의 본질적 문제가 숨어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이고 듣기 싫은 부분이지만, 건축의 시작이 근본적으로 수주에 의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과 어쩔 수 없이 권력과 자본의 시녀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새삼스럽게 거론하고 싶지 않는 이야기를 또 꺼내나고 하겠 지만 아픈 부위는 자꾸만 되새겨 보아야한다.

작가정신이 좀 있다는 사람은 오불관연하며 냉수를 마시고 있고, 상술이 뛰어난 사람은 거상으로 크고 있으 며, 보통사람들은 공무원을 대행하는 조사검사라도 하여 생존하려니 전문가가 아니라 공무원의 방패로 전략되고 있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설계경기라는 이름하에 고귀한 전문능력과 피나는 노동력을 착취하고 있으며, 자본을 가진 사람들은 기회를 줄 수도 있다는 명목으로 온갖 아이다어를 사전에 받아보려고 하고 경쟁을 통해 최소의 대가를 주며 적당히 건축을 끝내고자 한다. 권력과 자본의 행태가 어제 오늘 이야기는 아니겠지만 점점 더 그 구조적인 힘은 제도적으로 구색을 갖추어가고 있고, 건축사에게 돌아오는 현실적인 폐해는 더하면 더해가지 나아질 기미가 없다.

얼마나 많은 우수한 인력들이 한번의 기회를 얻기 위해 현상설계에 목숨을 걸며 밤을 새고 피를 말리고 있는 가, 이안 저안 만들어 집행관의 자본의 비위를 맞추면서 언제까지 작품을 만들기 위한 필요과정이라고 대범하게 웃을 수 였 겠는가, 건축을 만들 기회를 얻는 과정은 정말 말로 옮기기가 싫을 정도이다. 기회를 얻고 난 다음의 설계나 감리과정에서도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는다. 권한은 없고 책임만 있는 건축사. 주는 대로 받을 수밖에 없는 대가. 그러면서도 일이 잘못 되면 건축을 망치는 주역으로 걸핏하면 뉴스에 오른다.

아픈 곳을 찔러 안됐지만 나는 유명하니까 그렇게까지는 안해도 일이 많이 들어온다며 헛기침을 하거나 현상 당선율이 높아 비굴하지 않아도 잘 나간다는 사무실이 몇이나 될까.

이 시대의 구조적 불합리는 구조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국민의 지적재산도 보호 받아야할 귀중한 자원이다. 누구에게도 헛되게 착취당할 수는 없다. 이제라도 늦지 않다. 어떤 명목으로도 계획설계를 대가없이 해주지 않기 운동만이라 도 협회에서 구체적으로 벌어자. 건축사의 노래를 제정하고 건축사대회에 모여 아무리 목청을 높여 불러도 소용없다.

아무리 무한경쟁시대라 하더라도 일을 수주하기위해 무한착취당하는 것은 스스로 막을 수 있어야 한다. 그 노력을 정말 건축을 잘 만들 수 있도록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쪽에 기울여야 한다.

이것만은 꼭 지켜나도록 해보자, 협회에서 구체적으로 실천방법을 연구해서라고 하나씩이라도 시행될 수 있 게 캠페인을 벌여 나가자.

- * 합당한 계획설계비가 없으면 아무리 하고 싶어도 설계경기에 불참한다.
 - 공개경쟁, 지명경쟁에 따른 기준 설정, 계획설계비 보수 기준 결정
- * 계약전 계획설계서비스 어떠한 경우에도 거부한다.

- 설계도가 아닌 규모검토 및 타당성조사 단계 보수 기준 결정. 계획설계단계 보수 기준 시행.
- * 설계자가 아니면 감리는 할 생각도 하지 말자.
- 설계자의 감리책임 규정강화 시행

나만이 살고자 하면 결국 모두가 죽는다. 같이 살아야 나도 산다.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건축설계나 감리를 공정하게 거래하자는 얘기다.

설계시장개방으로 큰 일은 외국건축사에게 빼앗기고 작은 일은 이래저래 당하고 있기만 할 것인가.

이것만 지켜진다면 당장은 어렵겠지만 곧 현상에 쏟았던 쓸데없는 노력을 실질적인 일에 쏟을 것이요. 계획 설계 서비스로 도용 당했던 아이디어를 제값받고 제공할 수 있을 것이며, 건축주가 무책임하게 시행했던 각종 설계경기가 줄을 것이며, 있어도 충분한 참가비를 줄 것이고 자연스럽게 점차 실적과 평판 위주로 건축사를 고르게 될테니 건축사는 그 실적 평가를 좋게 받으려고 새 일 쫓아다니는 헛고생 대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려는 풍토가 조성될 것이다. 그리하여 건 축주는 기장 적합한 작가를 선정하여 제값 주고 정당한 건축서비스를 요구하게 될 것이며, 건축사는 책임있게 건축을 완성 하여 후손에게 넘겨주는 진정한 건축문화의 시대가 열리게 될 것이다.

8000명의 건축사,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다.

담합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건축사로서 정정당당하게 전문가의 위상을 높이고 살자는 얘기다.

뜻이 있으면 길이 있다. 협회를 중심으로 실천의 지혜를 다시 짜 보자.

의사는 진찰비부터 시작하여 병이 낫건 안 낫건 보수를 받고 변호사는 소송비용을 선불로 받아야 일에 착수 하고 소송에 이기면 성과급을 또 받는다.

우리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 작정인가.

우리는 언제까지 타령만하며 지낼 것인가.

스스로 노력하고 힘을 합쳐 하나씩 하나씩 개선해 나가보자.

우리는 할 수 있다. 圈

성동구 행당1동 청사

작품리뷰

review

Haengdang-dong Office

김인철 / 건축사사무소 아르키움 Designed by Kim In-Cheurl

건축개요

대지위처 서울시 성동구 행당동 139

지역지구 일반지구지역

대지면적 915㎡

건축면적 548.51㎡ 연면적 1,199.03㎡

건 폐 뮬 59.95% 용 적 률 131.04%

-규 모 지하1층,지상3층

구 조 철골, 철근콘크리트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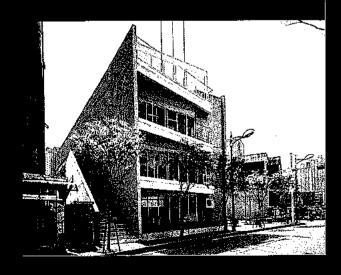
주차대수7대조경면적147.71㎡

외부마감 노출본크리트, 아연도골강판, T18복층유리 내부마감 벽, 천정-석고보드 위 착색락카, 비타-몰탈위

우레탄페인트

설계담당 김용오

사 진 건축사사무소 제공(촬영 : 박영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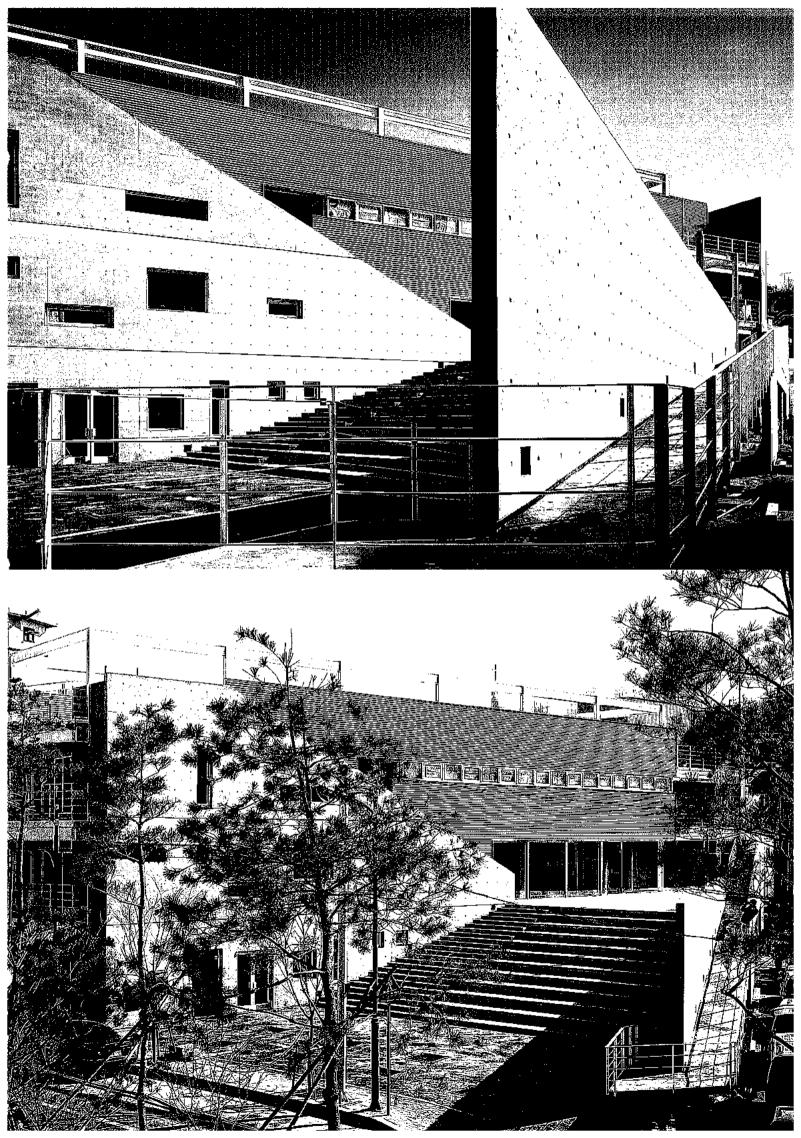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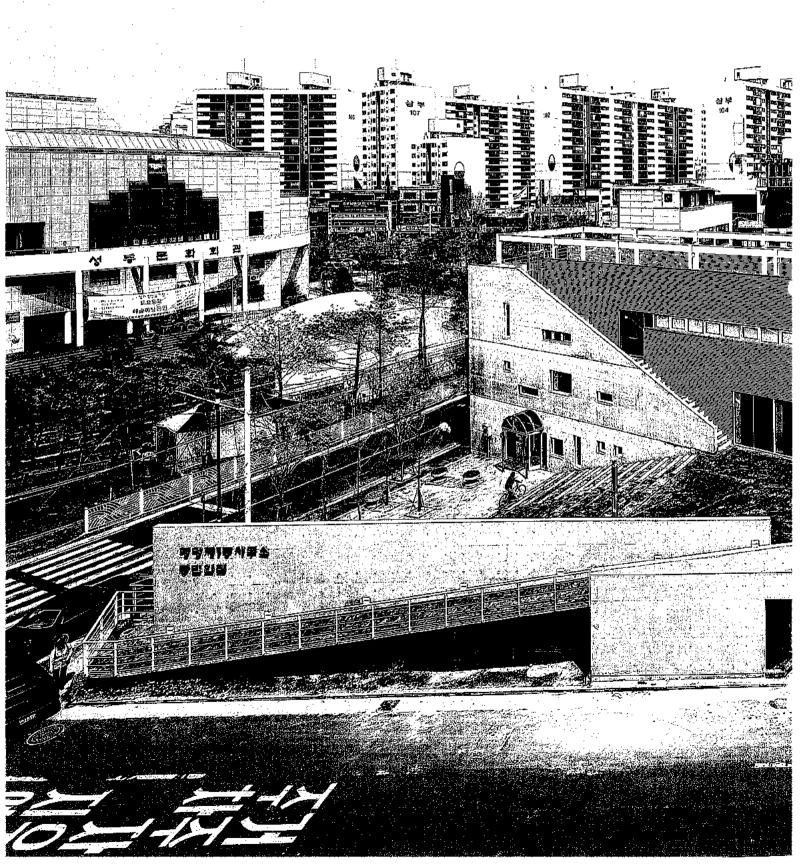
펼쳐지는 집

성수동 이란이집으로 고전하고 있던 중 구청에서 또 하나의 인을 맡긴다 하였다. 수외계약의 조건 내에서 행당등 청사를 맡으라는 주문이었다.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설계자의 의자를 가감없이 수용한다는 조건이라면 마다할 이유가 없었다. 홍대 대학원의 스튜디오에서 과제로 잡아 한 학기 동안 학생들의 작업을 보며 생각을 정리하였다. 정해진 공기를 넘기게 되어 미무리의 상황이 나빠졌으니 제대로 만들어지기를 지켜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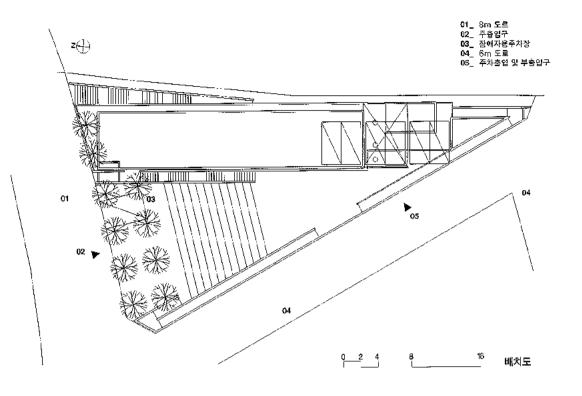
부지는 한충국의 작업인 성동구 문화회관과 광장을 사이에 두고 마주하는 위치이다. 공사가 중지된 채 오랜 봉안 방치되고 있는 대형건물을 옆에 두고 주택가로 이어지는 도로에 변한 대지는 종고 긴 삼각형의 모양으로 남아 있다. 반듯하게 정리되어진 문화회관의 광장과 흉가처럼 버려진 폐하가 공존하고 주택가의 자살한 풍경을 배경으로 하는 삼각의 땀은 마치 다루다 만듯한 가장자리의 형국이어서 함부로 다룰 수 없는 긴장감을 갖는다. 그리나 삼각의 형상은 지적도를 처음 대했을 때 만들어진 감각삼의 도형일 뿐 실제의 땅에서 그 도형은 얽히지 않았다. 오히려땅의 면적에 비해 길게 느껴지는 대지의 길이가 안상에 남았다. 길게 들어나 있는 땅과 호흡을 같이하기 위해 공간의 구성 또한 길게 펼쳐지는 형상이 되어야 했다.

대지의 깊숙이 길게 건축을 놓아 주변의 도시 질서에 어울리도록 하고 그래서 다시 만들어지는 삼각의 공간은 전면의 광장을 받아트리도록 열어 두었다. 엄린 공간은 다시 주차장을 덮는 바닥인 들어 울려진 땅의 레벨로 이어진다. 높이를 달리하는 공간으로 나누어지도록 한 것은 어린이집과 통청사의 영역을 구분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앞 광장의 넓이와 대통한 관계를 이루기 위해 높이의 상관성이 필요하였기, 때문이다. 넓고 좁고, 높고 낮고의 비례적인 감각은 항상 상대적이다. 또한 감각주체의 상황과 위치에 따라 결정되는 임의적인 것이기도 하다. 주어진 땅의 크기와 건축의 규모로 주변의 백락에 합류하는 방법은 스스로 펼쳐서 열어두는 자세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공공의 영역이기 전에 땅의 공공성이 가루어지면 사적인 영역이라 하더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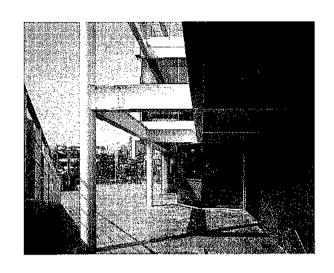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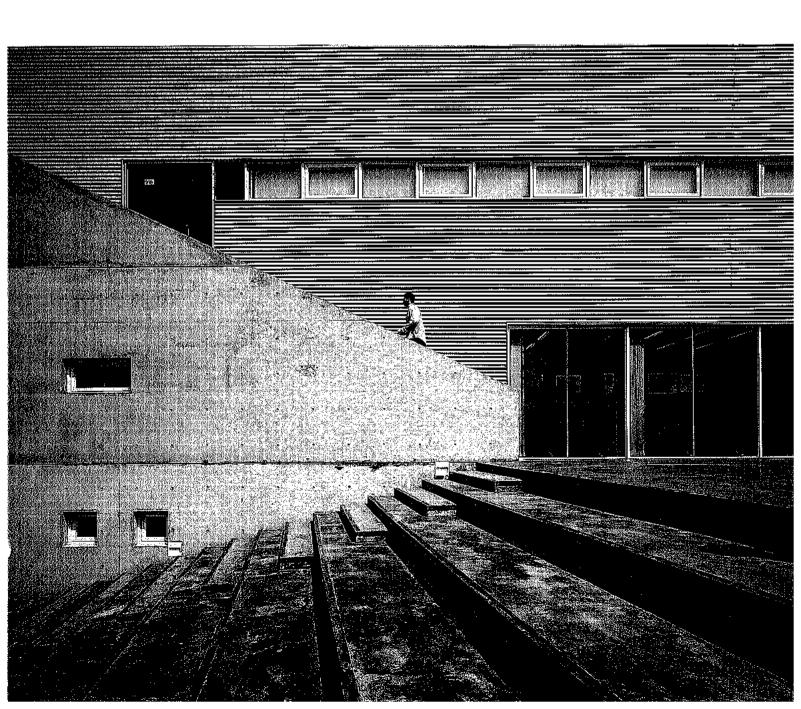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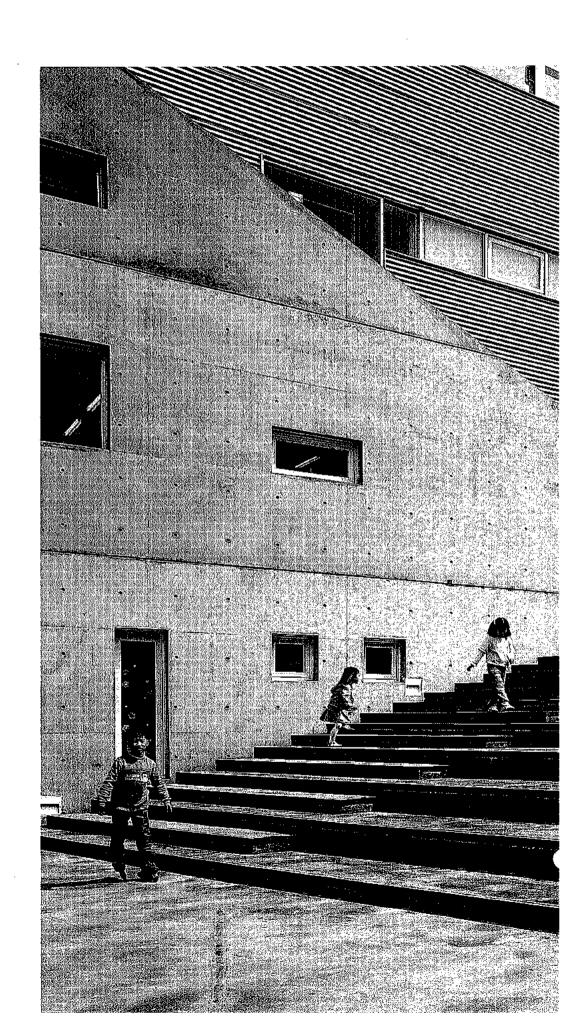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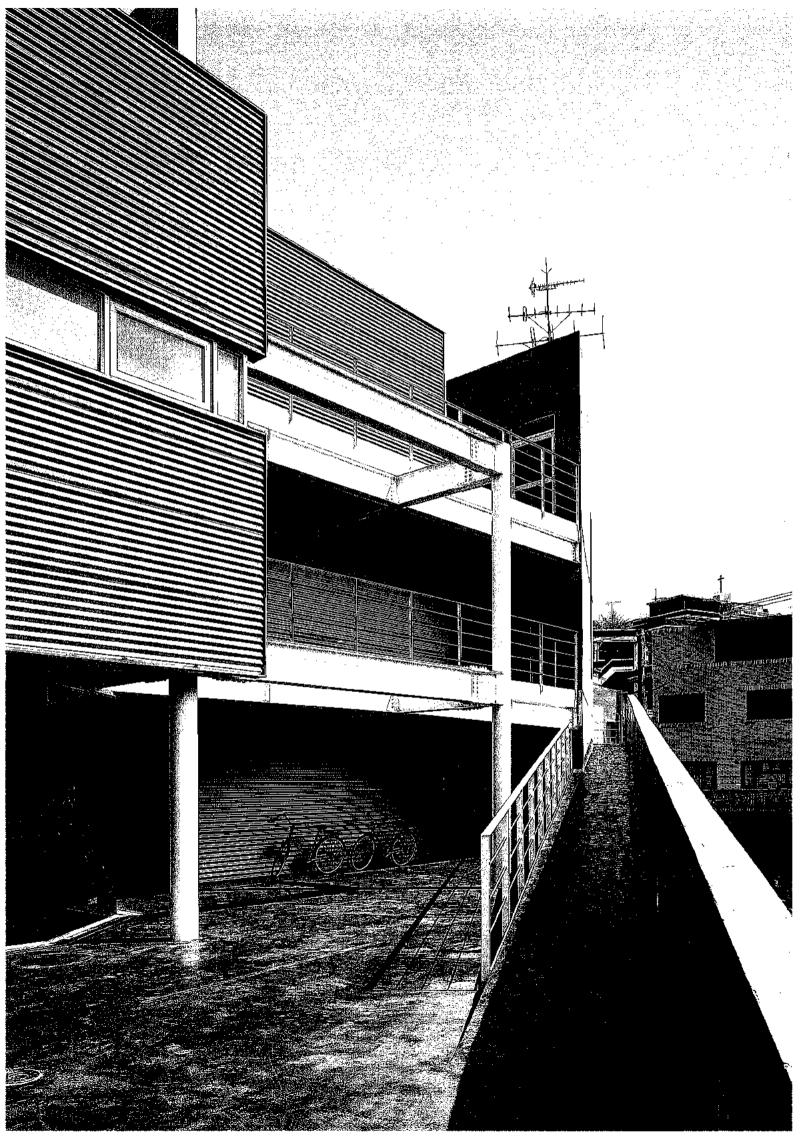
도 공간이 박제되어 땅의 호흡이 정지될 것이 분명하기 때 문이다. 맨살의 콘크리트와 메탈의 질감으로 외도한 것은 소재의 속성만으로 형태를 형상화 시키려는 것이다. 최소 한의 기공으로 작위적인 흔적을 남기지 않을 수 있다면 자 연스러운 결과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주어진 것을 그 저 정리해둔 것이므로... 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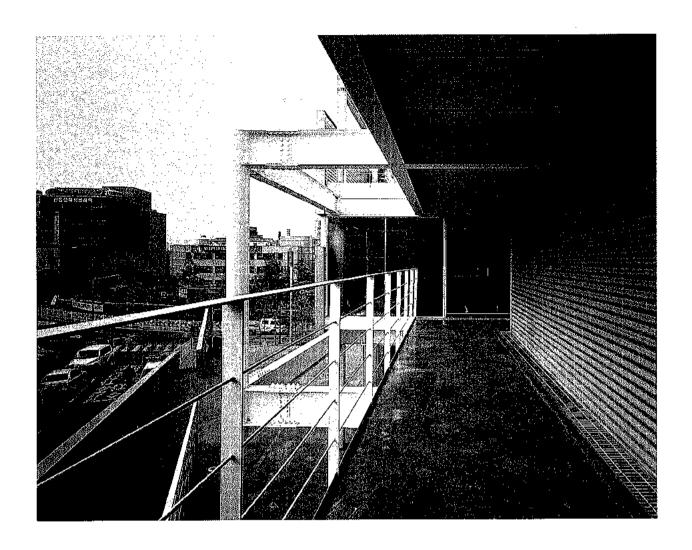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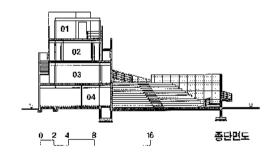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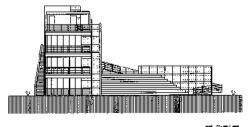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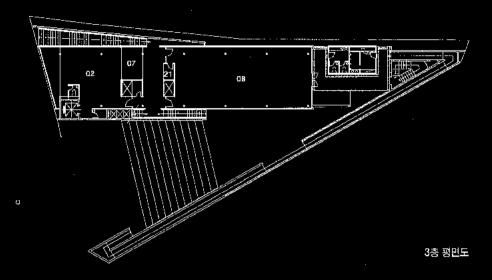
01_ 육상광장 02_ 정보자료실 03_ 민원행정실 04_ 주차장 05_ 마목적실 06_ 주민자료실 07_ 유아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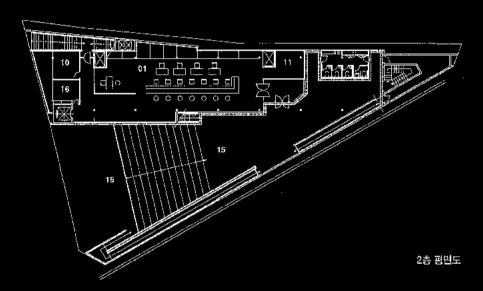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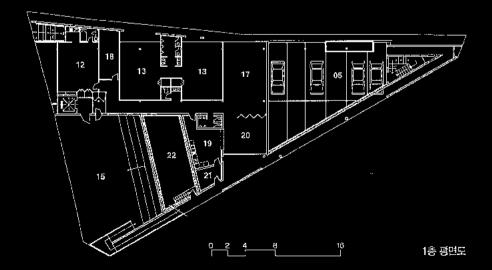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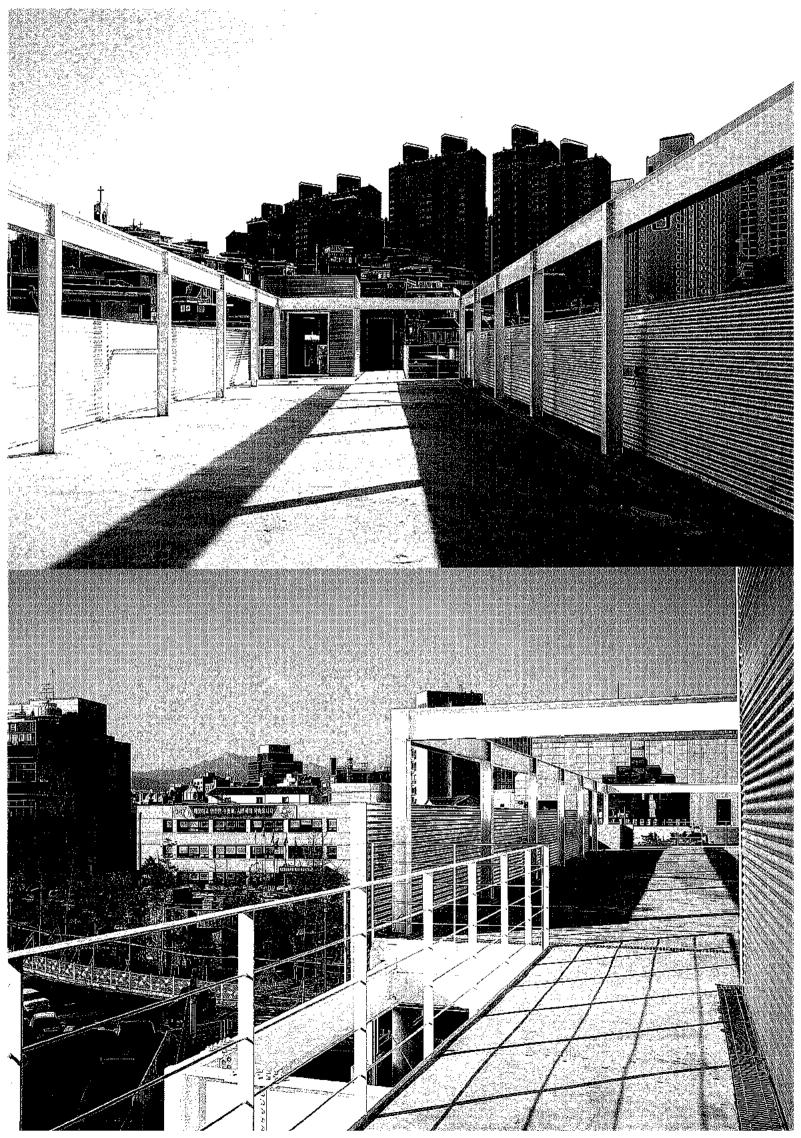
쫘츅면도





01. 목산활장 02. 정보자료석 03. 민원행정실 04. 확장실 05. 주자장 06. PIT 07_ 탁야방 08_ 다족세심 09. 샤워실 10_ 숙작심 11_ 주민자료실 12_ 염이실





비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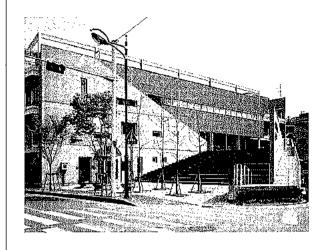
critique

Haengdang-dong Office

그 풍경건축(風景建築)에 관하여

The Floating Land -About its Landscape Architecture

> 이공희 / 국민대학교 건축대화 전임강사 By Lee Gong-Hee



역시 커뮤니티시설이 되는 성동문화회관과 마주선 276평 의 땅에 어린이집과 동청사를 360여평에 담은 건축이 행 당1동 청사이다.

이 건축이 갖고 있는 건축가의 본질적 의사를 뒤로하고 일 견한다면, 이 건축이 갖는 문제는 두 가지 이슈로 정리될 수 있을 것이다. 서로 다른 기능을 한 건축에 담는 것이 그 하나이고, 다른 하나는 별다른 질서없이 벌어진 군소건축 올 배면에 이웃하면서 좁고 긴 삼각형의 대지에 어떻게 건 축할 것인가 하는 일이었으리라.

전자에 대한 건축가의 대처는 한 건축에 서로 다른 기능을 담는 일이 그러하듯 진입부의 높낮이의 조절을 수단으로 서로 다른 레벨링으로 해결한다.

지면층에는 어린이집과 주차장을 서로 다른 진입으로 분리 하면서 각기 수직통로를 갖도록 하면서 상층의 레벨에는 동사무소의 기능을 얻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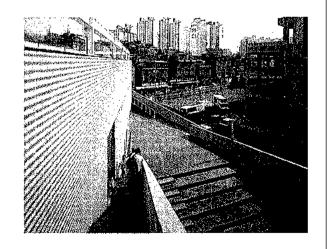
동사무소가 갖는 출입구의 레벨이 또 다른 지면층이 되기 위해 만들어진 완만한 계단은 장애자 램프까지를 동반하지 만 그 본래의 목적을 만족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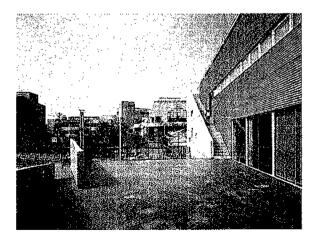
그렇게 만들어진 데크층은 이미 지면으로부터 한층 올라왔 지만, 그 슬라보는 이미 데크라기 보다는 또 다른 지면의 로 사용되기를 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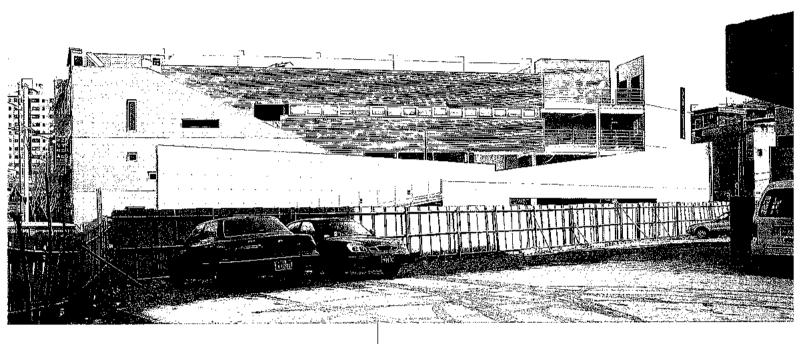
후자의 좁고 긴 삼각형의 대지에 대한 대응은 몇가지 대안 이 있었으리라는 가정을 해본다.

우선 김인철의 건축에서 발견되는 기하학적 원형의 채택이 그 대안이었을 것이다.

대지 한켠에 정방형의 건축으로 놓았다면 모서리 삼각대자 의 느낌은 희석되었을런지도 모를일이다. 한편 그곳에 좀 더 완성형에 가까운 원형으로 생긴 평면을 놓았다면 별다 본 질서를 찾을 길 없는 이 대지에 구심성을 발휘하여 또 다른 주변과의 관계가 성립되었겠지만 꼭 이 땅에서만의







해답은 아니었으리라.

이러한 일반해가 가지는 속성의 유혹으로부터 이 건축이 자유로울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하는 의문이 그 다음 사고와 연결된다.

점증 / 상승

이 건축의 표정으로 본 주제는 점증 일게다. 그 점증으로 확산된 조형은 수직적으로는 상승되어 보이고, 평면을 그 리는 선 따라 읽어 내려가면 예각의 속도를 느낀다.

이 건축이 일반해로부터 자유로웠던 것처럼 땅의 구축, 여유와 잉여 등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면 이 건축이 대자에 적응하는 구법은 이 건축이 갖는 필지 영역으로 한정되지 않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대지의 모서리로부터 출발한 시점은 이동하여 건축의 종점을 대지의 외부까지로 확산시키므로 주변과 도시와 연을 맺는다.

이 가속을 가능하게 하는 건축가의 의사는 평면이 그리는

선의 연속이 그 원인이 되지만, 그것의 표현으로 나타난 것은 이 평면이 만들어내는 사선의 입면구성이다. 그 사선이 연장하고 있는 표현은 상승이고, 전체를 지배하는 조형의사는 점증이다.

평면의 선들이 대지 전체를 사용하여 도시환경에로의 관계 를 가능하게 하듯이 이 건축조형을 수직으로까지 연속하여 주변 건축의 풍경 속에 점유하려는 의사가 있다.

진입부를 출발점으로 하는 계단의 상승이 그 의사의 하나이고, 이 수직상승과 평행하게 연출되지만 속도를 달리하는 램프도 그 범주 안으로 보고자 한다. 이 계단과 램프를 경유한 동선은 동청사의 뜬 땅을 만나지만 곧 다시 지붕에 마련된 또 하나의 뜬 땅을 향하게 연출되는 동선은 연속하고 있다.

이 시선을 주도하고 있는 연속의 중심에는 여러 개의 지면을 가능케 한 접증의 의사가 근거하고 있고, 이 점증의 개념이 주변이 이루는 풍경으로의 회복을 이루어내고자 하는 또 다른 구축을 연출한다. 圖

한국산업은행본점

Korea Development Bank Headquarters

이영희 · 정영균 / (주)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디엠제이엠 키팅 아키텍트 Designed by Lee Young-Hee, Jeong Young-Kyoon & DMJM Keeting Architects

건축개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6-3번지 대지위치

일반상업지역/집단미관지구/최고고도제한지구 지역지구

공용시설보호지구

대지면적 21,468n²

건축면적 9,465.60n3

연 면 적 99,839,12㎡

건 폐 율 41.10%

묮 적 율 244.71%

업무시설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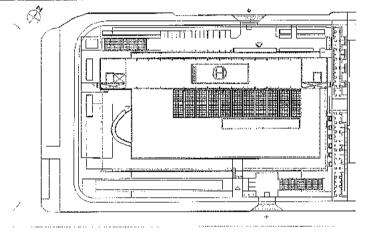
지하4층, 지상8층 규 모

철골 철근 콘크리트

THK30화강석버너구이, THK28복충반사유리, 외부마감

THK24투명복충유리

건축사사무소 제공 사 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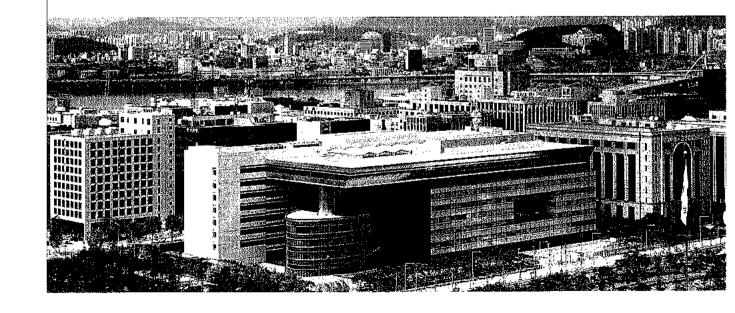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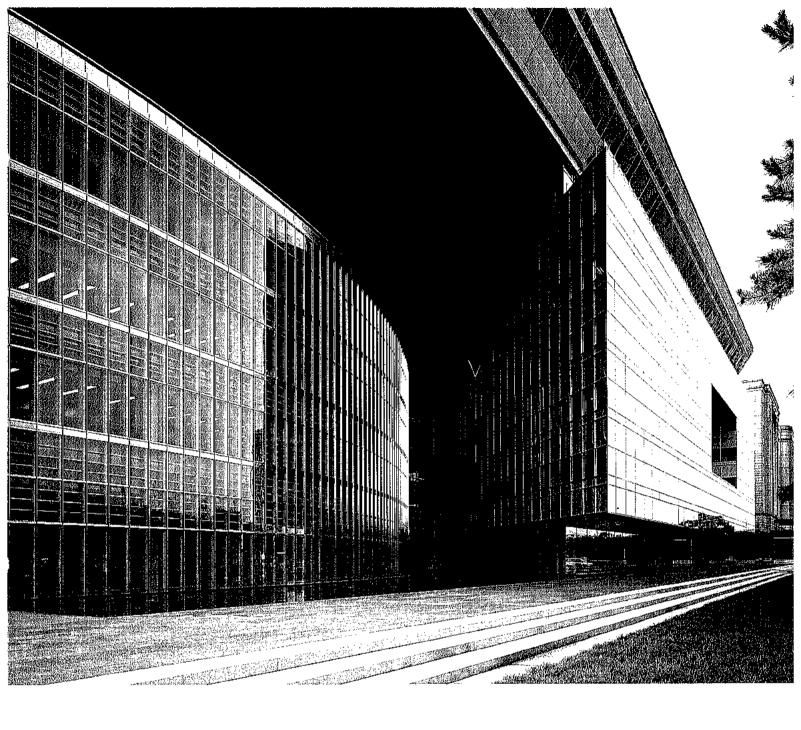
배치도

한국산업은행의 주된 디자인 방향은 은행에 적합한 이미지 창출과 주변 여건과의 조화에 있었다. 또한 대지의 정면에 위치한 여의도 공원이 주는 비어있는 공간의 거대한 스케일감과 국회의사당에 의 한 높이제한, 대지가 갖고 있는 규모에 따른 지루한 수평성, 후면에 위치한 업무시설군과 여의도 광장이 갖는 각각의 주출입구의 모호 성 등의 해결이 주요과제였다.

적정 규모의 요구면적과 높이제한은 자연스럽게 건물형태의 수평 성을 강조하게 만들었고, 업무기능과 영업기능의 분리를 통하여. 자연스럽게 각각의 요구에 적합한 형태를 갖는 3개의 건물군으로 구성하였으며 또한 이율간의 연관성을 위하여 연결통로를 각 층에 설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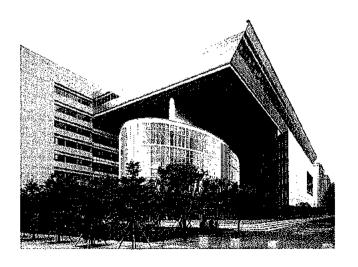
3개의 건물군이 일정한 거리에 위치함으로써 내부에 상호 긴장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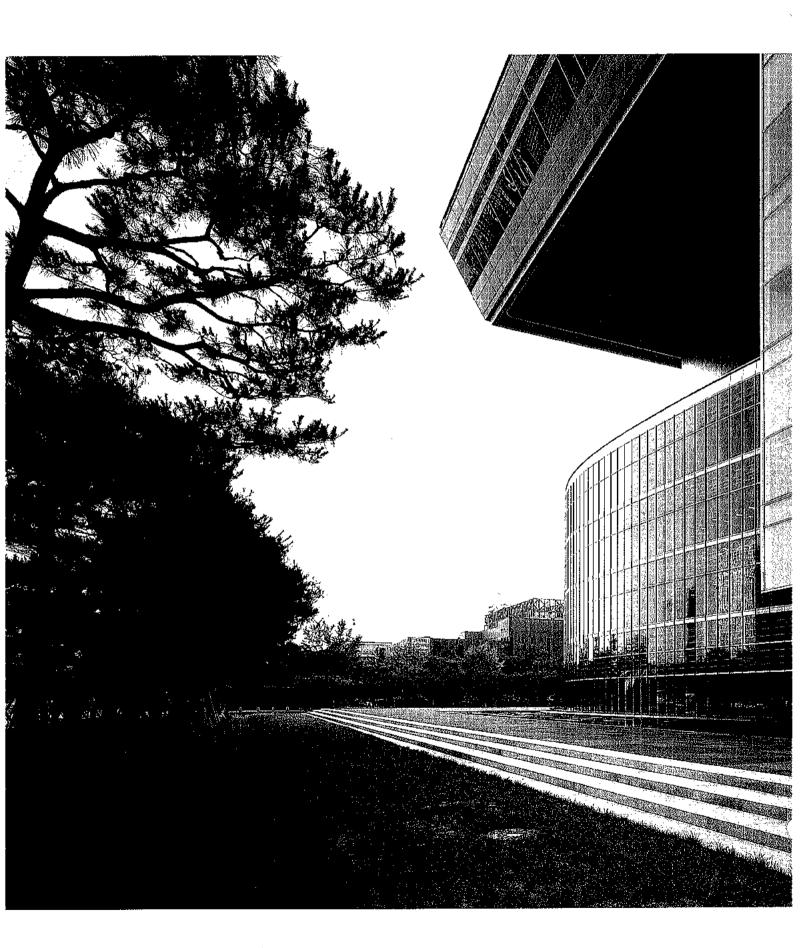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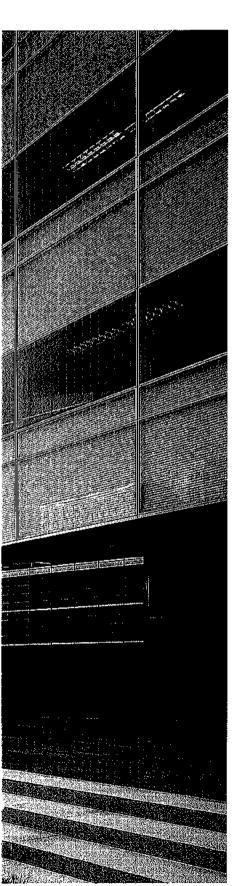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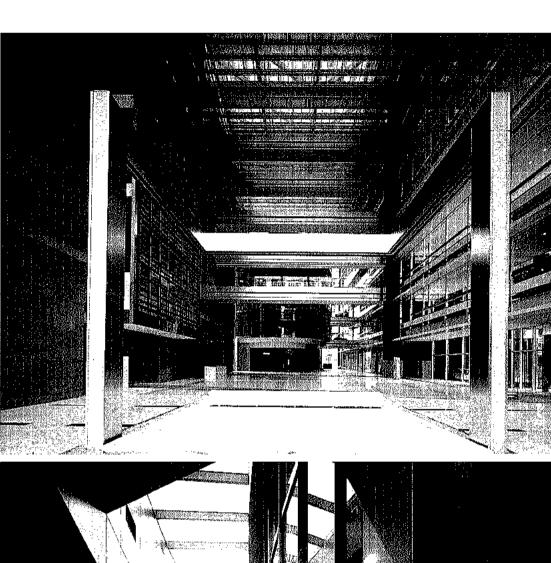
힘이 작용하는 공간이 형성되었으며,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투명한 유리 외피로 아뜨리움을 조성하였다. 이로써 각 건물의 출입구가 아뜨리움으로 모아 집으로해서 커디란 공간이 주는 시원함과 쾌적함을 얻었다. 또한 커디란 프레임 역할을 하도록 장방형 매스를 후면에 설치했으며, 그 반대측에 마름모꼴 형태를 위치시켜 배치의 방향성과 평면기능의 조화, 입면성의 지루한 수평성을 3개 매 스에 의한 리듬감으로 대체하였다.

입면 재료로는 건물 매스와 가장 적합하도록 커튼월과 스테인레스스틸, 회강석 을 적절히 활용하여 기증에 따른 내부의 투명성 확보와 적절한 막힘이 이루어지. 도록 하였고, 최상층에는 시각적 안정감을 주고자 경량재인 스테인레스스틸을 사용하였다. 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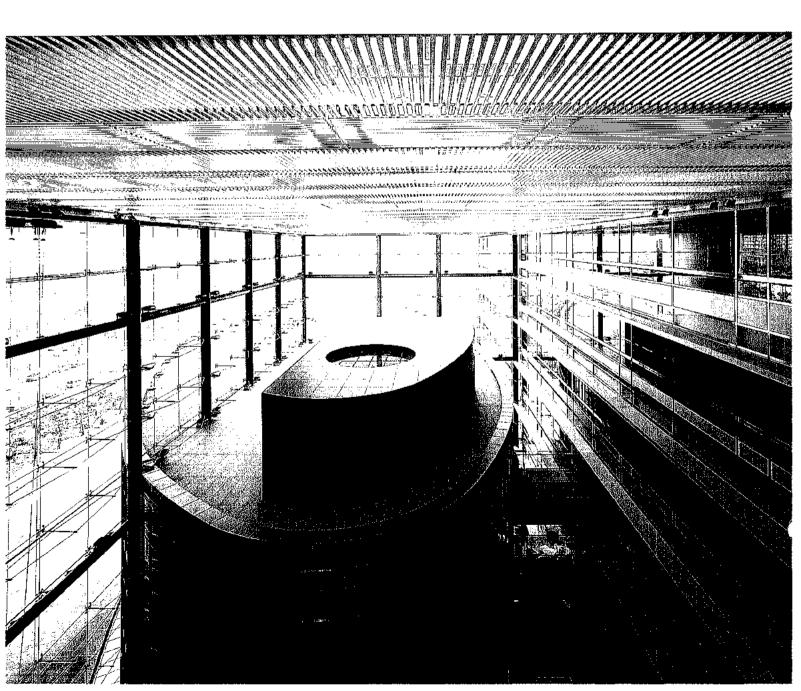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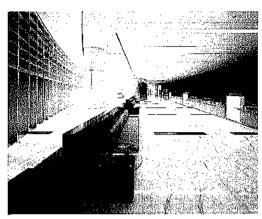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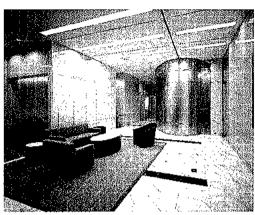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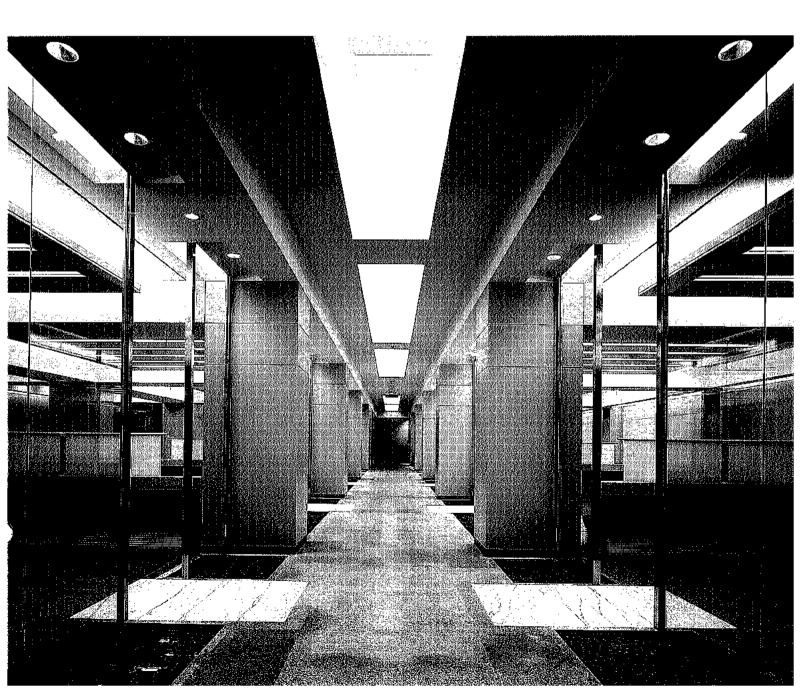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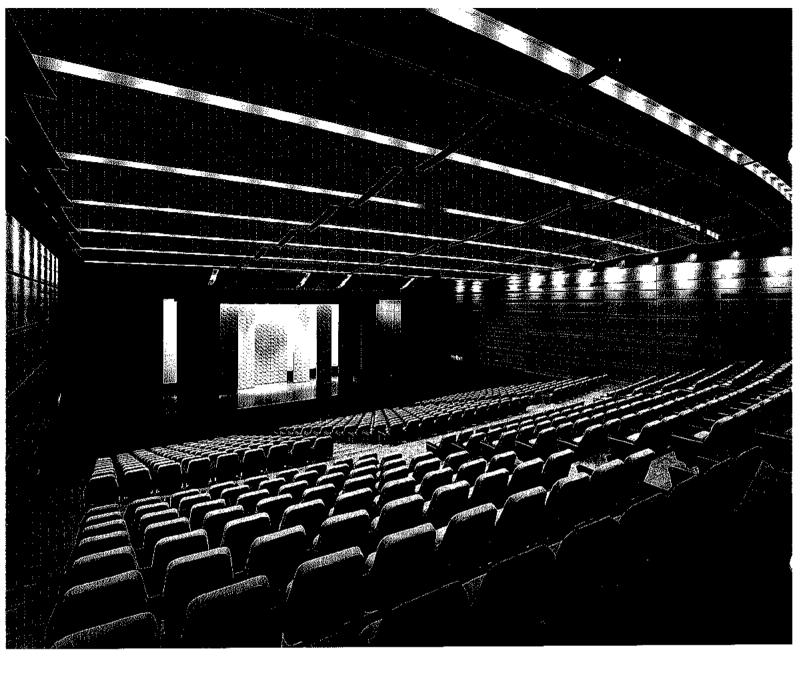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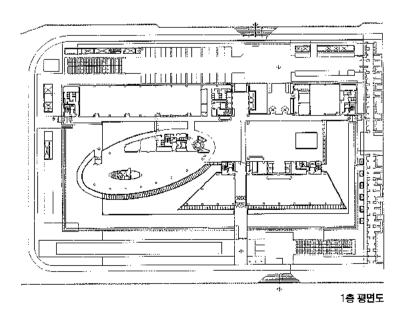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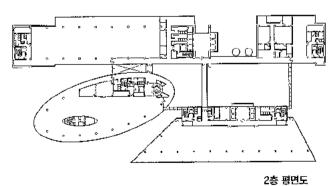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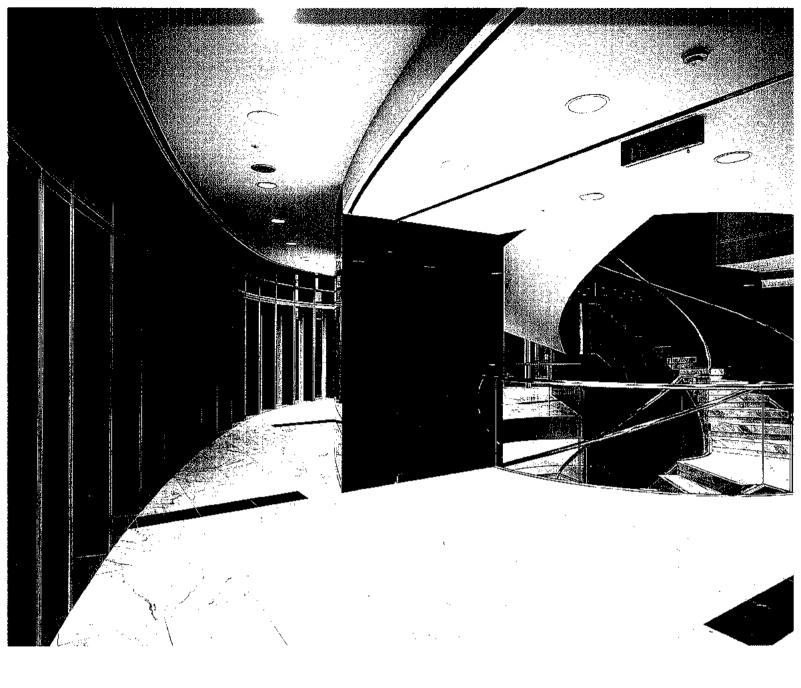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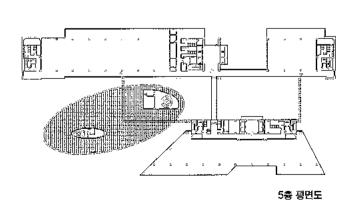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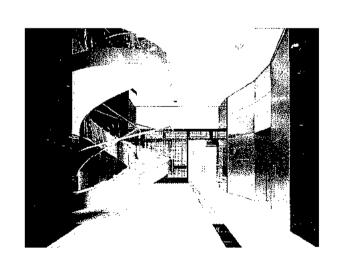












종교교회(양주삼 기념교회)

Chongkyo Methodist Church

김한근 / (주)건축사사무소 한엔김건축 Designed by Kim Han-Geun

건축개요

대지위치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렴동 32-1 외 7필지

(도<mark>렴구역</mark> 제21지구 도심재개발구역)

도시계획 일반상업지역, 재개발사업구역 건물용도 종교시설(종교집회장 - 교회)

도로현황 전면 20M, 우측면 8M도로

대지면적 1,738,80m 건축면적 985,55nf

9,989,39m연면적

56.68% 건 폐 율

용 적 률 376.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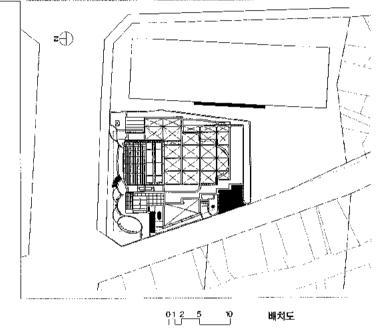
지상8층, 지하3층

61.65M(법정 - 62M 이하) 최고높이

<u>철골콘크리트조</u> 조 외부마감 화강석 버너마감

270.90㎡(법정 - 270.90㎡) 조경면적

진 건축사사무소 제공



하여 지역적으로 상징적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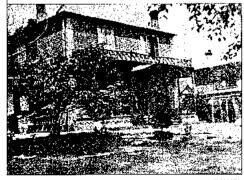
종교교회는 오랜 역사를 가진 서울 중심의 몇 안되는 토박이 교회 중에 하나이다. 1901년에 설립되어 우리 민족의 여명기부터 변혁 의 한세기를 같이 해오면서 그 자리를 지켜오고 있다.

도렴동 현 위치는 수도 서울의 가장 중심에 위치한다. 정부종합청 사와 경복궁을 위시한 유서 깊은 역사적인 유적에 둘러 싸여 있다. (광화문의 비각은 이곳을 기점으로 우리나라 한반도 여러곳으로의 거리 이정표가 있다) 참으로 우리나라의 중심중에도 중심에 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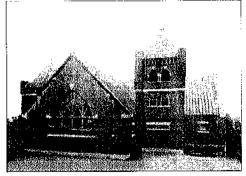
기본 구상

교회는 만인의 기도하는 집 이다. 그리스도를 모시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종교적 신앙 공통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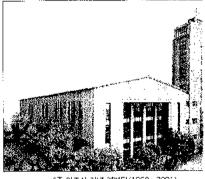
교회는 그 지역 사회와 함께 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적극적으 로 개방할 필요가 있고 여러 주변 건물들 속에서 역사와 전통을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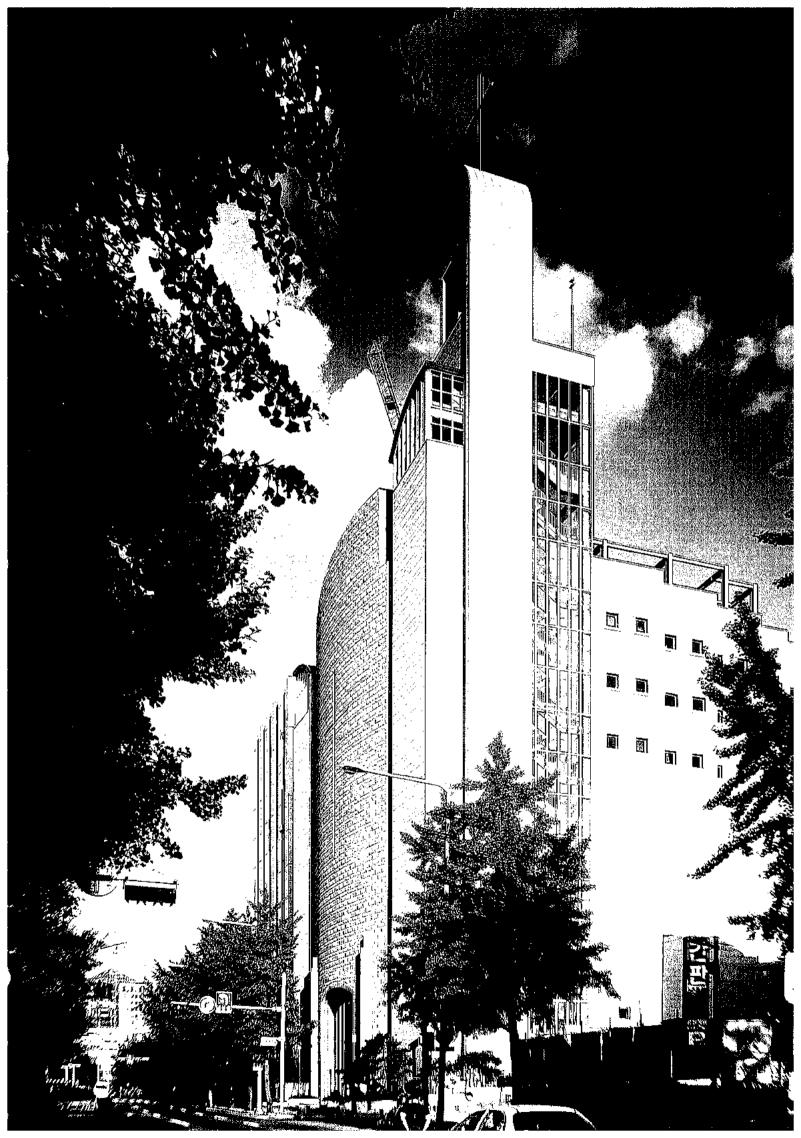
배화학당



젊은 벽돌소 예배당(1910~1958)



석조 양주삼 기명 예배당(1958~2001)





닌 교회로서의 IMAGE를 나타내고자 하였다.

기본 계획

계획 규모는 1500석의 본당과 500석의 소예배실 및 부속시설과 지하 주차장을 포함한 연면적 약 10,000㎡(3000평) 규모이었다.

당초 본당을 최상층부에 배치하여 반원형의 높은 천정과 천창을 통한 빛을 유입하려 했다.

그러나 일시에 많은 인원이 집중될 때의 문제로 저층으로 배치하는 방 안을 신중히 검토 협의한 끝에, 구조적으로 분리한 점이 있기는 하지만 본당을 3층으로 배치키로 하였다. (교회 예배실 윗부분에 다른 시설 을 두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1층에는 어린이집, 2층은 다목적 강당, 지하1층은 노인과 친교를 위한 다목적 집회실 등 저층부는 대외 개방 공간으로 계획하였다. 지붕 옥상을 1층의 부족한 옥외공간을 대신하여 친교와 휴식공간으로 활용토록 하였다.

건물의 전체적 느낌에서 수직 형태를 강조하기로 하고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 높낮이를 달리하여 위계를 두기로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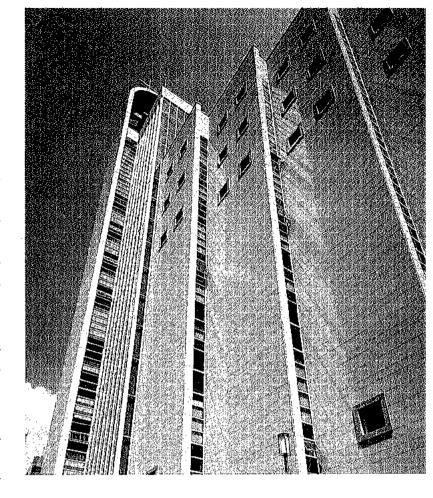
하늘과 땅,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높이 하늘을 향한 의지, 주변 높은 건물들과 어울리면서도 강한 모습이 되도록 계획하였다.

건물의 정면(북촉)을 3부분으로 구분하고 화강석을 거칠게 다듬어 잘 감을 통해 부드러우면서도 장중한 느낌을 갖도록 하였다. 십자기탑 : 종탑 부분도 3부분으로 <mark>구분</mark>하여 계만 부분은 유리로 개방하고 중심 탑 부분은 건물의 중심이 되도록 높게 치솟는다.(지상 66m)

정면과 탐부위를 각기 셋으로 구분한 것은 수직을 강조하면서도 삼위 일체의 의미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려 하였다. 옥상을 공원화하여 휴식 공간으로 촬용함으로 도심속에서 인왕산, 남산 그리고 사이 사이로 북 악산을 시원하게 바라볼 수 있고, 서울 도심의 집들을 바라보는 또 다 른 즐거움이 연출된다. 외곽으로 화단을 조성하였다. 조경은 건축에 있 어 건물 자체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건물을 돋보이게도 또는 추하게 보이게도 할 수 있다. 좁은 화단을 높낮이를 각기 다르게 그리고 화단 테투리를 둥글게 하고 우리의 소나무를 중심으로 식재하고 구석진 부 분에는 대나무를 심어 운치를 더하게 하였다.

넉넉하지는 않지만 세심하고도 짜임새 있는 화단을 조성하여 삭막할 수도 있는 도심 분위기를 운치있도록 시도하였다. 대지의 모서리 부분 은 건물의 중심이 되는 십자탑이 있기도 하지만, 이곳에 공개 공지를 할애하고 지나는 길손이 쉬어갈 수도 있고, Group 선교팀이 찬양하는 우대도 될 수 있다.

정지된 바닥과 등근 반원의 뒷벽면 그리고 단순하면서도 세련된 ㅣ자 형 주변 외등의 조화로 해진뒤 저녁때에는 아름다운 작은 뜰이 된다. 건물 서측의 작은 도로에 면하여 Sunken Garden을 만들었다. 지하 공간을 Sunken을 통하여 외부에 접하는, 마치 지상에 면한 공간으로 만들었고, 전통 한식 문양의 점토 벽돌담장으로 만들었고 마치 대청에 서 정원을 바리보는 느낌이 들게 한다. 잔잔한 물이 있는 것 같은 바닥, 정원수, 계단과 대나무가 어우러져 잊혀진 우리의 전통 정원의 모습을



재현하여 즐거움을 일깨워 준다.

건물의 높낮이가 다른 각 부분의 상충부는 그 지붕을 반원형의 형태로 하고 개방된 유리창으로 하였다. 그 모습은 배의 고동/나팔을 연상케 하였으며 구원과 은총을 받은 교회가 복음의 Message를 온누리에 전 하는 교회의 역할을 상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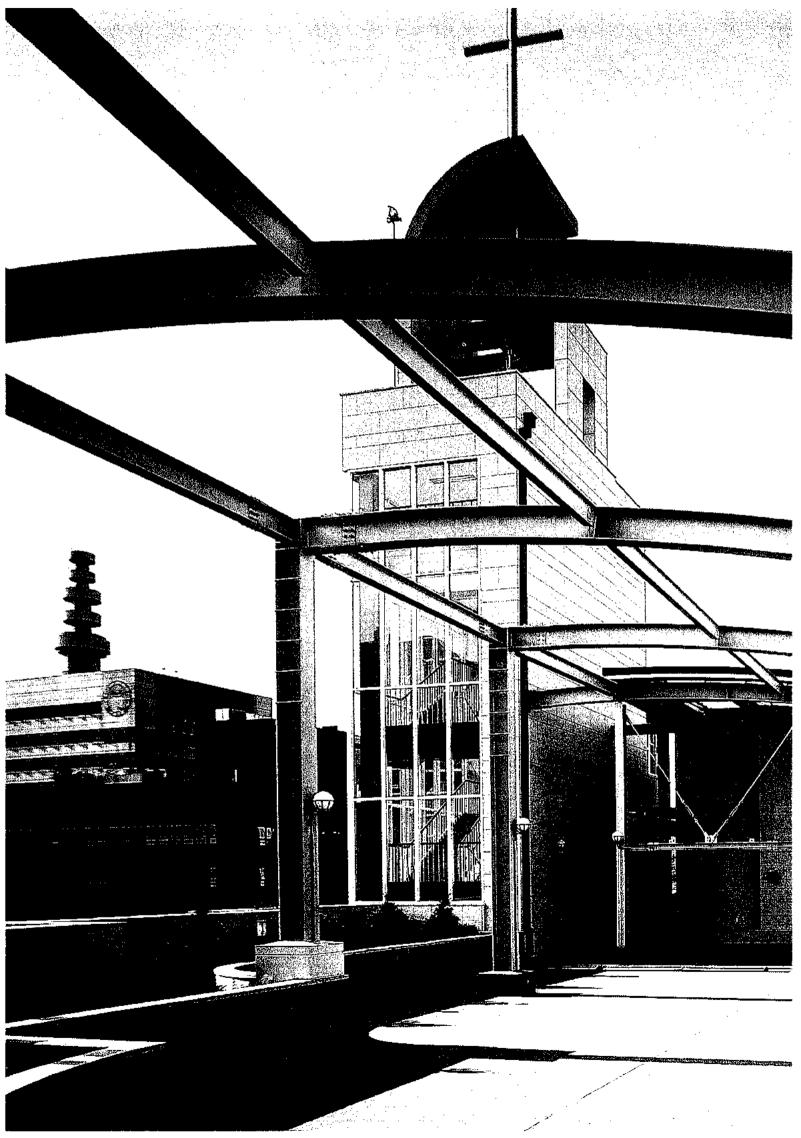
교회의 상징인 십자기탑은 전체적으로는 기도하는 모습이 연상된다. 그 위에 약2층 높이(7m)의 십자가(원형스텐레스 PIPE)는 햇빛을 받 아 찬란하게 비치며 종탑의 위로 향한 개방된 형태를 통하여 하나님의 주시는 사랑과 운총을 받는 창구의 역할이 되며 종소리가 울려 퍼지는 듯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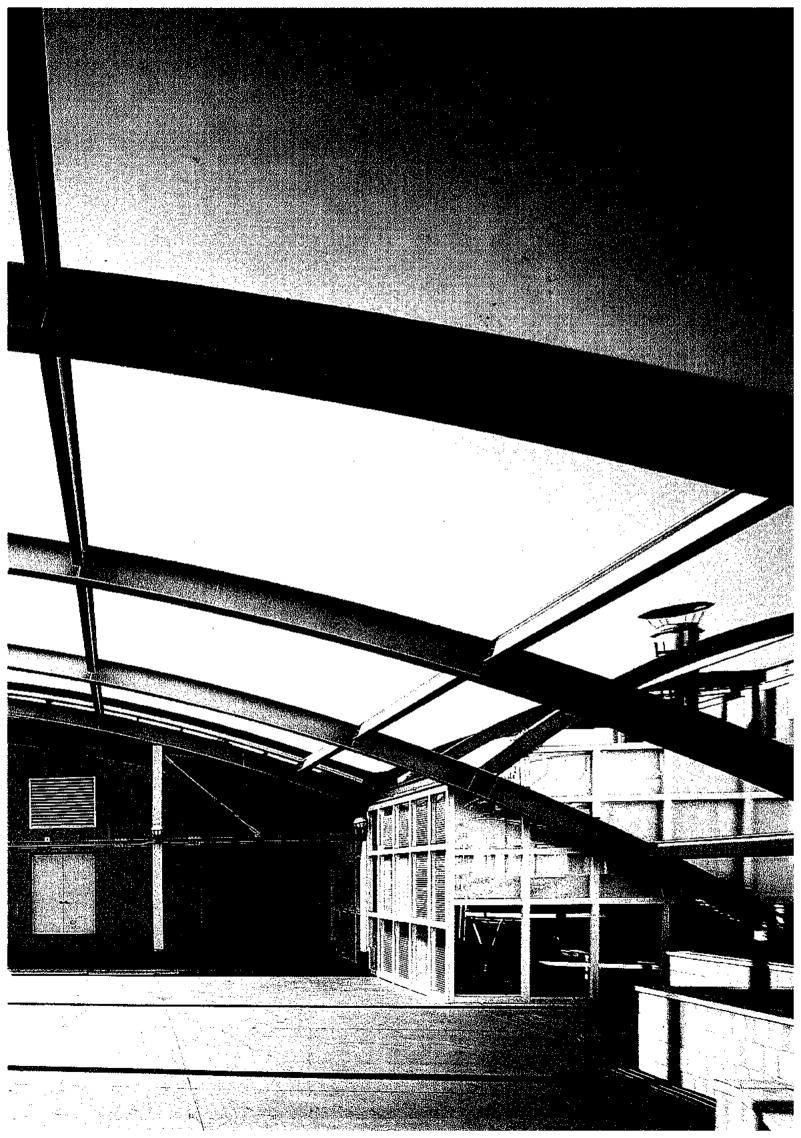
100년이 넘게 이어온 전통있는 교회로서 이전의 교회 모습을 가능한 남기고 싶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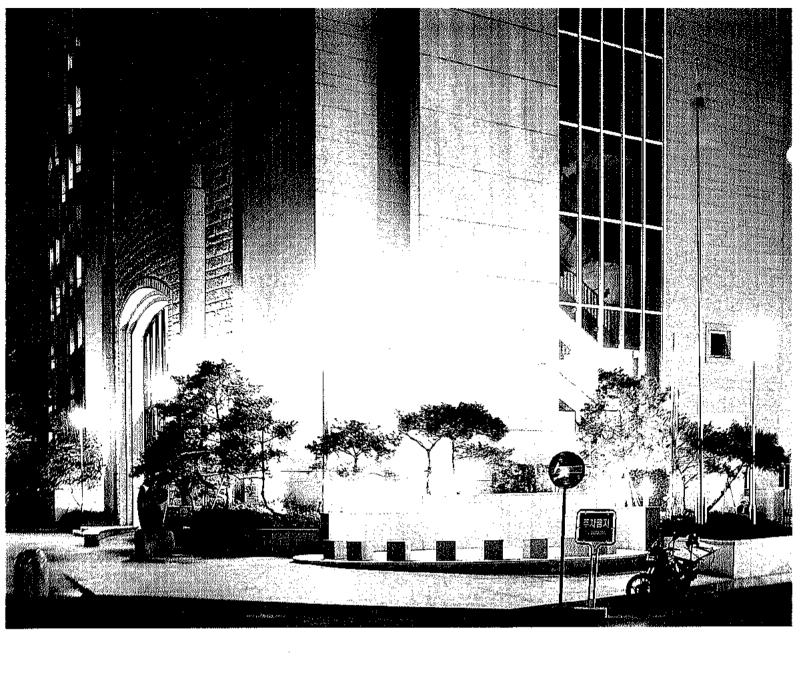
기존 건물 벽체의 일부(정면과 마감)를 그대로 새로운 부분에 남기고 자 하였으나 면처리에 어려움이 있어 이루지 못하였고 외벽 붉은 담장 도 100년전 초기 교회에 사용되었던 그 자리에 남아있는 재료를 그대 로 담장에 도입하려 시도 하였으나 Sunken 외벽 담장에 일부를 설치 해 놓은 것으로 만족했다. 그리고 Sunken 내부에 원래의 모습을, 화 강석에 레이저 그래픽으로 표현하여 그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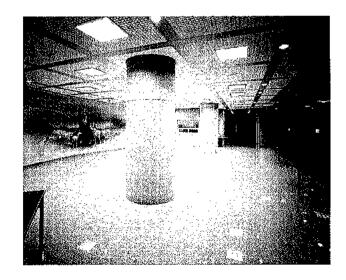
종탑에는 설립 당시의 옛날 종을 설치하고자 하였으나 일부 손상되기 도 했고 크기가 맞지 않아 설치하지 못하였다. 원래의 종은 보수하여 옥외에 조형물로서 함께 설치되었으면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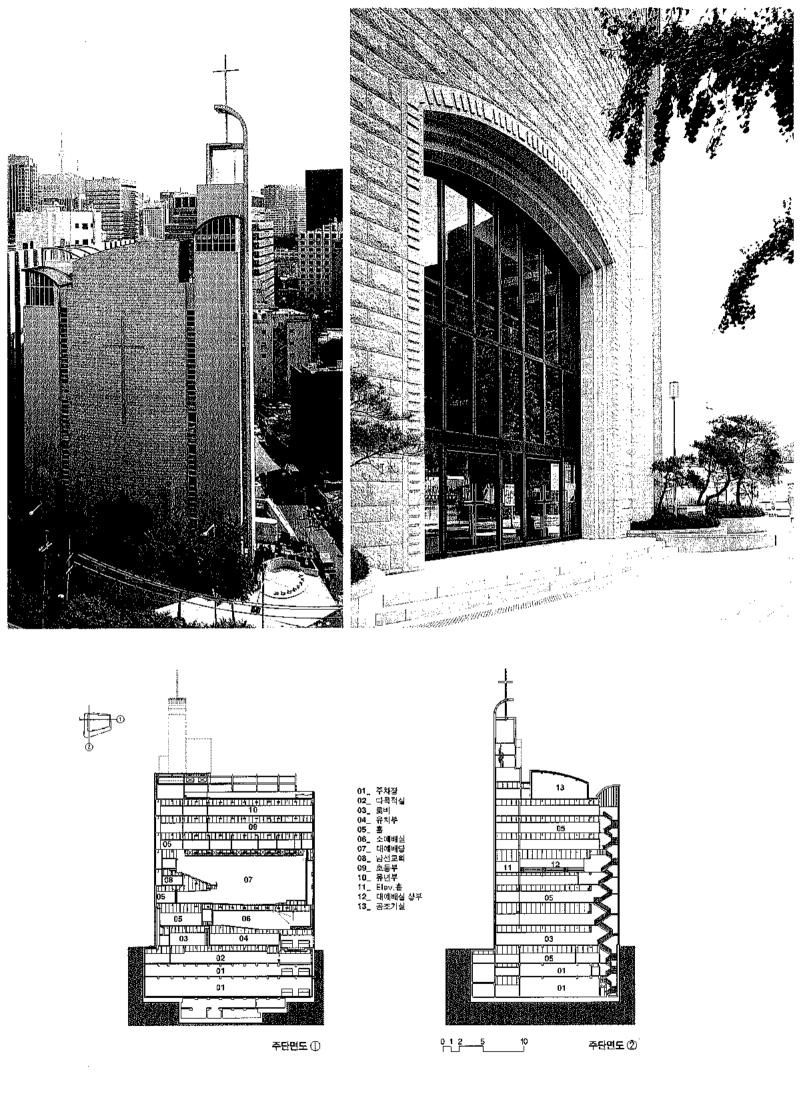
종탑에는 종이 설치되어 종소리가 들려지기를 바란다.(음악 종인 캐리 론이 설치되어도 좋겠다.) 여러곳의 좁고 긴 창에는 스테인트 그라죠. 가 설치되어 이간에 외부의 아름다운 색이 보여 졌으면 한다. 외부의 경관 조명도 보완 설치되어 함께 이름답게 연출되기를 바란다. 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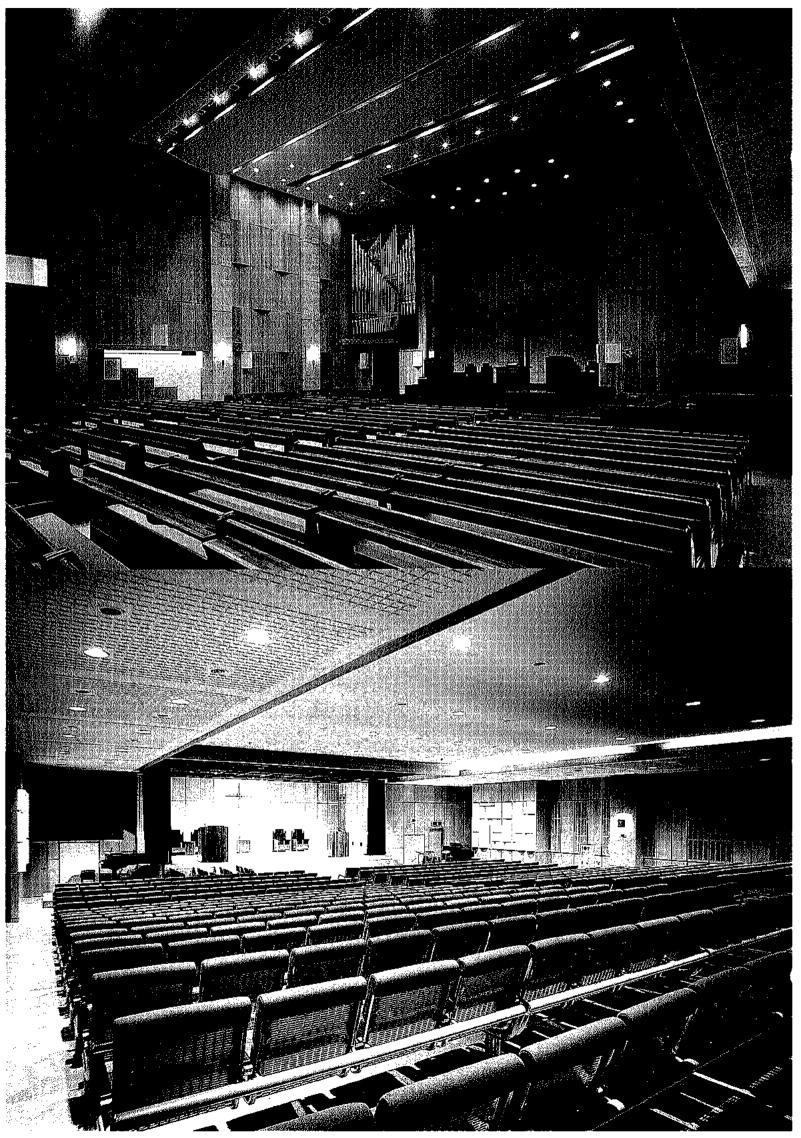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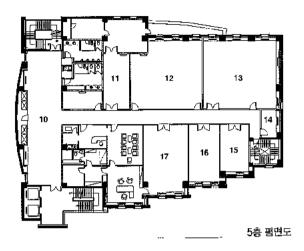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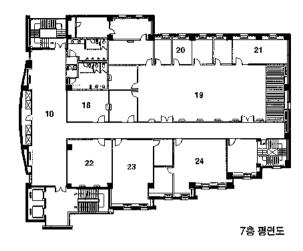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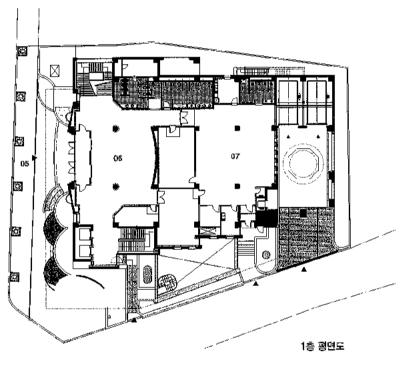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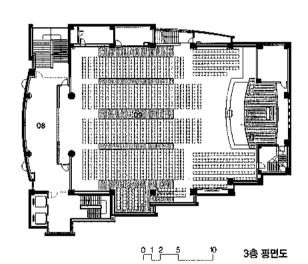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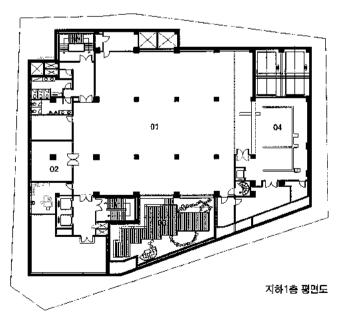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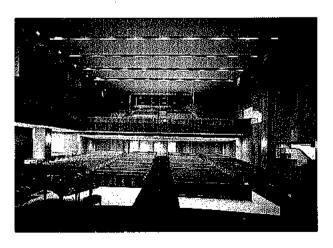












홍익대학교 정보통신센터

Imformation and Communication Center, Hongik University

오기수 / (주)종합건축사사무소 스페이스 · 오 Designed by Oh Ki-Soo

건축개요

대지위치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수동 72-1번지와 3필지

지역지구 일반주거지역 대지면적 $95,348m^{2}$ 2,506m² 건축면적

연 면 잭 19,487m² 건 폐 율 2.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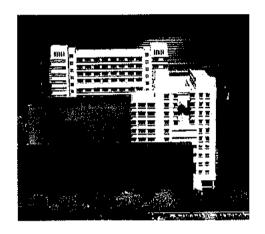
용 적 률 20.44%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지하2층, 지상11층 규 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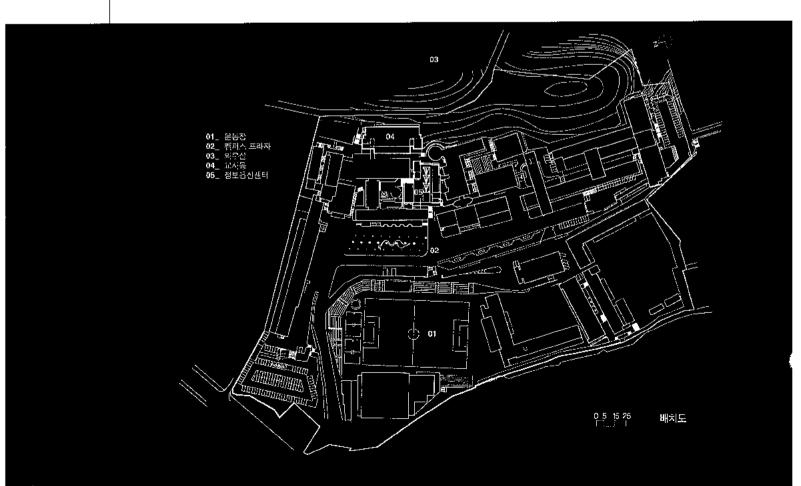
최고높이 46.55M 교육연구시설 두

본타일, 화강석, THK16 복층유리 외부마감

증기난방, 개별냉방 설비개요 102대(장**애인주**차 1대) 주차대수 건축사사무소 제공 사 진



건물밀도가 높은 홍익대캠퍼스내에 건축물을 증축하는 데 있어서 기존건물과의 단순한 연계가 아닌, 계획건물 을 관통하는 Intelligent Mall을 두어 시각적, 동선체계 의 연계성을 구현하며 활력있는 공간을 제공한다. 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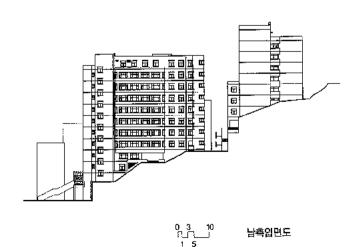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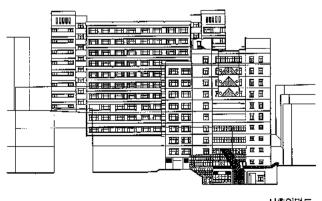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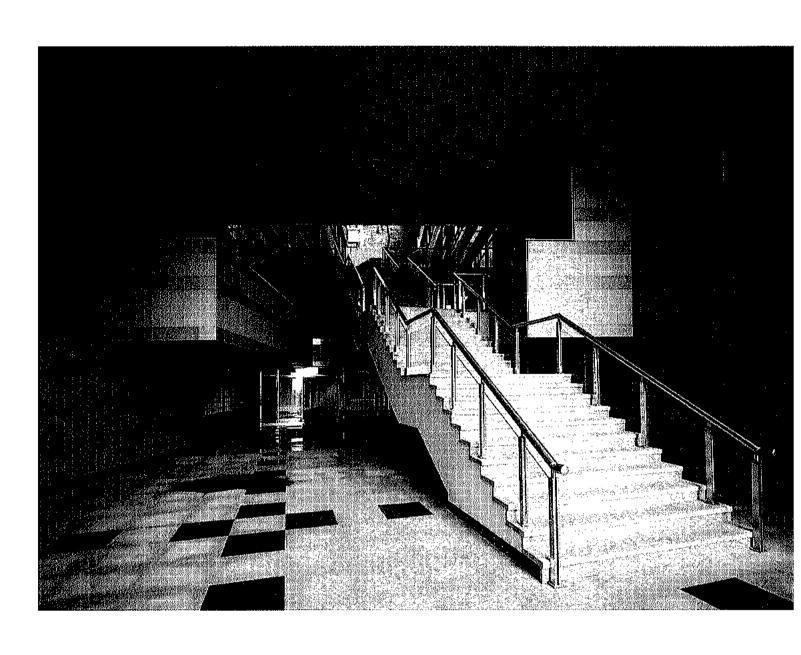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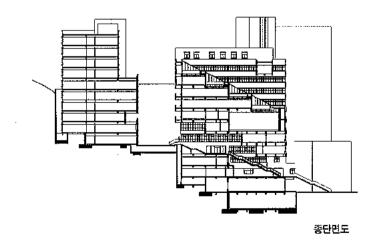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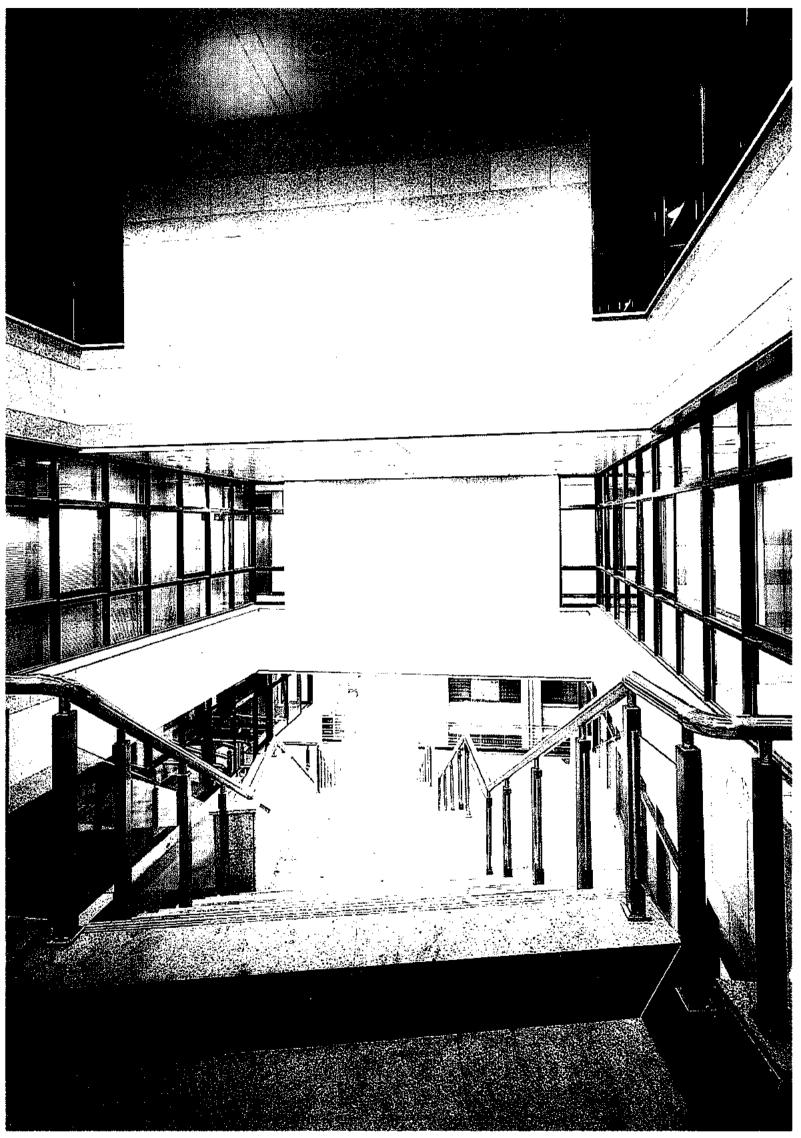
정보통신센터 교사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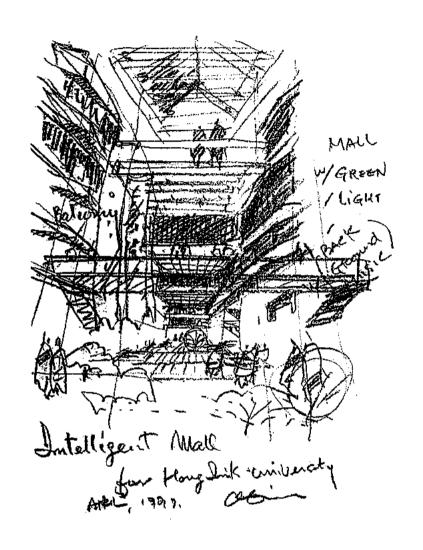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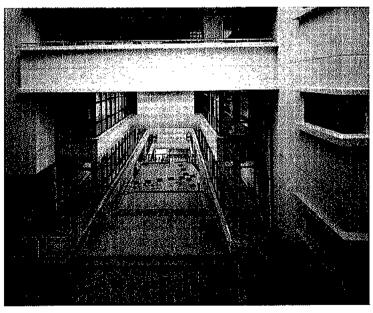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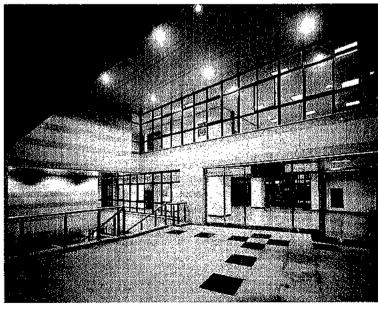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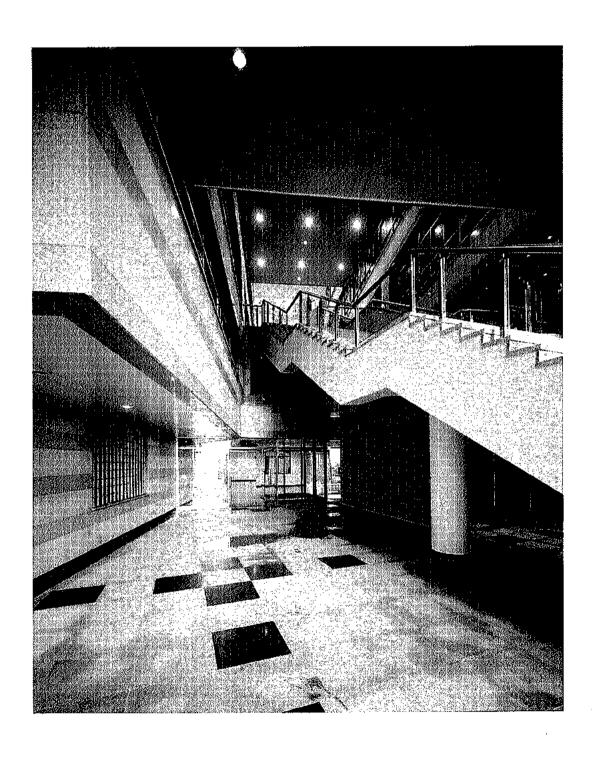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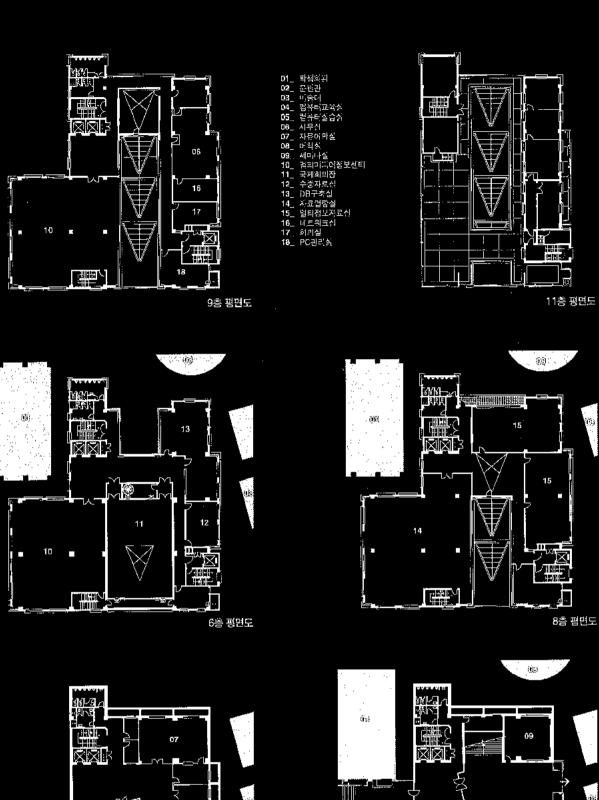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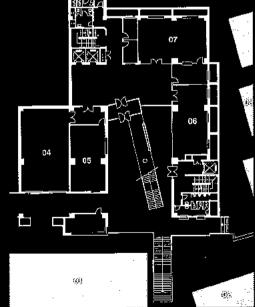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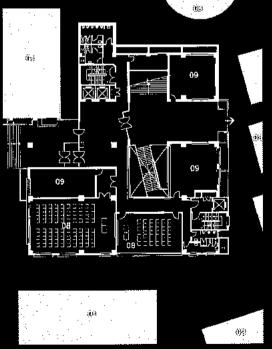












C 1 3 5 10

3층 평면도

반포세무서 직원숙소

Staff Dormitory for Banpo Revenue Office

오기수 / (주)종합건축사사무소 스페이스 · 오 Designed by Oh Ki-Soo

건축개요

대지위치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870-22

지역지구 일반주거지역

대지면적 383.90m2

건축면적 196.05m²

연 면 잭 $464.87m^{2}$

건 폐 율 51.06%

용 잭 률 121.09%

조 철근콘크리트조

모 7 지상3층

최고높이 46,55M

단독주택(다기구주택)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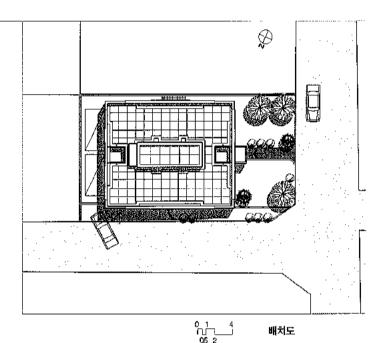
외부마감 붉은벽돌치장쌓기, 드라이비트, THK16 복층유리

설비개요 패널히팅, 개별난방

주차대수 6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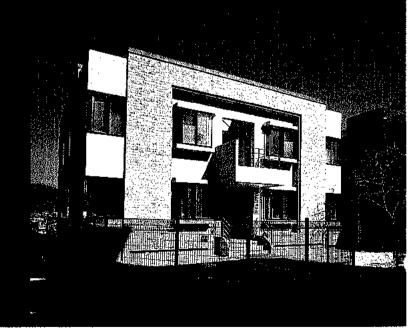
조경면적 37.60m²

건축사사무소 제공 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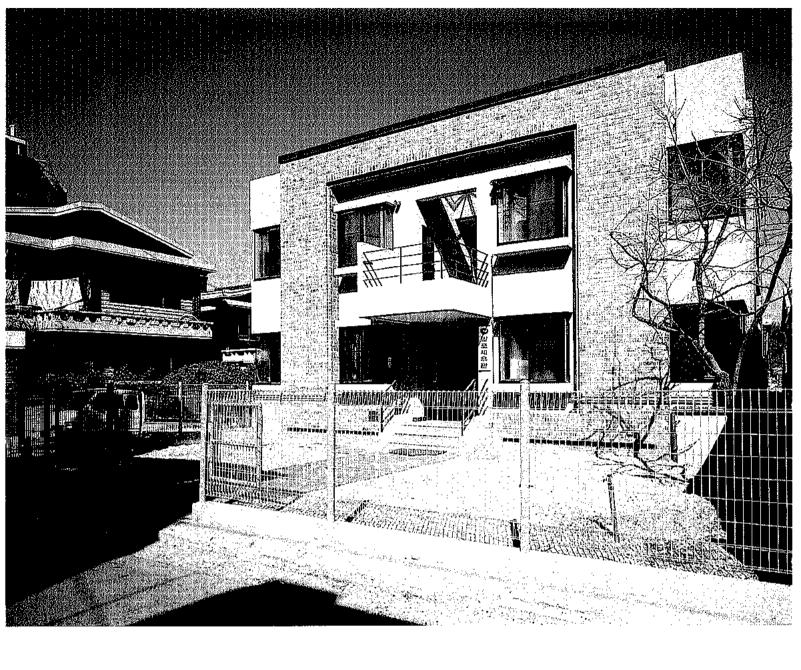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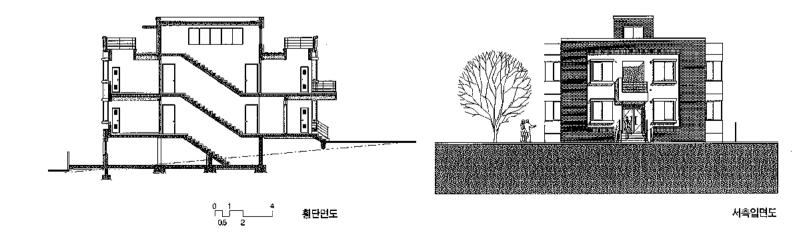
이곳은 2개의 도로가 교차하는 모서리에 위치한 대지로 경사면을 따라보이는 시선의 변화를 고려하였고, 대지의 가각에 공자를 확보하여 말도 높은 이 지역에 개방감을 참 출하였다. 계단실로 이루어진 공용공간은 천창을 통해 자연채광을 적극 유입하여 명람한 분위기를 하였다. 또한 모서리창을

사용하여 세대내부의 공간을 확장하였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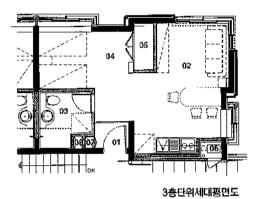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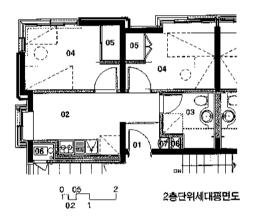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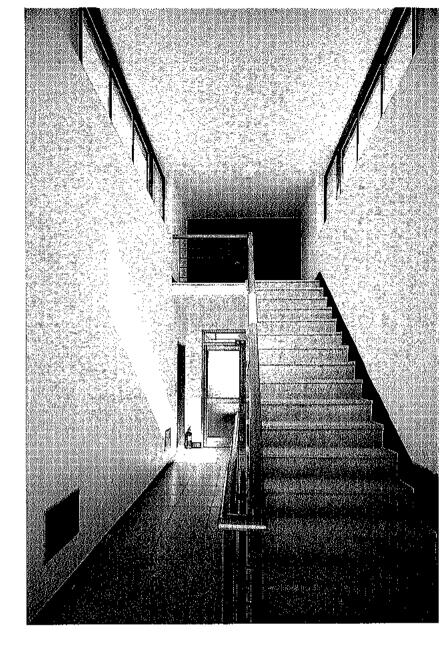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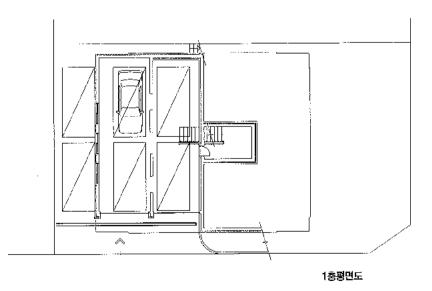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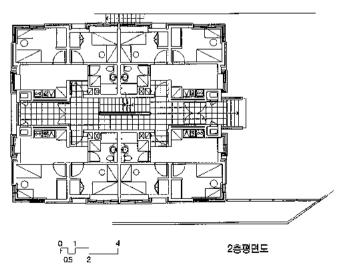
01_ 연관 02_ 거실, 주방 03_ 확장실 04_ 침실 05_ 옷장 06_ 보일러실 07_ 신발장 08_ P.D.











마당, 그 카타르시스적 공간

Madang, A Space of Cathars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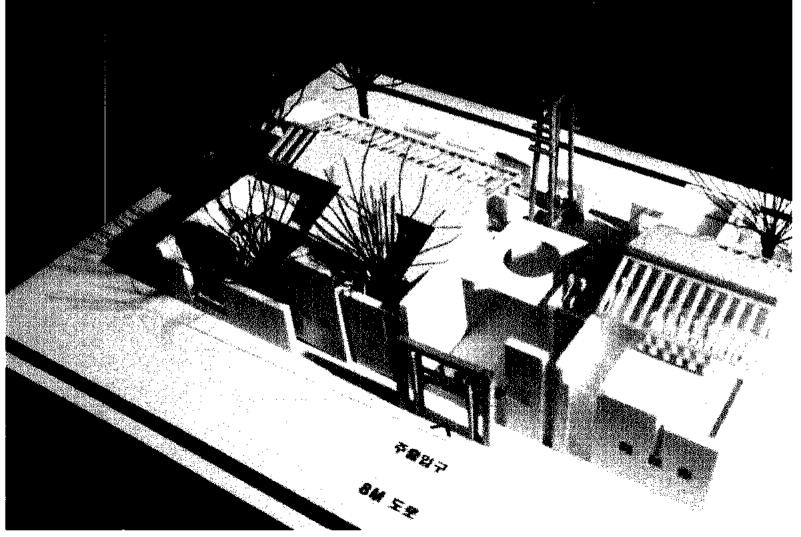
카타르시스 공간, 그 안마당의 미학적 접근 - 화성행궁 화장실에 대하여

최동호 / 예정건축사사무소 by Choi Dong-Ho

카타르시스(Catharsis)

새로운 설계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면 처음에는 그 해당 공간으로 하여금 미적체험을 유발시킬 수 있도록 함에 많은 스케치를 필요로 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한 에스키스의 작업은 보통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이고, 또한 공간의 해석이 보다 미학적 사유공간의 집근이 가능하리라고 생각되면 고민스러워지기 시작한다.

필자는 이번 프로젝트를 하면서 상당한 놀라움을 발견하였다. 별로 크지도 않은 (공중)화장실(보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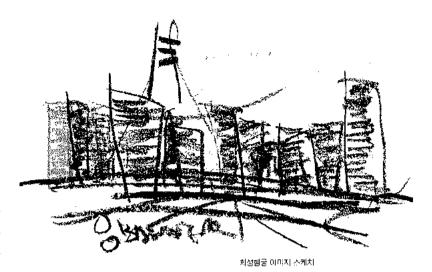
10~25평내외)의 설계가 이렇게 어려운 것이구나 하는 사실 이었다. 그런데 몇일이 지났을까 지난 회상속에서 두가지 추 역이 떠올랐다. 첫째는 어릴적 기억인데 칼칼한 시골길을 걸 으면서(친구들과 함께 걸은 논길이었을 것이다) 주위가 비어 있는 〈자유공간〉의 통을 타 그냥 실례를 하면서 장난치던 일 과, 그 다음은 대학 졸업후 직장 〈공간〉에 처음 입사해서인데 화장실이 왜 이렇게 작게 설계 되었을까 하는 점(설계실 남자 화장실은 소변기가 없었다)이었다. 이와 같은 사실들은 물론 이제 이야기를 풀어나가 카타르시스의 개념속에 내재된 카타 로시스적 공간의 사유를 꺼내야 하는 단초가 되는 것이잖도. 하다.

이리스토텔레스는 시학(詩學, poietike)에서 비극의 본질을 정의함에 있어서 카타르시스의 감정은 연민과 공포를 통하여 도달된다고 하고 있다. 즉 시학의 제6장에서 보면 '비극은 희곡적 형식을 취하고 서술적 형식을 취하지 않 으며 애련과 공포를 통하여 이러한 감정의 카타르시스를 행 한다." 라고 밝히고 있다. (우리의 내부에서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무거운 감정을, 비극의 관상(觀賞)에 의하여 동종(同種) 의 감정을 자극 환기함으로 말미암이 배설하여 경쾌한 정신 이 됨을 의미한다(시학,손명현역 p.22) 는 것이다.

또한 캬타르시스에 관하여는 아리스토텔레 스의 직접 연급이 없어서 많은 학자들에 의하면 크게 2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 도덕적 윤리적인 의미인 감정의 정화 (purificatio)'와 감정의 배설(purgatio)'을 나타내는 의학적 인 의미가 그것이다. 첫 번째의 감정의 정회는 "비극의 진행은 공포를 연민으로 변형시킨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연민이 공 포, 또는 증오나 분노와 같은 긴장되고 교통스런 감정으로부 터 해방으로 느껴질 때, 그것은 쾌와 같은 어떤 것이 된다. 즉 변이 transition가 일종의 쾌로 느껴지는 것이다.(미확사, 먼로C.비 어즐리/이성훈의 1억, p.58)"라고 설명하고 있다. 두 번째의 의학적 인 해석의 카타로시스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내용이 몇가지가 있는데, "아리스토텔레스 자신이 의술 훈련을 받았고, 피타고 라스학파는 의술을 통한 육체의 정화라고 하였고 히포크라테 스는 고통스러운 요소의 제거리는 뜻으로 사용하였다(조요한, 예 _{출철학, p.263)}"라는 내용이다.

그런데 많은 학자들간의 두가지 맞선 논쟁속 에서도 (예술적의 독자성을 강조한 아리스토텔레스는 그의 비극 정의에서 사용한 카타르시스라는 개념을 역시 어느 일 방의 뜻으로만 사용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두 개념을 지양(止揚)시켜 고차적인 의미, 즉 미학적인 개념으로 사용 하였다고 보는 것이 온당할 것이다. - 다시 말하면 미학적 변 이(變移)를 위한 변증법적 종합을 이룬 개념이다(조요한, 예술철 화, p.265~270창조)》"는 것이다.

그러면 카타르시스적 공간이라는 부분은 어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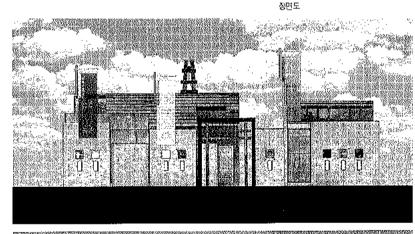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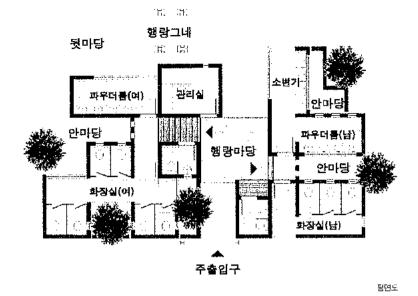
게 설명하여야 하며, 화장실 공간을 통하여 어떤 카타르시스를 말할 수 있으며, 그 공간은 미적인 쾌를 이룰 수 있는 것인가?

카타르시스적 공간

신들의 방으로 가득찬 전통건축의 카타르시스적 공간

건축 공간을 물질로서 구획된 어떤 단위 영역 만으로 그 공간이 규정된다고 보아서는 안 될 것이다. 궁극적 으로 공간은 그 속성이 갖는 정신적인 이테이를 보아야 한다. 공간을 물리적인 용도만으로 한정 짖는 것이 아니라 공간 자 체가 소유한 그 정신을 꿰뚫어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보통은 공간이 갖는 규정성의 한정된 공간만을 이야기하기 쉬우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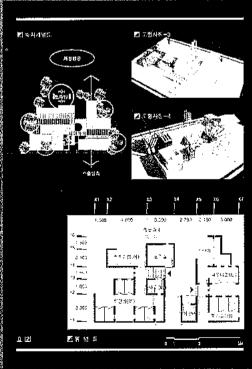
그렇지가 않기 때문이다. 노자는 유형적 유보다는 공허한 무의 효능이 크다는 것을 주장하였다. 그러하기 때문에 동양의음악이나 그림이 훨씬 심오한 것이다. 도덕경 제1장 체도(體道)에서는 '무와 유는 한 근원에서 나온 것이고 오직 이름만이 다르다. 이들 둘은 다같이 유현(幽玄)하다.' 고 하여 무용(無用) 공간 개념의 예술정신을 잘 나타내 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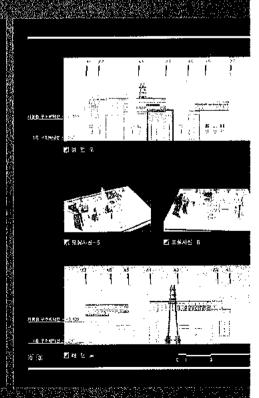
한국 전통건축에서 보면 관념적인 공간의 알 레고리가 많다는 사실에 대해서 놀라울 지경이다. 반드시 간 (間)으로 구획되는 방의 구조는 사실상 신들의 존재에 대한 우리조상의 배려이었을 것이다. 우리의 주거건축 속에는 가택 신앙으로서 여

러 신이 존재하였으며, 각각의 영역에는 그 해당 공간에 알맞은 신이 살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 예를 살펴보면 즉 집안의 여러 산들 가운데에서 최고의 산으로서 가신(家臣)들을 통솔하는 성주신이 있었는데, 집의 건물을 수호하며 가내의 평안과 부귀를 관장하는 가옥신이었다. 또 다른 신은 부엌신인데, 부엌에는 부엌신인왕(王)신이 있어서 정화수(井華水, 조왕 보시기)를 떠놓고 비손하였다. 이외에도 측간을 지키는 측간신(일명 뒷간귀신, 변소각시)등 조상선, 터주신, 칠성신, 우물신, 업신, 문신, 철룡신 등이 있었다. 이렇듯이 각 공간(방)은 신(神)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복덕을 주관하는 신들에게무사 기원의 소원을 빌었다. 이것은 건축가의 손에 의해 만들어지는 공간보다도 먼저 존재한 공간(신들의 방)일 수도 있다. 또한 정신적인 방으로서 확실한 우리만의 공간색채 표상이며, 그 건축들은 카타르시스적 공간이 되었음이 분명하다.

특히 마당은 채가 만들어진 후에 저절로 생겨난 바로 카타르시스적인 공간의 대표적인 표상이며, 무용(無用) 공간이다. 한옥의 경우를 살펴보면 집 전체가 이미 성주신에 의해 포위 당해 버리고 말았던 것이 아닌가 그러하다면 외부공간인 미당공간은 당연히 카타르시스적이다. 이곳은 버람소리가 지나가고, 밤하늘 수많은 별이 떨어지는 별소리







가 하늘에서 내리고, 문풍지의 떨림, 스산한 비소리, 숲의 벌레소리, 풍경소리, 발자국소리 등을 담고 있다. 이러한 소리 풍경이 전개되는 그곳, 바로 그곳이 감정의 정화를 수용하는 카타르시스적 공간인 마당이며 마당소리가 존재하는 곳이다.

마당의 카타르시스

화장실 앞에 마당은 왜 존재하는가?

항궁화장실은 마당을 가지고 있다. 마당이 있어야 하는 이유는 행궁이 정조시대의 건축이기 때문이 아니고 한옥이 안마당을 갖고 있어서도 아니다. 마당은 카타르시스를 촉발시키면서 미학적 개념이 갖는 최고의 공간이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최상의 마당이 잊혀져서는 안되며 지금 이시대의 건축에 대단히 필요한 설계 개념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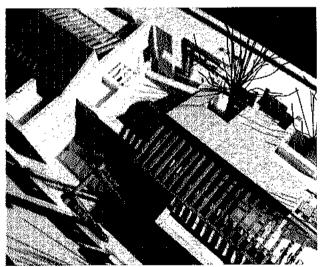
이 확장실 대지의 입지 조건은 복원한 행궁의 정면 왼편에 위치한다. 그 확장실 진입부 앞의 도로부분이 바깥 마당이 되어 자리하고 문(홍살문)으로 들어오면 (전통건축에 서 처럼 행랑채의 앞에 위치한) 행랑마당이 되는 매개공간이 위치하고 있다. 이 곳에서 남녀의 출입이 각각 분산되도록 하였 다. 남녀의 확장실내에는 각각 안마당이 있다. 이 작은 마당에 나무를 심는다. 그리고 화장실에서 마당이 보이도록 하였다. 이 안마당이 바로 카타르시스적 공간의 요체가 되는 장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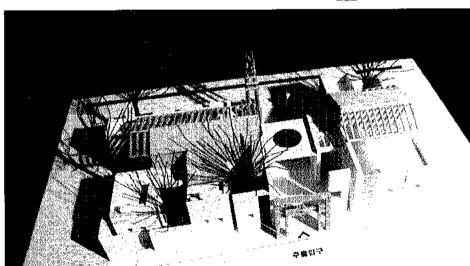
특히 남자화장실의 일정부분의 전면부는 바닥에서부터 천정까지 바깥을 내다 볼 수 있도록 투명유리 창으로 처리하였다. 어릴적 깜깜한 밤에 길가에서 볼일을 보는 기분을 느끼게 하기 위함이며, 일을 보는 동안 상쾌한 바람이라도 불어오면 정신적 쾌의 상태에 다다르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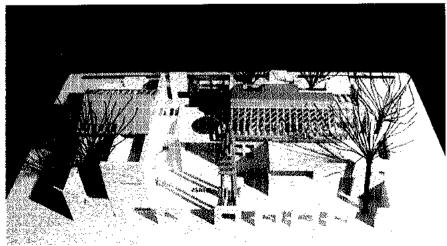
화장실 공간이 갖는 내용 가운데서 중요한 부분의 하나는 쾌변에서 오는 순기능으로서의 카타르시스의 정화 개념일 것이다. 이러한 요소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회장실은 마당을 항해 열려져 있어야 한다. "베르사이유 궁전에변소가 하나도 없었다는 유명한 일화의 굴절된 문화형태(키타르시스란 무엇인가, 마광수, p.28)"의 모순은 우리의 전통건축과는 엄청난 거리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화장실 공간이 갖는 개념은 생리적인 것은 물론이지만 정신적인 부분까지도 모두 포함해야 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카타르시스이며, 그 공간에 고유한 쾌를 합당하도록 구성하게 하기 위한 마당공간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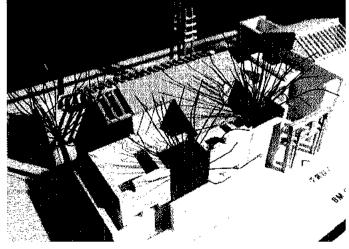
한옥의 뒷마당을 보자. 한국 여인들의 감정 정화의 공간이다. 그곳은 한국적 카타르시스 공간으로서, 소 원을 비는 곳이며 순화의 장소이고, 멱을 감는 곳이며 욕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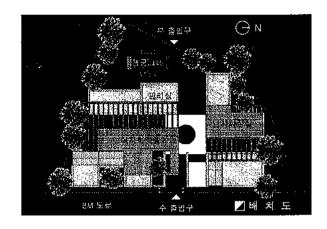
모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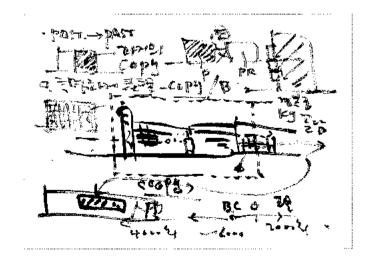
두어 얼어붙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건축의 기 쁨이며 특히 마당은 한국건축공간 이데아의 표상으로서 정 신적인 미 자체이기 때문이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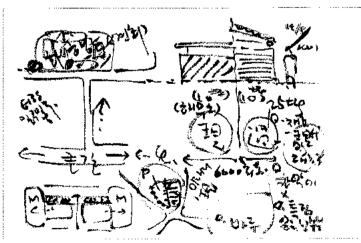
하는 장소이고, 스트레스를 푸는 곳이었다. 이 뒷마당은 카타 르시스 그 자체였다. 결국 순화 다음에 오는 문제는 기쁨을 동반한다는 것이다. 한옥의 뒤편은 특히 여성의 영역이어서 대부분의 한국 여성들이 이 카타르시스적 공간을 통하여 정 화의 기쁨을 맛보았을 것이다.

마당은 크지않다. 어쩌면 굉장히 작은 공간이 다. 작다는 것은 전통건축에서 보면 건축의 정신이다. 또한 마당은 비어있다. 그리고 무용공간이다. 서양 건축에서 본격 적으로 새로운 인식의 문제로 공간을 이야기 한 것은 불과 얼 마 되지 않은 리글(1901년) 이후 부터이다. 그들은 건축의 공간을 말하기 보다는 건축의 입면, 비례를 더 많이 이야기 하였다. 서양건축에는 공간이 없었다. 한국건축은 카타르시 스적 공간을 말해야 한다. 이것은 전통건축이라는 톨속에 가

■ 건축개요

건축명칭	화성행궁 그네 화장실
대지위치	수원시 팔달구 남창동 36-11 외3필지
지역지구	일반주거지역
주요용도	제1종 근린생활시설(공중화장실)
건축면적	85,50n²
연 면 적	85,50nf
최고높이	5.40m
규 모	지상4층
구 조	철근 콘크리 트조
외부마감	노출콘크리트, T=12강화유리
내부마감	내장타일미감
설계참여	박상수, 나동진, 김용식
구 조	구조기술사 최근철
면적개요	남자화장실 : 39.60㎡
	여자화장실 : 38.97㎡
	관 리 실: 6,93㎡





삶의 기치와 느림의 발견

Finding Life's Value and Its Leisurely Pace

김희곤 / 홍간 건축사사무소 by Kim Hee-Gon

기다림, 느림은 삶의 보석

인간은 누구나 자연 속에서 자연의 일부로 살아가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과거의 농경사회에서 오늘날 정보화 미디어 사회로 바뀌었다는 치더라도 자연의 질서 속에 인간이 살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렇다면 자연은 우리 인간에게 무엇을 주고 가르쳐 주는 것일까? 아마 그 중심은 자연의 질서일 것이다. 밤낮이 있고 사계절이 있고 그 질서 속에 인간이 함께 사는 것이다. 인간이 일하고 쉬고 밤낮이 있고 사계절이 있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각각의 때가 있음을 가르쳐 준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은 사람들에게 언제 씨를 뿌리고 언제 수확을 해야 하는가를 알려준다. 아무리 정보화 사회가 되어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작물을 재배한다고 하더라도 인간은 여전히 자연의 질서를 거스르지 못하고 있 다. 미미하게 자연의 질서를 왜곡하는 정도이다. 인간은 자연의 질서에 도전해오면서 기다림을 조절하고 있지만 아직도 근본질서를 조절한 적은 없다. 이 질서 속에서 우리 인간은 기다림의 철학을 배운다. 가을에 수확하고 나면 겨울에는 휴 식하고 봄을 준비하는 기다림과 휴식의 느림이 있다.

인간의 본성은 창조주의 규칙을 흔들고 깨뜨리고 싶어하는지 모른다. 오늘날 생명공학 유전자 공학 등 인 간은 많은 분야에서 자연의 질서를 유린하고 인간의 의지를 시험하고 있는 중이다. 차세대 경제가치의 척도는 생명공학 유전자공학이라고 확신하고 있는 것 같다. 그 중심에는 인간의 궁극적인 욕심인 생명을 연장하고 싶은 욕망이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 생명의 종교적인 의미는 하느님이 창조하신 것이고, 자연적인 해석은 우주의 질서이다. 태어나고 자라고 죽 고 또다시 태어나는 것이 생명의 신비이다. 인간은 태초에 이담과 이보가 무화과 열매를 따먹고 난 이후로 끊임없이 자연 을 도전과 순용의 대상으로 삼아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인간의 욕심의 끝은 항상 인간이 자연의 최고의 위치를 점유하려 했을 뿐만 아니라 신의 권능에 도전하는 생명의 기원을 인간의 손으로 조작하려 하고 있다. 자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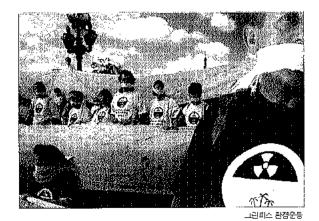




밀양 백중놀이

의 섭리에 도전해온 과정이 인간의 역사라고 할 수 있다. 그 기저에는 인간의 욕심과 욕심의 정체인 돈이 결부되어있는 것이다. 얼마 전 우리정부도 차세대의 주력산업분야를 생명 공학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인간의 욕심이 어디까지 갈 것 인지 어떻게 마무리가 될 것인지 지금으로서는 속단하기 어 려움 것 같지만 적어도 자연의 질서를 인간이 깨뜨렸을 때 자연의 일부인 인간은 홀로 자유스러울 수 있을지가 최대의 의문이다. 그 작은 실례가 지구 환경문제이다. 그린피스나 각종 환경단체의 환경운동이 바로 그 대안으로 이야기 할 수 있는 것이다. 결국 인간이 자연의 일부인 이상 자연과의 공존을 깨뜨리고는 인간도 살 수 없다는 결론에 귀착된다. 적어도 현 시점에서 볼 때는 확고 부동한 사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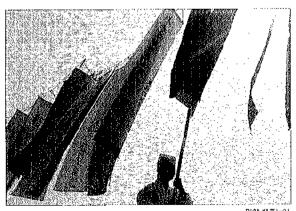
이 논란은 잠시 접어두고 인간이 자연의 일 부분이라면 여기에는 적어도 같이 살아가기 위한 지혜가 필 요한 것이다. 그 지혜란 다름이 아닌 같이 살아가기 위한 위 계나 질서가 필요한 것이다. 동물의 먹이사슬의 맨 위쪽에 있는 맹수는 최소한의 생존을 위한 사냥만을 하는 것이다. 그 힘을 무작위로 행사하는 순간 먹이사슬의 균형이 깨어져 서 지존 또한 생존이 불가능하다. 오늘날 인간사회에서 부 르짖는 다양화의 모습 또한 알고 보면 자연의 모습이다. 자 연의 모습은 다양하다. 우리에게 해가 되고 우리에게 이가 되는 모습으로 양분할 수 없다. 서로가 서로에게 악영향이 든 좋은 관계이든 그것은 다 이유가 있고 그것 자체가 존재 의 이유이다. 그렇다면 자연 속에서는 이른바 질서 즉 공존 의 법칙이 있다. 그 바탕에는 서로와 서로가 조화되기 위한 기다림 즉 시간의 조화가 필요한 것이다. 오늘날 인간은 이 시간을 좁히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제철과 관계없는 채 소와 과일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기도 하고 과일에서 인간 이 먹을 수 있는 부분만 더 크게 만들기도 한다. 즉 질서를 깨뜨리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사회에서 "튀자"는 말의 의미 를 살펴보면 우리사회의 의식의 저변을 적나라하게 알 수 있는 역 사회적인 관계를 잘 알 수 있는 단면이다. 질서와



조화에 반하는 말이다.

오늘날 세계화의 중심은 이 시간을 줄이려 는 인간의 각고의 노력이 깔려있다. 어디까지 좁히고 줄여 아되는지 정말 어렵다. 현실적으로 이 속도전 즉 시간을 줄 이는 것은 경제 즉 돈과 직결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멈출 만한 명분을 찾기가 그리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우리가 그렇게도 닮고 싶어하는 미국에서조차 순수학문분야는 그 설자리를 잃고 있다고 한다. 그렇다고 순수학문은 정말 필 요 없는가 그렇지가 않다. 순수학문분야는 모든 분야의 기 초이기 때문에 당장 필요 없다고 버리면 결국 어떻게 될까? 미국과 일본에서 적어도 순수미술 순수예술 순수학문 분야 가 밀려나는 것은 현실사회의 단적인 표현이다. 현재의 속 도전속에서는 기다림의 시간조차 아까울지 모른다. 그러나 그 기다림은 진정 앞으로 가기 위한 보증수표이다. 우리는 시 구절 속에서나 만나는 행간의 글귀 "바쁜 시간 속에서도 가끔은 하늘을 바라보자"마주치곤 한다. 공해로 찌들어있 는 하늘이라도 쳐다보자고 하는 까닭은 아주 단순한 질문을 하는 것이다. 쉬지 않고 뛰어가는 인생살이 속에서 왜 사는 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지는 의미로 해석해도 무방 할 것이다. 적어도 지금 시점에서 인간은 죽어가는 문제를 정복하지도 못했고, 정복의 문제도 그리 쉬운 일이 아니고, 정복된다고 해도 그 결과에 대해서 낙관할 수도 없다. 일단 그 문제는 뒤로하고 삶의 가치가 돈의 가치로 치닫는 과정 을 일단 중지시킬 수는 없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 삶의 근본이치를 생각 하자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다. 인간은 누구나 죽는다. 죽 음 앞에서 초연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조선시대 유학자 퇴계 이황 선생은 죽음을 가리켜 "삶의 완성이다"라 고 했다. 즉 죽음을 맞이하면서 '가치 있는 죽음은 평생을 통하여 스스로 닦아온 수양의 결과이다"라고 했다. 자연의 섭리에서 보면 죽음은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의미한다. 죽 음은 또 다른 시작을 의미한다. 이것은 자연의 질서이자 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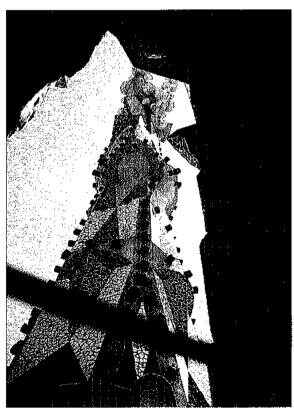


밀양 백중놀이

조주의 질서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 서 태어나서 죽어가는 전과정에 대한 자연의 순리를 받아들 여야만 한다. 모든 종교적 신앙의 상당부분도 삶과 죽음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면 역으로 인간은 본성적으로 죽음에 대해서 일상의 일로 행하면서도 진정하게 받아들이 지 못하고 있다는 역설이 된다. 죽음을 직시하게 되면 그 속 에 여유와 느림의 가치를 발견하게 된다. 오늘날 모든 사람 에게 느림과 여유는 돈의 가치 경제적 부를 가진 자 만이 가지는 특권으로 알고 있다. 돈의 속성은 점점 더 인간의 삶 을 끝없이 질주하게 만든다. 돈의 가치는 상대적일 뿐만 아 니라 인간의 본성 상 만족하기 힘든 마법의 상자이다. 조금 가진 자는 더 가지려고 노력하고 어디가 끝인지 알 수가 없 다. 그렇다면 그 해답은 어디에 있을까? 인간 삶의 근원을 보는 것부터가 그 해답의 시작이라고 생각된다. 전기의 발 명으로 밤 시간에도 낮 시간처럼 일할 수 있는 혁명을 가져 왔다. 그러나 인간이 일을 많이 하는 것이 진정 삶의 목적일 까? 아니면 고도의 생산성 가치로 치닫는 것이 목적일까? 우리는 누구나 기계가 아니라 따뜻한 기슴을 가지기를 원하 고 있다. 이것은 인간이 본질을 구원하고 있다는 실종이다.

젊음과 생산성은 삶의 구원일까?

이른바 오늘날 정보화 시회에서 생산을 위



성당 "사그랴다 파밀리아 성당" 철탑



발계이ᄎ의 "생각의 속도

한 변화, 사고의 변 화라는 기치이래 끊 임없이 새로움 젊음 을 강요받고 있으며 그것이 생산성이라 는 경제적 가치로만 치닫고 있다. 인간의 삶이 생산적 효율의 측면에서 점점 젊은 이의 육체와 정신과 가치를 수반한 시간 만이 강조되면 나머

지 시간(노년)은 어떻게 되는가? 결국은 젊은이가 노인의 시간을 보상하기 위해서 더 많은 작업량을 할당받든지 아니 면 추방되어져야 한다. 그러나 문제는 인간은 기계가 아니 기 때문에 무한정 효율적 생산성만을 강요하기는 힘들다. 산업사회 정보화사회의 생산성과 효율성이 인간의 진정한 삶의 행복을 담보하는 해답이라는 부분에는 부정적인 견해 가 우세하다. 자연섭리의 한 축인 인간만이 자연계에서 유 아독존 할 수는 없다. 자연에서 나와서 자연으로 돌아가는 자연의 접리를 거부할 수 없다. 지금까지 인간이 경험한 바 로는 자연의 섭리를 거부하는 순간 인간은 더 큰 상처를 대 가로 받아 왔음을 알고 있다.

오늘날 우리사회가 가지고 있는 세대간의 벽, 명퇴, 퇴출 이 모든 상황이 새로운 사회 예컨대 속도전 의 사회로 진입했음을 대변하고 있다. 당장은 밀려나고 잘 려서 개인의 삶을 단절시키고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인간 삶의 아픈 그림자로 남아있는 모습이다. 비록 상처뿐인 현 실의 아픈 그림자 속에서 우리는 내일의 여유를 보아야한 다. 사람은 누구나 서로 다르게 태어나고 서로 다른 부분을 가지고 이 세상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스페셜리 스트만 되기를 바란다면 도태되고 제외되는 사람은 또 어디 로 가는가? 왜 우리는 우리의 사랑스런 아이에게 맞는 적성 을 찾아주는 일보다 뿌리깊은 유교적 관습에 따라 전문분야 에서 화이트칼라만 되기를 원한다면 정상 즉 소수의 전문가 반열에 오르지 못하는 사람은 또 어디로 가야하는가? 물론 이상대로 모든 일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 러나 지나친 과열과 소모전만은 막아야한다. 우리사회에서 교육은 대학을 가기 위한 교육으로 머물고 있는데 그 문제 의 심각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부보님들은 엄청난 천문학적 숫자의 돈을 과외수업에 쏟아 붙고 있다. 부모는 자식을 학교에 보내는 순간 제도의 노예가 되어버린 다. 대명천지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새로운 교육 노예제도의

덫에서 어느 누구도 자유스럽지가 못하다. 누구나 똑같이 느끼면서도 달리는 기차에 몸을 싣고 정거장에 도착할 때까. 지는 내릴 수 없다. 아니 내리지 않는다는 표현이 더 적합하 다. 인조인간이 되기를 자청하는 것이다. 종교적인 차원에 서 보면 이것이 지옥인 것 같다. 다들 머리는 있는데 가슴은 없다. 이것이 인조인간인 것이다. 피도 눈물도 없다. 삶의 여유와 낭만은 휴지조각이 되고 만다. 더 심각한 것은 삶의 지혜와 낭만과 멋을 책으로만 해결하려 하고 있다는데 더 큰 문제가 있다.

여유와 느림과 비어있음을 인조인간에게 며 리로 이해하길 원하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다들 느끼 는데 왜 안될까? 왜 우리는 비교해서 즐거움과 슬픔을 느껴 opt 하는가? 필자가 스페인의 가정에서 생활하면서 직면 한 것 중에서 충격적인 것은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면서부터 이다. 개인의 삶을 즐기면서 사는 모습이 너무 신기했다. 작 은 시간과 공간 속에서도 삶을 여유 있게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나 감동적이었다. 더욱 더 놀라운 것은 경제적 수준이 그리 높지 않은데도 재미있게 살아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삶의 내부를 들여다보면 뭐 그리 대단한 것도 없다.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작은 여유를 감사하고 즐기고 그 여 유를 남에게 나눠준다는 것이다. 동시에 그들이 가진 여유 는 남이 침해하는 것을 원하지도 않는다. 그렇다고 남의 삶 을 복제 하려하거나 안달하지 않는다. 주어진 인생이 하느 님의 선물이며, 그 삶을 적극적으로 자기 것으로 주인정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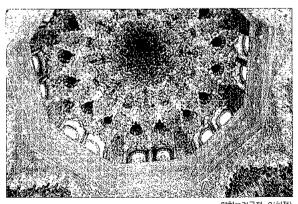
알람보라궁전 -1(실외정원)

을 가지고 살아간다. 각자가 주관과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 문에 상대방에 대해서도 서로 존중할 수밖에 없다. 많은 것 을 가지고도 안달하며 더 가지려는 순간 시간의 노예가 되 고 여유와 느림은 발붙일 틈이 없다.

종교적 의미의 중심단어는 바로 "사랑"이라 고 했을 때 아무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사랑은 말 그대 로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것이지 머리로 하는 것은 아니다. 사랑은 날의 가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가슴에서 나와야하는 것이다. 이 가슴은 진정 자연의 일부분이기 때 문에 자연과 가장 닮아있을 때만이 가장 따뜻하다. 누구나 이는 바와 같이 가슴은 거짓말을 할 수 없다. 그렇다면 그 본질은 각자의 가슴을 따뜻하게 간직하는 일부터 해야한다.



알합보라궁전 (2(설대점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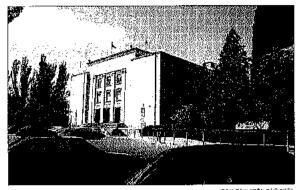


사랑은 우선 자기자신을 진정 사랑하는 것이 제일 기본이 다.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고 당당하며 진정으로 자신을 사 랑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남을 사랑하고 더 나이가 사회를 사랑하는 출발점이다. 함께 어우러져 사는 사회의 기본은 각개인의 역할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역설이 된다. 각자가 조금씩 여유를 가지려고 노력하는 순간 어느새 사회전체가 여유로 넘치는 것이다.

열려진 시회와 가슴을 열게 하는 공간

스페인의 지식인들이 얘기할 때 지금처럼 유럽연합이라는 경제규모가 생기고 정보의 공유로 인해 국 경이 상대적으로 엷어지면서 젊은이들은 상대적으로 친절 하지 않다는 말을 한다. 이것은 다시 말해 여유가 줄어들고 있다는 말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와 비교했을 때 우 려할 수준이 아님에도 이들은 이렇게 말한다. 상대적으로 얼마나 스스로를 사랑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단편이다. 왜 사느냐라는 질문이 아들에게는 의미 없는 것이지만 이들 은 한결같이 인생을 즐기기 위해 산다고 한다. 너무나 당연 한 얘기이고 기본이지만 우리에게 얼마나 낯설고 이국적인 가? 우리는 흔히 "개같이 일해서 정승같이 산다" 라는 속담 구절은 얼마나 어처구니없는 말인가? 하루하루 사는 인생 이 엮어져서 한사람의 인생이 되는 것이다. 그렇다고 누구 나 어려움과 고난 없이 어떤 목적을 이룬다는 말은 아니다. 어려움과 고난조차도 가능한 한 즐겁게 헤쳐 나가는 저혜가 필요한 것이다. 여기에는 철학이 있어야 한다. 즉 내가 선택 하든 선택을 할 수밖에 없든 그 주인이 자기자신이 되어야 하고 그 일의 중심 또한 자신이다. 다시 말해서 일을 하는 자세는 굉장히 중요하다.

한때 일본의 동경도청의 국장까지 지내던 분이 부친이 돌아가시자 바로 관직을 그만두고 부친이 하던 국수가게를 받아서 하고 있다는 기사가 우리들에게는 낯설 게 들리는 것이다. 여기서 일본사회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일류대가 상존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이 인생의 삶의 중요성을 어떻게 판단하는가의 단적인 면을 알 수 있 다. 그 사람이 국수가게를 할 때 내가 하기 싫은 하찮은 것 이라고 생각할까?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 국수 집에 또 다 른 새로운 인생의 그림을 그릴 것이다. 단순한 국수 집이 아 니라 선대부터 내려오는 사랑과 믿음을 이어서 또 다른 사 랑과 믿음으로 이어져 갈 것이다. 거기에는 한철만 잘해서 직업을 바꾼다든지 돈만 벌어서 정승처럼 잘살겠다는 한 시 성이 아니라 과정이 녹아있는 삶의 현실이 이어지는 것이 다. 또 다른 예는 스페인에서 어느 날 길가의 예쁜 카페를



마드리트대학 건축대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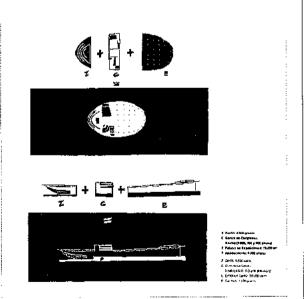
들어갔는데 말숙한 아가씨가 있어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 누는 중에 자연스럽게 직업과 전공이야기가 나왔다. 놀랍게 도 그 이가씨는 마드리드대학 화학과를 나온 재원이었다. 직장문제가 여의치 않아서 지금은 카페테리아에서 일하고 있다고 한다. 참고로 스페인만 해도 직장이 만만하게 구해 지는 것이 아니고 상당히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 을 졸업하고 대디수의 사람들은 생활비를 스스로 벌어서 살 아간다. 뿐만 아니라 본인의 직업과 다른 일을 일시적으로 하더라도 그 일을 즐겁게 한다. 조금도 위축되거나 부끄러 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 누구의 것도 아닌 본인 의 인생이기 때문이다.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즐기지 못하는 사람 이 이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이라고 스스럼없이 말한 다. 즐거움이란 자신을 발견하고 자신을 사랑할 때만이 나 오는 것이다. 우리는 흔히 몇 년만 이것을 하고 돈을 벌어 서 이것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곤 한다. 본인의 이상은 이것이 아닌데 할 수 없어서 잠시 한다는 이야기가 된다. 그 말의 본말은 나는 이것을 할 사람이 아닌데 할 수 없어 잠시 한다는 얘기가 된다. 우선 자신을 사랑하지도 않고 하 는 일에 자부심도 없는 상태에서 하는 그 일이 잘 될 리 만 무하다. 전술한 일본의 국장과 스페인의 카페테리아의 종 업원과 우리의 일반적인 상황이 너무나 대조적이다. 언제 부터인가 우리사회에서 과정이 사라지고 결과만 남았다. 결과란 항상 시간적으로 찰나이다. 결과를 얻기 위해서 긴 시간의 노력과 투자와 인내가 필요하다. 그런데 그 긴 시간 은 지워버리고 영광(결과)만을 위한다면 과정의 시간은 누 구의 시간이고 누구의 인생인가? 자신 없어하고 부끄러워 하는 사이에 자신도 모르게 자신을 사랑할 수 없으며 여유 를 가질 수가 없다. 인생을 저당 잡히고 나중에 찾으려는 것과 마찬가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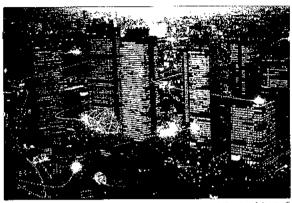
건축 또한 그 사회의 거울이다. 건축은 살아 가는 인간의 그릇이기 때문이다. 우리사회는 모든 것이 급

하고 모든 사람들이 무엇에 쫓기듯 살아가고 있다. 다시 말 해서 우리의 오래된 가치인 머무름, 여유, 느림이 지워진지 오래다. 다들 콩 복듯이 살아간다. 시루 속의 콩처럼 다같이 정신없이 돌아가는 것이다. 건축가의 역할은 더 이상 사업 성 앞에서는 맥을 못 춘다. 여기서 사업성이란 네델란드의 세계적인 건축가 램쿨하스가 말하는 건축가가 더 이상 디자 인 영역에만 머물지 말고 기획 개발의 단계에 참여해서 건 축가의 역할을 스스로 증대해야 한다는 말과 자연스럽게 연 결되어진다. 상기의 사업성은 단순히 돈의 가치로 모든 것 을 재단하면서 진정한 삶의 가치를 발견하는 고도의 전문가 집단의 기획 및 연구없이 순간의 황금가치로 전략하는 부분 에 대한 행위의 설명이다. 현대의 건축이 찰라적인 일회성 인스턴트적인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있음을 부정할 수 없 다. 결과적으로 느림과 여유가 생략되고 그사이에 상업적인 이윤의 가치가 대신하게 되는 것이다. 당연히 현재의 우리 의 삶의 공간은 개인주의의 국치를 달리고 있다. 공동생활 을 위한 장소와 공간은 그야말로 전시용이든지 공존의 씨가 말라버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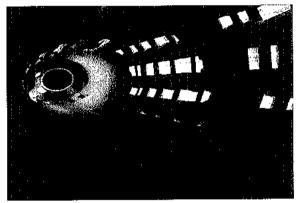
공동주택 아파트의 경우 계단과 엘리베이터 실은 그 규모나 형태면에서 그대로인데 아파트 내부는 첨단 을 달린다. 그래야 아파트가 잘 팔린다고 한다. 너무나 바쁘 기 때문에 공동생활의 바탕인 즐거운 만남을 위한 장치인 공동의 공간, 함께 머무르는 공간이 포함하는 느림, 여유의 공간은 애시당초 먼 나라 이야기이다. 가능하면 서로가 서 로에게 기슴을 열게 해서 사회의 가장 기본단위인 주거공간 이 열릴 수 있어야만 우리사회는 열려진 사회가 되는 것이 다. 다들 엘리베이터 앞에서 계기판만 바라보다 좁은 엘리 베이터 속에서 간단한 목례만 하고 자기 집으로 빨려 들어



- 웹클라스의: "Cangrexpo"



이루도요의 "방의 도시"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 답의 내부

가면 그만이다. 바닥이 나무이고 창호가 어떻고 화장실에 비대가 있고 없고 주방이 어떻고 이것 즉 개인의 욕심에만 관심이 있다.

서구에서는 옛날부터 공동의 생활공간에 관심을 가지고 그 삶이 건축 속에 고스란히 녹아들고 있다. 가까운 일본에서도 십 수년 전부터 우리와 같은 아파트는 짓지 않고 있다. 공동의 생활이 허물어진 사회 그 사회의 거울인 식막한 개인만을 위한 건축공간 아파트문화는 우리를 어디로 데려갈 것인가? 공동사회의 머무름의 여유와 느림을지워버리고 사적인 욕심의 단편인 아파트 상자 속으로 우리의 정신을 집어넣고 재단하는 사이에 우리는 어느새 인조인간이 되어버리는 것을 모를지도 모른다. 우리의 지혜를 모아서 아파트 상자 속에 공동의 머무름의 공간을 만들어야한다. 이것은 우리가 가끔씩 하늘을 바라보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인간과 기계가 구분되는 이유이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을 먼저 해야만 한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도 동일한 질문을 해야한다. ᇦ

박물관의 개념적 변화와 건축적 대응(1)

Conceptual Changes in Museums and Architectural Response

김용승 / 한양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by Kim Yong-Seuna

- 1. 대공간(Major Space)의 역활변화
- 2. 박물관 프로그램의 다양화와 공공 : 서비스공간
- 3. 전시공간구성
- 4. 최근의 박물과건축 사례

90년대 이후 국내에는 국립중앙박물관을 포함하여 많은 박물관 관련시설이 건립되었거나 건립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지역적 여건과 특수성에 부합하는 미술관, 전시관, 홍보관 등 다양한 전시 관련시설들이 요구될 것으로 예상된다. 양적인 면에서 보더라도, 아직 선진외국의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현재 약 400여개(등록, 미등록 포함)의 박물관이 전국적으 로 개설되어 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가 다양한 사회문회적 욕구를 수용해야 하는 시기에 이르렀으며, 동시에 단순히 보 여주기만 하는 소극적 자세의 박물관으로부터 보다 다양하고 의미 있는 경험을 제공해주는 적극적 자세의 공공박물관 (Public Museum)으로의 인식전환이 요구되는 시점에 이르렀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현대적 개념의 박물관은 시대적 변화에 따라 그 사회적 역할이 달라지고 있다. 즉 과거 고전적 의미의 박물관이 수집과 보존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서 시실 상 일반대중과의 관계는 그다지 중요하게 고려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반면에 오늘날의 박물관은 이러한 기본적인 기능과 함께 전시와 문화적 교육에 보다 중점이 주어지는 방향으로 전환되는 진정한 의미의 공공문화시설로서의 역할어.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이 글은 박물관건축의 세계적 성공사례들의 특성을 파악하고 분석하여 국내의 박물관간축의 발전 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필자주)

대공간(Major Space)의 역할변화

1. 공공박불관 (Public Museum)

1993년에 우리는 중국계 미국건축가인 페이(I.M.Pei)가 프랑스 파리의 심장인 루브르박물관의 한가운 데에 피라미드 형태의 건축물을 완공한 사실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다. 건축가가 중국계라는 사실도 놀라웠고, 프랑스 인의 자랑인 루브르박물관의 중앙에 무언가를 건립한다는 사실도 그랬다. 사실 이 프로젝트는 1989년 계획이 시작되면 서부터 프랑스의 언론에서도 매우 시끄럽게 논란의 대상이 되어왔던 것이다. 결과는 다행스럽게도 건축적으로 매우 만족 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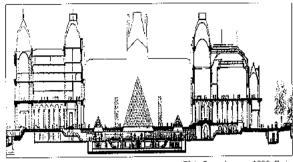


그림 1, Grand Louvre, 1993, Par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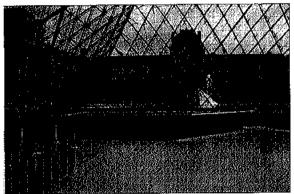


그림 2. 그랜드 루브르의 내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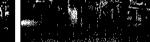


그림 3. 그래도 루브르의 중앙홀과 전시공간진입

그림 4, 그랜드 루브르의 휴세코너

이러한 건축적 성공과 더불어 박물관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 증축공사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피라미드형태의 구조물 아래에 계획된 기능들은 대부 분 관람객을 위하여 마련되었다는 점이다. 첫째 넓은 중앙 공간 주변으로 강당, 매표소, 안내소, 서점, 기념품 판매점, 다양한 수준의 식당 등의 설치로 관람객이 전시공간에 진입 하기 전에 다양한 정보를 사전에 얻고, 기념품을 사고, 휴식 을 취하는 등의 여유를 갖게 된 것이다. 둘째로 이 중심공간 에서부터 관람객은 세 방향의 동선가운데 하나를 선택하여 전시공간에 진입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은 지나치게 거대 한 전시공간을 세 영역으로 나누어 관람객의 진입을 분산시 킬 수 있고, 관람객들 또한 제한된 시간에 관람하고 싶은 영 역을 선택하여 진입할 수 있는 편리함을 얻은 것이다. 마지 막으로 주출입구에서의 진입이 매우 수월해졌다는 점이다. 이전에는 보통 주말에는 3~4시간 줄을 서 있어야 겨우 입 장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이 피라미드를 통하여 짧은 시간

내에 입장할 수 있게 되었다. 즉 이 증축공사는 전적으로 관 람객을 위한 편의제공에 있었으며, 이러한 사실은 그렇지 않아도 많은 방문객을 보장받을 수 있는 루브르박물관으로 서는 획기적인 사건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림 5. 대영박물관의 중정부분, 2000

실제로 우

리는 유럽의 많은 국립 또 는 시립규모의 박물관들이 이 당시에 증축 또는 개축 공사를 진행한 사실을 80 년대, 90년대의 건축잡지 를 통하여 목격하였다. 이 공사들의 대부분이 새로운 식당, 중앙홀 개조 등 관람 객의 편의제공차원의 사업 들이었던 것이다. 원래 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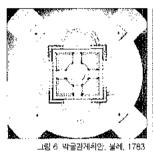
럽의 대규모 박물관들은 대부분 오래된 것들이라 전시공간 위주로 되어 있어서 관람객을 위한 편의시설은 거의 없었다. 가 80년대 들어서서야 관람객을 위한 시설들을 계획하기 시작한 것이다. 프랑스 국회가 1793년에 루브르박물관을 최초로 공공박물관(public museum)으로 공포한 이후 200여년 흐른 후의 현상이었다. 서류상의 공공박물관에서 진정한 의미에서의 공공박물관의 탄생에 약 200년이라는 시간이 걸린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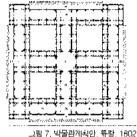
가장 최근의 사례로는 2000년에 노만 포스 터가 런던의 대영박물관(The British Museum)의 중앙에 위치한 국립도서관 자리에 관람객을 위한 공공서비스영역 <u> 용 계획인 사례를 들 수 있다. 이 중앙의 공간에는 고급레스</u> 토랑, 키페, 강의실, 기념품점, 안내데스크, 서점 등의 공공 서비스공간과 지하에는 교육공간이 배치되어 있다. 이러한 다양한 기능의 제공과 함께 오랜 기간에 걸쳐 이루어졌던 증축으로 인하여 복잡한 공간구성을 지니고 있는 대영박물 관 전체를 볼 때 중심적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는데 더 큰 의 의가 있다고 하겠다.

위의 두 사례에서 특히 눈에 띄는 점은 중앙 에 대공간(Major Space)을 계획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대공간에는 기능적으로는 공공서비스영역, 교육영역이 배 치되고, 공간적으로는 중심적 역할을 함으로써 방향감각을 위한 역할과 인상적인 공간감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대 공간의 특성이 오늘날의 공공박물관에서 필수적인 건축적 요소로 자리잡고 있다는 의미에서 이 글에서는 박물관건축 에서의 대공간을 중심으로 다루고자 한다.

2. 박물관 대공간 (Major Space)의 역사

박물관의 대공간은 로마 판테온의 형태에서 비롯된 로툰다(Rotunda)의 형태와 플로렌스의 우피찌 (Uffizzi)에서 이어지는 복도형태로 크게 두 방향으로 발전 되어왔다. 대공간의 발전을 이 두 형태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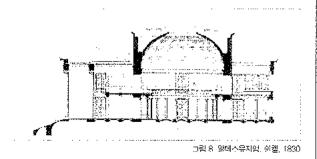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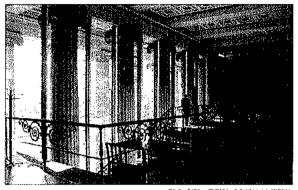


1) 로툰다형 대공간

바티칸박물관의 전시공간 가운데 피오 클레 멘티노(Pio-Clementino, 1773)를 보면 고대 로마의 판테 온이나 욕장 등의 공공시설에서 볼 수 있는 2층 높이의 원 형공간에 돔이 얹혀진 형태를 지니고 있다. 박물관에서의 이 공간형태는 두 가지 점에서 이후에 많은 영향을 미쳐왔 다. 첫째, 박물관에 들어서는 관람객에게 타공간보다 높은 공간. 천창으로 들어오는 자연광 등으로 인하여 강한 공간 적 인상을 제공한다는 점이다. 둘째로는 같은 이유로 해서 전체공간의 중심이 되는 역할을 함으로써 주변전시공간을 이용하는 관람객들에게 방향감각(orientation)의 요소로써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후 1783년 불레와 1802년 듀 랑에 의해 제안된 계획안들은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 운데에 로툰다형의 공간을 계획함으로써 위에서 설명한 공 간적 인상, 방향감각을 위한 장치로써 이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흐름은 쉰켈(Schinkel)의 알테스뮤 지엄(Altes Museum, 1830)에서 더욱 발전하여 실현되





그램 9, 알테스뮤지엄, 2층에서 본 계단실

고 있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로툰다와 이어지는 계단실 이 박물관 전면의 외부공간과 시각적으로 통합되어 로툰다 형 대공간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 럼 대공간과 외부공간의 시각적 통합은 이후 미스에 의해 더욱 발전되었으며, 오늘날의 박물관건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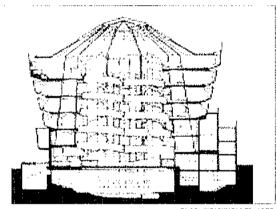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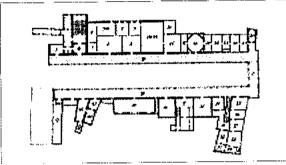


그림 10. 끝건하웨이술만, 1959

로툰다형 대공간은 근대에 돌어와서 대 전 환점을 맞게 된다. 뉴욕의 구겐하임미술관(프랭크 로이드 라이트, 1943-1959)은 아트리움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여 중앙의 대공간과 전시공간이 시각적, 공간적으로 관련을 맺 고 있다. 이러한 공간형태는 이후 반 고호 미술관을 비롯하 여 많은 박물관들에 응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구겐하임 에서는 로툰다형의 변형된 형태를 제안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공서비스성격의 기능들도 추가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발전을 보이고 있다. 즉 지금까지의 로툰다형 대공간 은 상징적 공간으로서만 존재하였는데, 이곳에서는 다양한 기능이 추가되면서 실질적인 중심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수 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아트리움의 대공간을 중심으로 주변에 주출입구, 레스토랑, 물품보관실, 서점 등이 배치되 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서 전시관람을 시작하기 전에 주출입구를 들어서면서 다양한 공간과 기능들을 경험하게

된 것이다. 공공박물관으로서의 개념이 서서히 등장하고 있 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하겠다. 또한 대공간에서의 입 체전시도 가능하여 전시공간과 대공간이 적극적으로 통합 되어 있음을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구겐하임의 아트리움은 대공간의 역할변화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2) 복도형 대공간



그립 11, Uffizi 미술관 (1581-60)

플로렌스에 있는 우피찌(Uffizi, 1581)는 사무실에서 미술관으로 개조된 것으로 복도공간을 통하여 각 전시실로 진입하게 된 공간구성을 하고 있다. 전시실로 진입 후에는 전시실간에도 연결이 되어있어 복도를 통하지 않고도 전시관람을 진행할 수도 있다. 즉 선택적인 관람이 가능한 것이다. 이 경우에 복도공간은 전체공간의 기준이 되고 있다. 즉 복도공간을 통하여 관람객은 전체를 파악할 수 있어서 전시공간을 따라 움직이다가 언제든지 복도공간 으로 되돌아올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박물관건축에서 선 택적 관람과 전체공간의 파악을 가능케 하고 있는 복도공간 의 도입은 그 이후 많은 영향을 미쳤으며, 복도형 대공간의 효시가 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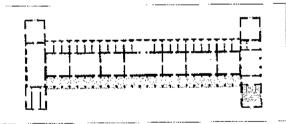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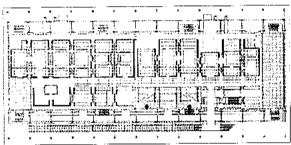


그림 12. 알테 피나코텍, 클렌채

우피찌의 복도형 공간은 이후 여러 형태로 발전된다. 클렌체(Klenze)의 알테 피나코텍(Alte-Pinakotheck, 1826-36, Munich)을 살펴보면, 하나의 프 로토타입이 되는 공간 구성으로 세 개의 평행으로 놓인 긴 열의 공간이 25개의 칸으로 나뉘어졌다. 세 열중 남쪽의 열은 복도의 성격을 가진 공간으로서 전시공간에 진입하기 전에 관람객들에게 전체 공간구조를 파악하게 해주고 있다. 이는 우피찌보다 발전된 형태로서 북측의 두 열의 전시공간 들을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며, 방향감각을 보조 해주는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

3. 오늘날의 대공간

한편 우피찌 -클렌체로 이어지는 복도형 대 공간은 오늘날에 와서 로툰다형 대공간과 유사한 모습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즉 복도의 형태를 지나고 있으 나 단수히 이동공간으로서의 역할에서 벗어나 다양한 기능 을 수행하는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이태리 디자이너인 가에 아울렌티(Gae.Aulenti)에 의해 본격적으로 시도되었다.



그랑 13. 국립현대미술관, 퐁피우센터



그림 14. 국립현대미술관, 복도형 대공간

파리 퐁피두센터의 맨 위층에 자리잡고 있 는 국립현대미술관(National Museum of Modern Art. 1985, Paris)의 경우를 보자, 우선 퐁피두센터의 거대한 외 부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여 전시층에 진입하면 좌우측으 로 전체를 관통하는 복도공간을 우선 경험하게 된다. 복도 의 폭은 상당히 넓고 복도의 양끝은 전창으로 되어 있어서 강한 자연광을 도입하고 있다. 관람객은 이 복도를 통하여 우선 전체공간을 파악할 수 있게 되고 방둘의 형태로 되어 있는 전시공간으로 진입하게 된다. 평면도와 사진에서 보듯 이 전시공간에서는 비교적 복잡한 동선을 제공하고 있으나 도시의 대로처럼 형성된 복도공간으로 인하여 관람객들은 원한다면 언제든지 쉽게 복도로 다시 나올 수 있는 공간구 조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이 복도공간에는 조각품이나 그 림들이 전시되어 있고, 휴식을 위한 벤치도 설치되어 있어 예전의 단순히 이동만을 위한 공간에서 탈피하여 다양한 기. 능을 수용하는 대공간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아울렌티는 이곳에서의 성공을 몇 년 후에 오르세이미술관 (Orsay Museum, 1986, Paris)에서 보 다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물론 기차역사라는 대공간을 미술관으로 개조하는 과정에서 나온 필연적인 해범이라고 할 수도 있으나 복도형 대공간의 변화를 읽을 수 있는 좋은 사례라 할 수 있겠다. 주출입구를 들어선 관람객은 우선 중 앙의 복도형 태공간을 내려다보면서 전체공간을 파악할 수 있다. 사진에서 보듯이 이 복도형 태공간에는 중앙에 조각 품들이 전시되어 있으며, 마치 본격적인 전시공간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 중앙복도공간의 양쪽에는 완만한 경사의 램프가 있어 순수한 이동통로로 이용되고 있다. 이 두 공간 사이에는 벤치들이 놓여있어 관람객들에게 휴식공간을 제 공하고 있다. 이처럼 오르세이의 복도형대공간은 종피두센 터의 미술관의 복도가 지니고 있는 특성을 더욱 확대하여 보여주고 있다. 실제로 이 복도공간은 복도형태라기보다는 아트리움처럼 구성되어 있어 이전까지 볼 수 있는 수평적 통합의 복도형과 수직적 통합의 로툰다형이 혼합되어 있는 형태로 발전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림 15, 오르세아마술관, 복모형 대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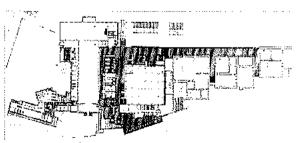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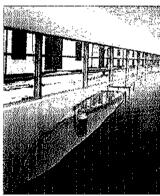


그림 16 현대미술관, Bafaut Moneo, 스톡출름

아울렌티의 국립현대미술관의 복도형대공 간은 스웨덴의 현대미술관(Modern Museum and Museum of architecture, Rafael Moneo, 1994-1997, Stockholm)에서 그 역할과 개념이 더욱 더 확장되 어 사용되고 있다. 주출입구를 들어서면 좌측의 장축방향으 로 전시공간들이 위치하고 있으며, 이 전시공간들이 쭉 뻗 어있는 복도공간에 의해서 통합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 복도공간은 전창으로 되어있어 외부공간과 시각적으로 열 려져 있어 복도의 시각적 개념은 더욱 넓게 사용되고 있다. 또한 필요시에는 전시기능도 수행하고 있다. 이와는 달리 주출입구에 들어서서 진행방향으로는 우선 시선축의 끝에 레스토랑이 명확하게 보이고 기타 서비스공간이 주변으로 펼쳐져 있으며, 또한 지하로 향하는 거대한 계단이 위치하 고 있어 교육공간으로 연결되고 있다. 즉 이 미술관에서는 주출입구를 들어서자마자 관람객에게 거대한 두 개의 축의 교차점에 서게 하여 전시공간으로 향하는 복도형 대공간과 서비스 및 교육영역으로 향하는 대공간이 시각적으로 통합 하게 하는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지금까지의 복도형 대공 간이 단일축으로 형성되어 전시공간과의 연계만을 꾀하고 있었는데 반하여 이 미술관에서는 또 하나의 축을 형성하여 대공간을 제공하여 공공서비스영역과의 연계도 시도하고 있는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겠다. 물론 이 두 개의 축은 명 확한 시각적 통합을 이루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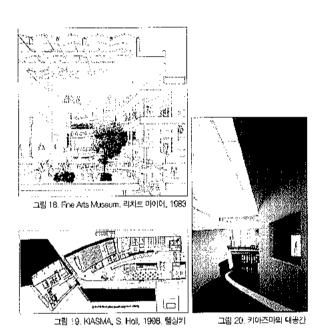
그링 17. 현대미술관의 복도형대공간

불레-듀

랑-쉰켈-라이트로 이어 지던 로툰다형 대공간의 형태는 오늘날에 와서 라이트가 제안한 아트리 움의 형식으로 전환되어 발전되고 있는 것을 빈 번하게 볼 수 있다. 실제 로 이 경우는 대공간이 전체 공간구조에서 중심 적 위치를 점유하고 있

으며 처음의 역할에서 많은 변화를 보이지는 않고 있다. 즉 이 대공간을 중심으로 출입구부분에서 공공ㆍ서비스영역들 이 위치하고 있어 관람객에게 전시공간으로 가기 전에 정 보, 교육, 휴식 등 다양하고 활기찬 경험을 제공하고, 다음 의 진행으로서 조용한 분위기의 전시공간으로 가는 공간구 조가 일반적으로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물론 전체공간을 동시에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기존의 역할은 변 함이 없다.

1980년대에 와서야 구겐하임의 아트리움 대공간이 변형되어 리차드 마이어에 의해 성공적으로 사용 되었다. 그를 유명하게 만들었던 아틀란타의 미술관(Fine Arts Museum. 1983)을 보면 대공간을 사이에 두고 외부 공가쪽으로는 램프와 한편으로는 전시공간이 배치되어 있 다. 여기에서 아트리움식의 대공간은 램프쪽의 유리창을 통 하여 최대한의 빛을 받아 강한 인상의 공간감 뿐만이 아니 라 최대한 밝은 공간으로 계획되어 전체공간을 지배하고 있 다. 마이어의 이러한 대공간의 성격은 바르셀로나의 현대마 출관(Museum of Contemporary Art, 1995)에도 잘 나 타나고 있다.



또 다른 사례로서 로툰다형 태공간이 공공 서비스영역과 긴밀하게 연계되면서 보다 적극적으로 사용 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 한 예로 스티븐 홀이 설계한 키 아즈마 (Kiazma, Steven Holl, 1996-1998, 헬싱키)를 살펴보자. 출입구를 들어서면 나타나는 아트리움의 대공간 이 강한 공간적 인상을 제공한다. 이 대공간을 중심으로 박 물관 전체의 공간구조를 파악할 수 있다. 이 대공간은 레스 토랑, 서점, 세미니실 등과 같은 공공서비스 영역으로 둘러 싸여 있으며, 시청각실과 상충부로 통하는 주 통로인 인상 적인 형태의 램프를 포함함으로써 박물관 내에서의 시각 적, 공간적 중심을 이루고 있다. 두 개의 매스를 교차시킴 으로 해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이 대공간을 중심으로 출입 구 층에서는 공공서비스 기능들이 펼쳐져 있으며 위의 전 시공간 충돌에서는 동선이 대공간을 향하여 열려있음으로 써 전체공간과 대공간이 강한 시각적 통합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특성은 관람객의 집단적 경험을 극대화시키고 있으 며, 구겐하임에서 보여준 아트리움의 특성을 더욱 발전시 키고 있다. 이러한 대공간과 타 영역 공간과의 적극적인 시 각적 통합은 공공박물관의 전형적인 특징으로 자리잡고 있 응을 볼 수 있다.

4. 로툰다형과 복도형 대공간의 혼합

우리는 앞에서 복도형 대공간과 로툰다형 대공간이 각각의 특성과 역할이 혼합되면서 발전되어 새로 유 대공간으로서의 가능성을 제공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 다. 즉 아울렌티가 제안한 오르세이박물관은 앞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그 형태에 있어서도 복도형인지 로툰다형인지 명 확하게 구분할 수 없다. 또한 그 역할에 있어서도 로툰다형 이 나타내고 있는 특성인 방향감각의 장치와 인상적 공간감 을 제공하고 있음과 동시에 복모형이 제시하는 특성인 전체 공간의 파악과 선택적 관람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두가지 특 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특성은 실제로 키 아즈마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두 형태의 혼합은 공공박물관이 지 녀야 할 특성과도 일치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즉 전시위주 의 공간구성을 하고 있는 전통적인 박물관들에서는 일반적 으로 30분 이상 걸려서 어렵게 박물관을 찾은 일반대중에 게 도착하자마자 전시공간을 경험하게 했었다. 실제로 일반 대중들이 박물관을 찾는 목적을 보면 전시품에 대한 지식습 득 보다는 남들과 같이 문화공간을 찾음으로써 사회적 집단 의 일원에 포함되고싶은 성향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즉 하나의 사회적 이벤트로서 박물관을 방문하는 것이지 특 수한 교육적 목적으로 방문하는 것은 극히 드물다고 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기존의 전시위주의 박물관은 전시품 감 상을 통한 지식전달에만 치중한 느낌을 준다. 이런 경우 일 반대중은 한번 방문하는 것으로 만족하게 된다. 무슨 재미 로 그곳을 다시 방문하겠는가. 이와는 반대로 공공박물관은 처음에도 언급했듯이 딱딱하게 느껴지는 전시공간으로 진 입하기 전에 일반대중에게 다양한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일 반대중과 가까이 하는 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에 힘을 기울 이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전시공간 이전의 다양한 경험 이란 사전 정보습득, 휴식, 다양한 프로그램의 참여, 쇼핑 등의 행위로서 이러한 행위는 사회적 이벤트로서의 박물관 방문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다양한 경 험을 제공하는 공간이 바로 오늘날의 공공박물관의 대공간 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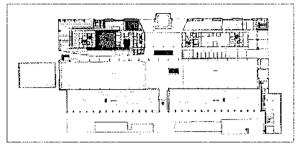


그림 21. 테이트 모던, 2000, 런던



그림 22. 테이트 모던의 대공한 전경

오늘날의 대공간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 밀레니엄 행사의 하나로 건립된 런던의 테이트 모던 (Tate Modern, Herzog, 2000)이다. 이 박물관 또한 파 리의 오르세이와 같이 기존 건물을 개조한 것으로서 이 경 우 화력발전소를 개조한 것이다. 매우 성공적으로 평가되 고 있는 이유는 기존의 공간을 최대한 유지하며 박물관 공 간으로 전환시켰다는 점에 있다. 즉 중앙의 터빈홀을 대공 간으로서 활용하고 각 전시총과 시각적으로 최대한 통합하 게 하고 있다. 중앙의 대공간을 보면 전체 전시공간의 규모 와 대등한 정도의 크기로서 복도형이 갖는 강한 시각축을 가지며, 동시에 로툰다형에서 볼 수 있는 방향감각의 장치 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이 공간에서는 전시공간 이외 의 모든 기능의 공간들이 작.간접으로 연결되어 있다. 서 점, 레스토랑, 매표소, 안내데스크 등 모든 공공서비스영역 이 주변으로 배치되어 있으며, 대공간의 한곳에는 입체전 시, 야벤트성 전시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 대공간의 중간에 는 데크총이 있어 이곳에서 대공간을 제대로 경험할 수 있 는 기회가 제공되고 있다. 즉 거대한 박물관의 전체공간이 한눈에 들어오고 주출입구 층에서 일어나는 모든 행위를

직접 볼 수 있어서 관람객들은 이곳에서 사회적 이벤트로 서의 박물관 방문의 경험을 최대한으로 느끼게 된다. 한편 전시공간과의 관계를 보면 시각적으로 완벽하게 통합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각 전시층에는 중앙에 에스컬레이터를 중심으로 홀이 형성되고 있는데, 이 곳에서 관람객은 유리 창을 통하여 대공간을 경험하게 된다. 즉 모든 층에서 대공 간은 중심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전시관람 가운 데도 대공간으로 시각적으로 열려져있는 코너들이 있어서 휴식하면서 대공간을 경험하게 되어 있다. 이처럼 주출입 구에서 시작되는 관람의 처음부터 끝까지 대공간은 모든 공간과 통합되어 있으며, 이는 박물관 방문의 집단적 경험 을 국대화하고 있다. 공공박물관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는 것이다.

대공간의 기능분화는 최근에 와서 두드러지 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았다. 즉 불레-듀랑-쉰켈로 이어지던 전통적인 박물관들에서는 그 전체 기능에 있어서도 단순하 유물이나 예술품의 소장과 관리, 전시가 주목적이었지만. 20세기 중반에 들어서서야 일반대중을 위한 공공시설로서 의 박물관 개념이 바뀌면서, 특히 공공영역과 서비스영역, 그리고 교육영역이 새로이 첨가되고 있다. 아에 따라 대공 간 또한 단순한 역할에서 새로이 등장한 여러 기능들을 수 용하게 되었으며, 전시공간을 비롯한 타 공간과의 결합 방 식 또한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음을 살펴보았다.

근대이전의 박물관 대공간은 단순한 방향감 각이나 상징적 중심공간의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전시공간 으로 가기 위한 전이공간으로서의 역할이 강조되었다. 하지 만 근대이후 20세기 중반으로 접어들면서 박물관의 영역이 세분화되고 복잡해짐에 따라 대공간의 역할이 확대되었다. 단순히 박물관에서의 동선의 초점이 아니라 모든 공간을 연 결사키는 공간으로서 작용하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공공영 역과 서비스영역, 교육영역을 포함하거나, 또는 아주 밀접 한 관계를 가지게 된다. 여기서 밀접한 관계란 대공간과 타 공간과의 경계를 허물었으며, 시각적 통합의 강도 또한 '중' 가시킴으로서 전체 박물관공간에서 실질적 중심으로서의 역항을 하게 된 것이다. 圖

건축계소식 / 87 현상설계경기 / 94 해외잡지통향 / 100 법령 / 105 세무안내 / 106

건축계소식 archi-net

건축시법시행규칙중 개정령 공포

지난 4월 4일부터 시행

건설교통부는 지난 4월 4일(목) 건설교 통부령 제310호로 개정된 건축시법시행 규칙중 개정령을 공포하고 이날부터 시 행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령에서는 건축 시협회에 대한 업무실적의 제출, 건축사 협회의 업무실적 증명서 발급 등 그 시행 에 구체적으로 필요한 사항과 서식을 정 해놓았다.(105쪽, www.kira.or.kr 참조)

건설기능경기대회 개최

5월 4일까지 각 시도건축사회로 신청

건설기능인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대한 건설단체총연합회가 해마다 주최하는 건설기능경기대회가 올 해로 10회째를 맞는다. 이 대회에는 전산응용건축 (CAD)제도 직종을 비롯 여러 직종의 기 능 경기가 있을 예정이다. 대회는 오는 5월 24일(금) 전문건설공제조합 직업전 문학교(충북 음성군 금왕읍 구계리 소 재)에서 열리고, 전산응용건축제도 부문 에는 35명의 참가자를 받는다. 참가자 격은 대회참가신청 미감일 현재 본 협회 소속 건축사사무소에 종사하는 기능인 중 대회 개최일 현재 만 14세 이상이고 현장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이며, 이 대회에서 입상한 사실이 없는 자면 된다. 참가신청 교부, 및 접수는 5월 4일 까지이며, 신청서 교부와 접수는 우리협 회 각 시도건축사회에서 한다. 참가신청 은 소속건축사사무소 건축사 도장을 지 참한 본인이 직접 각 시도건축사회를 내 방하여 접수해야 하고, 참가신청서(소정 양식), 주민등록증 사본, 이력서 각 1부 를 구비해야 한다.

문의: 02-581-5711~4 총무팀 www.kira.or.kr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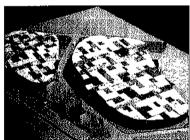
제8회 베니스비엔날레 국제 건축전 한국관 출품작 발표

전시커미셔너 김종성(서울건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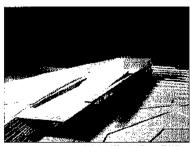
오는 9월 7일부터 11월 24일까지 2개 월여 개최되는 제8회 베니스비엔날레 국제건축전 한국관(전시커미셔너 김종 성(서울건축 대표))의 전시기획과 출품 작이 지난 3월 21일 문예진흥원 본관 3 층 강당에서 발표됐다. 이 행사의 전체 주제는 '넥스트(next)' 이며, 이는 향후 10년의 세계건축이 실제적으로 어떠한 양상을 띨 것인가를 탐구하고자 하는 의 도에서 발제된 것으로, 향후 5년이나 10 년 뒤에 실제로 형상화될, 그러나 아직 은 완성되지 않은 계획만을 대상으로 전 시한다. 이러한 주제에 맞춰 주제전에 해당하는 본전시에서는 주거(next home), 대규모 도시 스케일의 작업 (next place), 젊은 세대(next generation) 부문으로 1백명의 작품을 선정, 전시한다. 이에 따라 이번 한국관 전시를 위해 한국문화예술진흥원에서는 지난 2001년 12월 8일 제8회 베니스비 엔날레 국제건축전 한국관 운영위원회 를 결성하고, 12월 17일 전시 커미셔너 를 선정했으며, 구체적인 주제를 설정한 다음 2002년 3월까지 출품작 선정 작업

을 진행해 왔다. 이번 한국관 전시는 국 제건축전 주제와 맥을 같이하여 '집단 주거와 주택 디자인의 혁신 , '공공건축 과 커뮤니티시설', '문화인프라', 비무 장지대 자연 생태계의 보존과 필요한 건축적 조치 를 향후 10년 한반도의 건 축계가 직면한 도전 과제로 설정, 앞으 로 10년 내에 지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계획인들 중 이에 부용하는 작품을 선 발, 이들 작품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최종 선정된 출품작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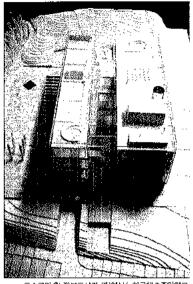
- 김영준(이로재 · 김영준도시건축연구 소 대표)/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공동주거
- -김종규(한국예술종합학교 건축과 교 수) + 김준성(건축사사무소m.a.r.u. 소장)/헤이리아트밸리커뮤니 티센터
- 민현식(한국예술종합학교 건축과 교 수) + 이민아(건축사사무소 기오현)/ 온수공원 및 정보도서관
- 박헬렌주현(경기대학교 건축전문대학 원 교수)/헤이리아트밸리 스튜디오+ 주택
- 우규승(KSWA건축사사무소 대표, 재 미건축가)/추모공원 및 납골당
- -이종호(스튜디오 메타 대표)/박수근 미술관
- 조성룡(조성룡도시건축 대표)/파주출 판정보산업단지 시범지구 상기블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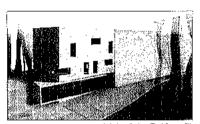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mark>안지 공동주</mark>거. (강영준/ 이로재 · 김영준도시건축연구소 대표)



해미리아트밸리 커뮤니티센터 (건종규/한국예술종합학교 건축과 교수+검준성/건축사시무소 m.a.r.u, 소장)



온수공원 및 참보도시관 (민현식/ 한국예술종<mark>회학교</mark> 면 못 입고도시면 (단단되) '전국서씨무소 기오현) 건축과 교수 + 이번아/건축사싸무소 기오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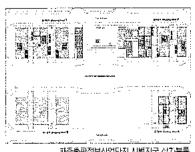
하이라아트밸러 스튜디오+주 (박혜린주철/ 경기대학교 건축전문대학원 끄수)



박수군 이술관 (이종호/ 스튜디오 메타 대표)



추오용원 및 납골당 (우규승/ KSWA건축사사무소 대표, 재미 건축가)



파주출판정보산업단지 시범지구 상기불록 (초성룡/ 조성룡도시건축 대표)

제20회 공간국제학생건축상. 제2회 스페이스 인 스타일 공간국제학생실내건축상

URBAN VOID' SCAPE 를 주제로

공간사는 제20회 공간국제학생건축상 과 '제2회 스페이스 인 스타일 공간국제 학생실내건축상 을 동시에 개최, 전시 한다. 이 공모전은 국내와 2년제 대학 이상(대학원생 포함, 전공불문, 한 팀 3 인까지 공동작업 가능) 학생을 대상으 로 하며, 오는 7월 31일까지 참가신청 을 받아 8월 21일부터 30일까지 작품 을 접수한다. 입상작 발표는 9월 16일 에 하며, 10월 11일 시상식을 갖고 20 일까지 전시한다. 신청서는 웹진 vmspace에서 소정의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팀별 대표자 명기)할 수 있으며, 신청서 접수는 우편, 팩스, 이메일 등 모 두 가능하다. 이번 공간국제학생건축상 의 주제는 서울 홍익대 앞에 있는 당인 리 발전소 인입 철로 폐선부지를 대상으 로 하는 URBAN VOID 이며, 심사는 승효상(종합건축사사무소 이로재 대표) 씨와 빈센트 가야르타(스페인 악타르 아키텍투라)씨가 맡는다. 스페이스 인 스타일 공간국제학생실내건축상의 주 제는 SCAPE 이며, 심시는 천의영(경 기대학교 건축전문대학원 교수)씨와 김 부곤(코어햰즈 대표)씨가 맡는다.

문의: 공간대상 사무국/서울 종로구 원 서동 219. TEL82-2-747-2892. FAX82-2-747-2894.

http://www.vmspace.com, e-mail: spaceprize@vmspace.com

제1회 리모델링 대상 발표

베스트리모델링부문에 『한국은행 본관(간삼건축)』 수상

한국리모델링협회와 파이낸설뉴스 그리고 대한주택공사가 공동 주최한 제1회 리모델링 대상 결과를 발표하고, 지난 3월 20일 국민일보사 빌딩에서 시상식을 가졌다. 지난 2월 28일까지 리모델링 준공연도, 건물용도, 규모, 지역구분 없이 작품을 접수하고,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통해 각 부문 수상작을 선정했다. 이 상은 기능항상과 환경개선, 자산가치의 항상 등 그 성과가 뛰어난 건물 및 리모델링 행위자를 발굴, 시상함으로써 리모델링의 대안 제시와 홍보에 기여하기 위해 올 해 처음으로 제정됐다. 각 부문별 수상현황은 다음과 같다.

(리모델링 대상)

- · 베스트리모델링부문/한국은행 본관 (간삼종합건축사사무소)
- · 건물수명연장부문/신세계백화점 마 산점(두가씨앤씨종합건축사사무소)
- ·에너지절약부문/양평동현대3차아파 트(현대산업개발)
- · 환경보존부문/삼청각문화시설(창조 건축사사무소)
- ·정보통신부문/교보증권 여의도신사 옥(삼성에버랜드)
- · 도시환경부문/리츠칼튼호텔(종합건 축사사무소 이공)
- · 자산가치부문/프라임타워(민경식건 축연구소)
- · 리모델링진흥부문/현암사(건축사사 무소 아뜰리에17)

〈특별상〉

- · 한국리모델링협회장상/루이비통 청 담동 매장(R.A.C.건축사사무소)
- · 파이낸셜뉴스사장상/쉐라톤워커혈 호텔(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 · 대한건설협회장상/AAR항공기지원 센터(국보디자인)

2002원도시아카데미 세미나

'인간의 공간은 가능한가' 주제로

2002원도시아카데미 세미나 일정이 발표됐다. 이번 세미나는 김광현(서울 대 건축학과)교수가 기획/대답을 맡았 으며, 12월 5일까지 오후 7시부터 10 시까지 원도시건축 지하 1층 홀에서 열 린다. 이 세미나는 보편화하고 균일화 하는 현대의 정보화 도시사회에서 인간 을 중심으로 바라보는 건축과 도시의 공간은 가능한 것이며, 만일 그렇지 못 하다면 인간의 정체성과 고유성을 바탕 으로 한 공간은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 것일까? 이 문제는 근대 이후 지속적으 로 물어온 현대건축의 중심 과제이면서 우리 건축의 과제이기도 하다. 이에 대 하여 전반부는 공간적인 넓이를 가진 경계 와 장소'를 묻는다. 경계 는 건 축과 도시, 도시와 근교, 공동체를 성립 시키는 문제를 다룬다. 장소'는 땅과 인간의 고유한 가치를 과연 건축이 지 속시킬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다룬다. 후반부는 인간의 삶의 양상을 공간과 연결하는 '거주' 와 '일상' 을 묻는다. 거주'는 기술의 생산방식을 통해 흔들 리는 인간의 정주방식에 대한 물음이 며, '일상'은 현재, 이 땅에서 뙤풀이하 여 일어나는 삶의 형식이 빚어내는 공 간의 변화를 다룬다. 건축에 관심 있는 모든 분은 참관할 수 있으며, 일정은 다 음과 같다.

I 불안정한 경계

0404강 혁(경성대학교 건축공학과) 0502 홍성태(상지대학교 인문사회대 학교양과)

Ⅱ 장소의 상실

0605 민현식(한국예술종합학교 건축과) 0808 최병두(대구대학교 사회교육학부 지리교육과)

Ⅲ 거주의 위기

0905 정기용(기용건축) 1002 김상환(서울대학교 철학과) ₩ 생활의 일상성

1107 이영범(경기대학교 건축전문대 학원)

1205 김왕배(연세대학교 사회학과)

호서대학교, 건축학 · 공학 2002 봄학기 공개세미나

조혐과학관 103호에서 6월 12일까지

- 3월 27일 17:00 「Think like a Millionaire, Act like a CEO」/남규현 ((주)건설알포에 대표이사)
- 4월 10일 14:10 「도시 · 건축 · 풍경」 / 조성룡(건축가, 도시건축 대표)
- 5월 15일 17:00 [°]The Location of Culture, How Newness enters the world』/ 코디최(뉴욕대 교수, 예술가)
- -6월 12일 17:00 「앞으로 건축가의 역할」/ 박희수(서울시 건축지도과장)

▷문의: 041-540-5770

archi@office.hosFl.ac.kr

한국건축역사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

5월 18일 동국대 학습문화회관에서

한국건축역사학회에서는 2002년에 춘계 · 추계학술발표대회와 동아시아국제학술대회를 기획, 준비중에 있다. 금년부터 춘 · 추계학술발표대회는 이전과형식을 달리하여 오전에는 특정 기획주제에 대한 토론의 장을 마련하여 공동의 토론 시간을 갖고, 오후에는 개별 연구자들이 논문을 발표하는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오는 5월 18일 오전 10

시부터 오후 5시까지 동국대학교 학술 문화회관에서 개최될 춘계학술발표대 회에서는 오전에는 건축가 김종성의 작 품과 건축세계에 대한 아이기를 듣고 질 문과 토론을 하는 시간을 마련하였고. 오후에는 이때까지 진행해 오던 방식과 같이 개별 논문 발표를 가질 예정이다. 논문접수는 학회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으며, 5월 1일 마감이다.

발표와 토론에 김종성(서울건축), 조성 룡(조성룡도시건축), 김승희(경영위치 건축), 이상헌(건국대 건축전문대학 원), 정인하(한양대 건축공학과)씨가 참여한다.

문의: 학회시무실

(www.kaah.or.kr 02-734-2286)

한국건축역사학회 월려학술발표회: 역시도시 영역

역사문화경관의 보존과 활용

최근 기왕에 조성된 민숙마을에 더하여. 사극드라마의 붐을 타고 새롭게 관광을 위한 의사역사 경관마을이 조성되기도 하는 등 마을의 역사적 경관에 대한 다 양한 접근이 행해지고 있다. 또한 서울 시는 기회동 일대의 북촌지역에 대한 전 혀 새로운 보존계획을 수립하여 관심을 끌고 있다. 이들은 모두 공통적으로 '보 존기치가 있는 문화유산 및 건강한 생 활의 터전 임과 동시에 전시를 전제로 한 박물관적 기능 과 관광지원으로서 의 활용 이라는 여러 가지 갈등요소를 안고있다. 이에 기왕의 경험을 검토하 고, 역사문화경관의 생명력을 회복시킬 수 있는 '지혜로운 보존과 활용' 의 대안 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발표와 토론은 최근 시행된 세가지 유형 의 서로 다른 접근방법의 구체적인 사례. 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이에 앞서 외 암리 민속마율에 대한 현장답사가 계획 되어 있다.

▷ 일시: 2002년 4월 20일(토) 오후 2:00~5:00

▷ 장소:교원그룹 연수원 세미나실 (충남 이산시 산장면)

▷ 발표 :

첫째 민속마을 종합정비계획(외암마 을의 사례를 중심으로)

- 이왕기 교수(목원대 건축도 시공학부) 둘째, 영주 선비촌 개발계획 - 이호열 교수(밀양대 건축공학과)

셋째, 북촌가꾸기 기본계획 - 송인호 교수(서울시립대 건축도시조경 학부)

▷ 진행: 전봉희 교수(서울대 건축학과)

▷ 토론 : 박경립 교수 (강원대 건축조 경화부)

> 최태용 과장 (문화재청 건조 물무화재과)

> 김홍남 교수 (이화여대 미술 사학과, 북촌문화포럼 대표)

▷ 참고: 학회 홈페이지 http://www.kaah.or.kr

제20회 「서울시건축상」 발표

금상에「서울월드컵경기장」

올 해로 20회를 맞는 「서울시건축상」 심사결과가 지난 3월 21일 발표됐다. 준공건축물부문과 야간조명부문으로 나누여 시상하는 이 상은 2000년 1월 1 일부터 2001년 12월 31일 사이에 (임 시)사용증인 및 리모델링된 서울시 소 재의 모든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이건조명부문은 2001년 12월 31일 이 전에 설치된 모든 서울시내의 경관조명 시설물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준공건 축물부문 37점, 아간조명경관부문 20 점 등 총 57점을 대상으로 지난 3월 14,

15 양일간에 걸친 심사 결과 준공건축 물부문 금상은 서울월드컵경기장이, 야 간조명경관부문 금상은 가양대교가 각 각 선정됐다. 심사는 준공건축물분이에 이명호씨를 위원장으로 건축전문가 14 인, 이간조명경관부문에 박종호씨를 위 원장으로 관련분야 12인이 각각 맡았 다. 한편, 오는 5월 16일 오전 11시 세 종문화회관 미술관 신관에서 시상을 갖 고, 21일까지 같은 장소에서 수상작을 전시한다. 수상작현황은 다음과 같다.

▷ 준공건축물부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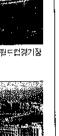
- ~금상/서울월드컵경기장(류춘수+이 공건축+비욘드스페이스+정림건축)
- -은상/은평구립도서관(맥건축/ 과재화)
 - 한국산업은행본점(희림건축/이영희 +DMJM Keating)
- -동상/한국전력문화회관(삼민건축/ 김윤석)
- 스위스그랜드호텔컨벤션센터(정립건 축/김정철)
- 강북구민회관(원도시건축/변 용) 우면동 C주택(건축문화/김영섭)
- -장려삼/동덕여대공연예술연구소(원 도시건축/변 용)
- 연세대앞시범공중화장실(간삼건축/ 기자호)
- 신트리3단지아파트(무영건축/안길
- -리모델링우수작/한국과학기술원제2 호관(간삼건축/감자호)

▷ 아건조명경관부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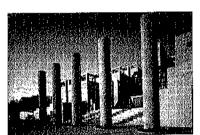
- -금상/가양대교(누리풀랜/이상우)
- -은상/알리안츠제일생명본사(나남전 기/김재순.이종일)
- -동상/가락동동부센트레빌아파트(아 이라이트/이미애.이동희)
- 서울월드컵경기장(알토부설조명디자 인연구소/이성재)
- -장려상/스타나워공개공지(현대산업 개발/이상현)
- 월드컵경기장역(성산역)외부출입구 선큰굉장(크리룩스/고경주 하미정)



공상 - 서울 월드컵경기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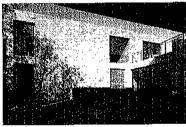
문상 - 한국산업은행본점



은상 - 은평구립도서관



동삼 - 강북구단회관



등상 우면용C주택



동상 - 스위스그랜드호텔 컨벤션센터



동산 - 항국전력문화회판



리모델링투수작-한국과학기술원 체2호관

제8회 건축박람회 및 조명·기구박람회

오는 8월 17일부터 서울무역전시장에서

동이전람 주최로 제8회 건축박람회 및 조명 · 기구박람회가 서울무역전시장에 서 개최된다. 이번 전시회는 국내 건축 산업과 관련된 업체들의 하반기 신제품 발표와 각종 인테리어 정보가 함께 제공 된다. 이를 통해 바르고 유익한 건축과 조명·기구관련 정보제공의 장을 마련 하다.

- -기간: 8월 17일~21일 10:00~18:00 -장소: 서울무역전시장 1, 2, 3전시실 및 옥외 전시실
- -전시품목: 건축·조명·기구관련 제 품. 인테리어관련 제품
- 참가신청: 6월 30일 마감
- 문의: 02-780-0366
- www,dong-afairs.co.kr

건축설계교수협의회 발족

4월 13일 창립총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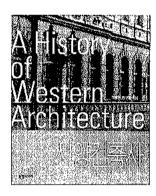
건축설계교수협의회 추진위원회(위원 장 이정만)는 지난 4월 13일 오후 3시 대한건축학회 지하 강당에서 창립총회 를 갖고 정식으로 「건축설계교수협의 회를 발족시켰다. 이는 지난해 12월 11일 발기인 형식의 모임을 갖고 발족 한 추진위원회에서 그동안 여러 차례의 준비 모임을 거쳐 건축설계교수협의회 의 성격과 존재의미를 찾는데서 시작하 여 건축설계관련학과 교수들이 준비해 야 될 작업들에 대해 토론한 결과로 탄 생됐다. 혐의회는 한국건축과 건축교육 전반이 실질적인 전환을 맞이하는 시점 에서 건축설계의 전문성을 좀 더 확고 히 하고 질적인 향상이 이루어지기 위 해 일선에서 교육과 연구를 담당하는 건축설계관련학과 교수들의 역할이 막 중해짐에 따라 건축설계, 건축설계학의 전문화된 연구와 발표의 장을 마련하 고 이를 통해 설계분야의 질적인 향상 을 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날 총회에 앞서 원정수 인하대 명예 교수의 특별강연이 있었다. 첫 모임에 참석한 발기인 명단은 다음과 같다.

강대호(전주대) 강부성(서울산업대) 권순정(아주대) 김낙중(건국대) 김도 식(목원대) 김성홍(서울시립대) 김정 곤(건국대) 김승제(광운대) 김현철(서 울대) 김형우(홍익대) 김홍일(동국대) 류전희(경기대) 심영섭(호서대) 심재 현(세종대) 여영호(고려대) 우창훈(수 원대) 윤재신(이화여대) 이강훈(충북 대) 이명식(동국대) 이배화(한라대) 이 상진(숭실대) 이선영(서울시립대) 이 영한(서울산업대) 이윤석(경희대) 이 재훈(단국대) 이정만(한양대) 임수영 (경기대) 장림종(연세대) 정재욱(단국 대) 정재헌(전주대) 정진국(한양대) 조 정식(동국대) 천의영(경기대) 황태주 (서원대)

문의: 02-2290-0315

◇ 서양건축사 - 문명의 건축, 교 역사를 찾아서

이 책은 선사시대부터 19세기 근대건 축까지 저자가 직접 찍은 300컷의 원 색사진과 함께 보는 서양건축 이야기 다. 이 책은 원시 인류가 거친 자연으 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해 지었던 움 집에서 공간 개념을 싹틔운 이래 끊임 없이 건축의 개념을 정립해 나가고 진 보를 거듭해 온 서양건축을 시대 순으 로 기술하고 있다. 선사 건축에서 이집 트, 그리스, 로마, 비잔틴, 이슬람, 로마 네스크, 고딕, 르네상스, 바로크, 로코 코, 신고전주의, 낭만주의, 19세기 산 업 건축에 이르기까지 건축양식과 구조 기술의 발달사를 일목요연하게 훑어볼 수 있도록 정리하였다. 인류문명의 소 산인 건축물들이 역사의 부침 속에서 겪는 변화와 발전의 괘적들을 건축학 개념을 동원하기 보다는 쉽게 풀어 이 해하기 쉽도록 설명하였다. 4천년 서양 건축의 흐름을 풍부한 시진을 보며 쉽 게 파악할 수 있다.



정성현 · 최성원 지음/328쪽/2만3천원 /4×6배판 변형/동방미디어(주) 발행 (02-724-7523)

♦ 스틸하우스로 집짓기

이 책은 스틸하우스에 대한 자재 · 구 조 · 성능 · 시공적인 특성을 살펴보고, 국내는 물론 해외의 스틸하우스 적용사 례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또한 대지선 정에서 구입, 부지에 대한 현장조사, 건 축설계, 건축공사에 이르기까지 단독주 택을 짓고자 하는 이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내용풀을 시진과 함께 상세 하게 설명하고 있다.



포항산업과학연구원 지음/143쪽/1만2천원 /도서출판 구미서관 발행(02-738-9229)

(정정합니다)

- ▷ 지난호(3월호) 108페이지 / 김해농산불 종합유통센터(현상설계) 중「(주)공간종합 건축사사무소(이상림 · 박유진)」
 - →「(주)공간종합건축사사무소(이상립 · 강성인)」으로 정정합니다.



▷ 지난호(3월호) 100페이지 / 고양시일산문화센터(현상설계) 중 「우수작」→ 「2등작」 으로 정정합니다.

전국시도건축사회 및 건축상답실 안내

- 서울육병사건축사회/(02)581-5715~8 강남구건축사회/517-3071 - 강동구건축사회/486-7475 강북구건축사회/903-3425 - 강서구건축사회/081-6999 -관악구건축사회/884-0048·광천구건축사회/446-5244 구로구거축사회/884-599R · 공처구거축사회/859-1598 : 노원구건축사회/039 5781 - 도봉구건축사회/954 1253 : 동데문구건축사회/923-8213 : 동작구건축사회/815-3026 - 여포구건축사회/333-5251 : 서대문구건축사회 /333-6411 : 서초구건축사회/3474-6100 : 성동구건축사
- 회/292-5865 · 성복구건축사회/922-5117 · 송피구건축사 회,423-9158 · 양천구건축시회/694-8040 · 영등포구건축 사회/632-2143 용신구건축사회/717-6607 운영구건축 사회/389-1488 - 종로구건출사회/737-3030 : 중구건출사 화/231-5748 중광구건축시회/437-3900
- 부산광역시건축시회/(051)633-6677
- 대구광역시건축사회/(053)753-8980~3
- 인천광역시건축시회/(032)437-3381~4
- 광주광역시7(축시회/(062)521-0025~6.
- 대전공역사건축시회/(042)485-2813~7
- 육산광역시건축사회/(052)266-5651
- 경기도건축사회/(031)247-6129~30 고양자역건축자회/(031)963-8902 · 왕명건축사회 (02)684-5945 - 구리지역건축사회/(031)563-2337 / 부 천지역건축사회/(032)664-1554 : 심남지역건축사회 /(031)755:5445 / 수원자열건축사체/(031)241-7987~ 8. 사용지역간축사회/(031)318-6713 : 인산건축사회 /(031)480-9130 * 안망지역감축사회/(031)449-2698 • 의정부자역건축사회/(031)876-0458: 이천지역건축사회 /(031)635-0645 - 펌백지열건축시회(031)657-8149 - 오 산건축사회/(031)375-8648 - 용인지역건축사회 /((31)396-0140 - 광주지역권축사회/(031)767-2204
- 강원도건축사회/(033)254-2442 강흥지역건축사회(033)652-0126 - 삼척지역건축사회 /(033)531-8708 - 속초지역간축사활/(033)633-5080 - 영 월지역건축사회/(033)374-2659 - 원주지역건축사회 /(033)743-729) · 추천지역건육사회/(033)254-2442
- 출청북도건축시회/(043)223-3084~6 청주지역건숙사회/(043)223-3034 옥천지역건축사회 /(043)732-5752 - 세천지역건축시회/(043)643-3588 충주지역건축사회/(043)851-1597
- 충청남도건축사회/(042)252~4088 공주지역건축사회/(041)854-3355 · 보람지역건축사회 서산지역건축사회/(041)681-4295 전인지역건축사회 /(041)551-4561 : 홍성지역건축사회/(041)632-2765
- 전라복도건축사회/(063)251-6040 구시지역건축사회/(063)452-3815 : 날원지역건축사회 /(063)631-2223 (익산지역건축사회(063)852-3798)
- 전라남도건축사회/(062)365-9944 ⋅ 364-7567 목표지역건축사회/(061)272-3349 · 순천저역건축사회 /(061)743-2457 여수지역건축사회/(061)652-7023 : 나주지역건축사회/(061)365-6151
- 검상북도건축사회/(053)744-7800~2 경산지의건축사회/(053)812-6721 · 경주지역건축사회 /(054)772-4710 - 구의자열건총시회/(054)451-[537~8] 김전지역건축사회/(054)432-6686/ 문경지역 건축사회/(054)553-1412 · 성주지역건축사회/(054)535-8975 : 안동지역건축시회/(054)853,0244 - 영주지역건축 서희/(054)634-5580 > 영천지역건축사회/(054)334-8256 칠곡시역건축사회/(054)974-7025 포함지역건축 시회/(054)244-6029 -
- 경상당도건축사회/(055)246-4530~1 거,제지역건축사회(055)635-6870 : 거황지역건축사회 /(055)943-6090 : 길회시건축사회/(055)034-6344 - 마. 장지역건축사회/(055)245-3737 : 일양지역건축사회 7(055)355-1323 · 시천시건축사회/(055)833 9779 : 양 사시건출시회7(055)384-3050 · 지주지면건출시회: 7(055)741:B40g · 천하시건축사회/(055)544-7744 › 통 영지역건축사회((055)841-4530) 하몸지역건축사회 /(059)853-4612
- 제주도건축사회/(064)752-3248 시키포자의건축사회(064)733-6501

제21차 UIA 총회

UIA(International Union of Architects)는 1948년 6월 28일 스위스 로잔에서 설립된 세계 건축사들의 모임으로 UIA 총회 및 대회는 3년마다 개최된다. 우리나라는 한국건축가협회가 1963년 10월 제9차 멕시코 총회에서 가입이 승인되어 활동하였으 며, 2000년 6월 시드니에서 개최된 UIA 이사회에서 FIKA(한국건축단체연합 : Federation of Institutes of Korean Architects)를 UIA 회원단체로 승인되어 활동하고 있다. 올해 개최되는 제21차 UIA총회에서는 이사회 및 PPC 회의 동 다양 한 행사가 실시될 예정이다.

• 주	제: "RESOURCE ARCHITECTURE"	• 세 부 일정	
• 잠	소 : 독일 베를린	7, 20	PPC회, UIA 사무국 회의
•기	간: 2002, 7. 20 ~29	7. 21~26	UIA Congress (7,22 PPC 회의)
	_	7. 27~2 9	UIA Assembly

터키 Izmir 항만 국제설계경기 결과

터키에서 3번째 큰 도시인 Izmir 항민근처 Asiancak-Turan구의 재개발을 위한 국제설계경기 결과가 발표됐다. 이번 국제설계 경기에는 총 136명이 출품 하였고, 지난 2001년 12월 13일부터 17일까지 실시한 심사 결과 다음과 같이 당선적을 선정했다.

• 1등 : Jochen Brandi (독일)

- 2등 : Bunynamin Derman and Dilek Topuz Derman (터키)

• 3등 : Ertur Yener, Erdogan Elmas, Zafer Gulcur (터키)

• 입선: David Haseler Raia, Angela Rheinlaender (호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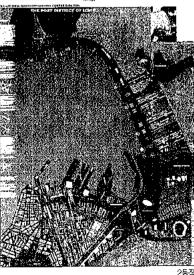
Nevzat Sayin, Can Cinici, Caglayan Cagbayir, Ebru Tabak (터키)

Mehmet Kutukcuoglu, Elif Kendir, Ertug Ucar, Evren Aysev, Tansel Dalgali (터키)

Maria Aiolova, Tunch Gungor (불가단아/미국)

Zeki Serifoglu, Ali Herkul Celikkol (터키)







현상설계경기 competition

인천보건환경연구원 청사 / 94

광주교육청 / 96

삼성2동 문화복지회관 / 98

인천보건환경연구원 청사

Incheon Health Environment Institute

▶ 당선작 / (주)토우종합건축시사 무소(박형배) + 위도종합건축사사 무소(서상문)

대지위치 인천광역시 중구 신흥동 2가 18-

4, 22-4

도시지역, 일반주거지역, 일반미 지역지구

관지구, 방화지구

대지면적 6,726㎡ (2,034평)

8.561.98m연면적

 $2.731.88n^{2}$ 조경면적

건폐율 23.85% 용적률 76.17%

규모 지상 4층, 지하 1층

설계팀 이동근, 이동창, 김석열, 배현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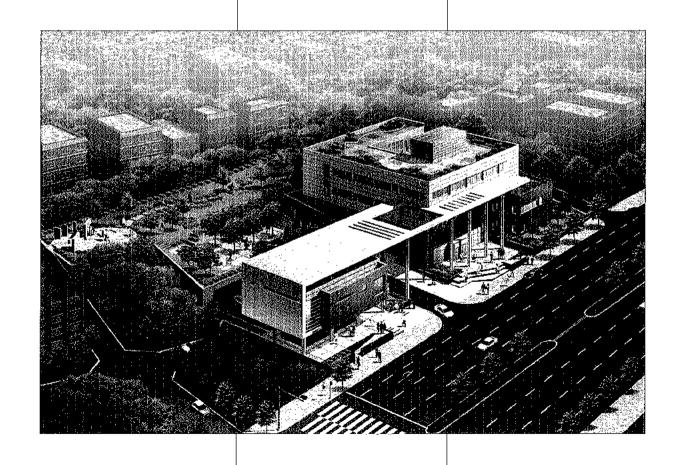
김주형, 임성신, 배금아, 최창규,

조은경,엄영섭, 하영상

배치개념

청사 주변 신흥사거리에서 경인선이 지 나는 도로면까지 기존의 도로폭을 50m. 로 확장하는 공사가 진행예정이다. 이로 인해 인천항을 시발점으로 하는 도로의 연장선상에 계획부지가 놓이게 되고, 결 과적으로 도로는 새로운 도시축으로 인 식된다. 따라서 가로축에 주입면을 맞추 어 정면성을 갖도록 배처하여 청사건물 의 상징성을 부각시켰고, 후면에는 지역 민을 고려한 개방공지를 확보하였다.

청사건물은 연구 · 실험 · 교육 · 홍보가 주된 업무로써 향후 전개될 업무의 다양 화에 따라 옥외공간을 증축예정부지로 확보하였고, 이용자 편의와 대중교통 등 의 정류장을 고려하여 주 출입구를 중심 으로 홍보관을 포함한 강당건물과 주 건. 물통을 좌우로 분리 : 배치하였다. 지상 공간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지상주차 장 상부를 데크(deck)로 처리하여 녹지 화 하였고, 주 건물동을 북동쪽에 위치시 켜 충분한 일조량을 확보하였다.



평면개념

연구원의 기능에 따라 총별로 유관부서 를 배치하여 기능과 구획을 명확히 하였 다. 채광과 환기를 통한 쾌적한 업무환 경을 위해 중정 개념을 도입하였으며, 동시에 10여 개의 부서 배치에서 발생 할 수 있는 방향감 성실과 동선의 교차 름 방지하는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중 정을 중심으로 4개 면을 확보하여 Zone을 구분하였고, 타 영역과의 유기 적인 연결을 위해 두 개의 출입구를 두 었다. 연구와 실험업무는 미래변화에 따 라 민감하게 대응하므로 수평증축을 고 려하여 증축방향의 단부를 복도로 처리 하였고, 내부벽체의 가변성을 고려하여 융통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입면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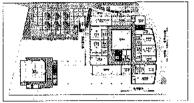
연구원 후면의 주거지는 경사지로써, 기 존 지형의 고저차를 최대한 이용하여 SKY LINE을 구성하고자 하였다. 공공 청사의 상징성과 투명성의 확보를 위해 전면을 유리로 처리하여 실내의 일부를 노출하였고, 야간 실내조명의 확산에 의 한 싱징미를 극대화하였다. 전면의 열주 는 관문으로써의 상징적 의미와 함께 부. 속건물을 포용하는 질서와 조회를 상징 한다. 외부마감재는 첨단건축 이미지를 갖도록 알루미늄과 유리를 통해 미래지 항적인 형태를 고려하였으며, 자연친화 적 재료와 친근한 색상을 사용하여 자연 스러움을 유도하였다.

단면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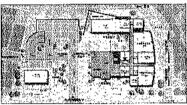
실내의 폐쇄성을 개선하기 위해 지상층 의 슬리브를 오픈하여 개방감을 확보하 였다. 부서별로 관련실을 하나의 유닛으 로 구성함으로써 수직 · 수평이동을 최소 화하여 효율적이고 원활한 동선체계를 고려하였다. 기능상 수직적 위계와 조화 로 인정감을 확보하였으며 방향감과 활 기를 도모하도록 충간 공간적 · 시각적으 로 연계가 되는 단면형태를 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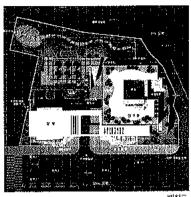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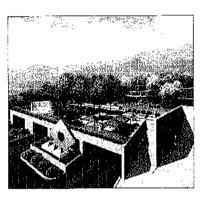
3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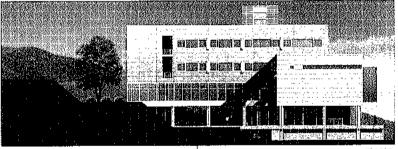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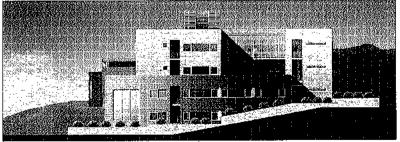












우측면도

광주 교육청

Gwangiu Metropolitan City Office of Education

▶ 당선작 / (주)류.한길 종합건축사 시무소(류연창)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 2통 대지위치

657-8

지역지구 일반주거지역, 학교시설보호지구

대지면적

12.123.00m2

건축면적

 $2,746.41 \, \text{m}^2$

연면적

7,806.16m²

건폐율

22.65% 61.92%

128대

용적률 구조 :

철근콘크리트 라멘조, 일부 철골조

규모

지하 1층, 지상 4층

주차대수

외부마감 T4 알루마늄 복합패널, 지정도

료뿜칠, T18 컬러복층유리 설계팀

김갑동, 박상구, 강기문, 김창오,

김민호

환경친화적 건축물 구현

- 대지형태에 따른 단면구성을 통하여 이용자들에게 자연스러운 Approach 동선 제공
- 중정 도입을 통하여 자연과 함께 하 는 건축물로써 내 회부공간이 유기 적 연결 및 충분한 외기 유입에 의한 시각적, 심미적 개방감 고취
- •기술 System에 의한 친환경건축만 이 아닌 이용자들로 하여금 자연 속 의 인간으로써 생활하는 공간적 Image 부여

배치계획

- 기존 지형 및 도시 Context 흐름에 순용하는 배치계획
- 기존의 교육청사와 외부공간 연계를

고려한 배치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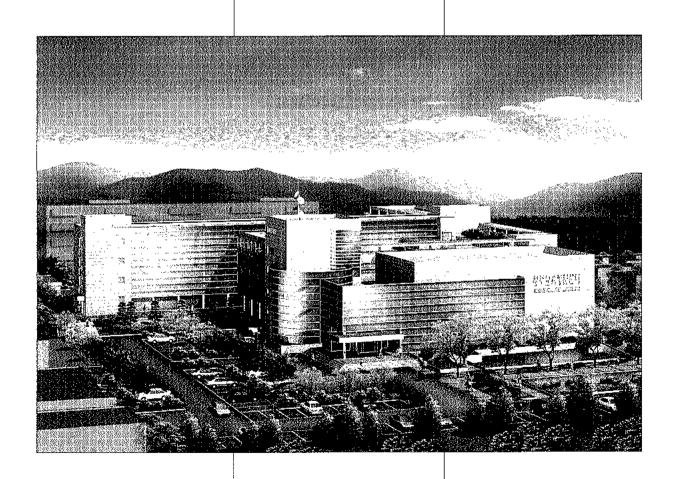
- •보행자 및 차량 진입공간의 명확한 분리를 통한 자연스런 외부공간 구성
- •도시 Context 흐름에 대비해 향후 진입부를 제안하는 배치계획

동선계획

- 자연지형에 맞는 보행자와 차량의 명 쾌한 동선 처리
- 주 진입부의 외부공간을 통한 각 영 역으로의 동선 유도
- 기능적인 동선분리와 유기적 연결
- 기존 교육청사와의 유기적인 동선 연계
- 추후 8M 계획도로 이용시 대지 남 측에 향후 진입부 제안
- 충분한 주차공간 확보

입면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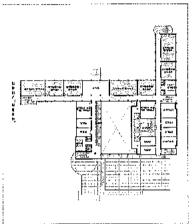
•High-Tech적 재료와 부드러운 Mass 구성을 통한 다양한 시각적 lmage연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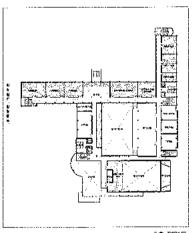
· Glass curtain wall의 도입으로 입면의 투명성, 개방성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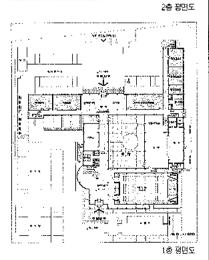
단면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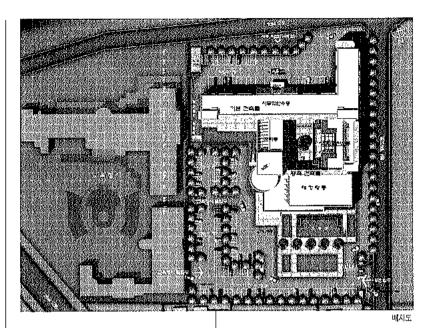
- •기존 지형에 순응하는 다양한 단면 Level계획
- 중정을 통한 채광과 환기로 쾌적한 실환경 조성을 통한 에너지 절약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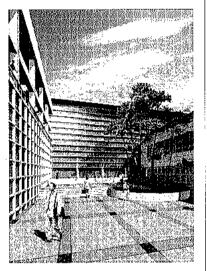


3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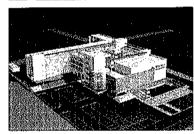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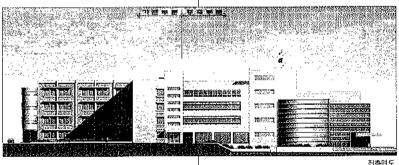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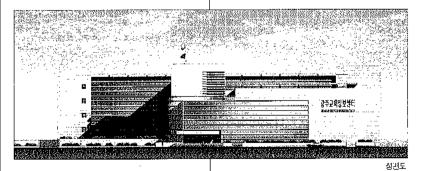












삼성2동 문화복지회관

Samsung 2dong Culture & Welfare Center

▶ 우수작 / 신도시건축사사무소 (오진록 · 고형석 · 우재통)

대지위치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38-27.

730.6nf 대지면적

건축면적 437.39ті

연면적 $3.977.59m^2$

건폐율 59.86%

용적률 415.25%

옥내 자주식 12대(장애인용 1대 주차대수

구조 철골, 철근콘크리트조

규모 지하 2층, 지상 8층

외부미감 THK24 컬러 복총유리, 화강석

버너구이

심영호, 박용범, 김윤재, 배성환, 설계팀 천승현, 김민수, 구교진, 안상철, 윤영옥, 윤재영

계획개념

- •도시문맥과의 관계 마을의 중심적 문화 공동체
- 공공성, 중심성 주민 화합, 행정의 투명적 상징성
- •기변성, 이벤트 1층의 다목적 홀의 도입(이벤트, 전시, 가로공연의 장)

배치계획

- 남향의 전면부에 주요실 배치
- Open View의 후면부에 휴게 공간 위치
- •도시축과 지역주민의 포용을 위한 건물 매스의 분할
- •진입로의 밀도를 고려한 마을마당 전면배치
- •후면부의 잔여공지와 마을마당의 이벤트성을 고려한 가변적 다목적 홑 중앙배치
- •저층부의 드리워진 공간과 2층 데크

- 와의 확장공간 활용
- 진입부의 동선분리, 각 기능의 독립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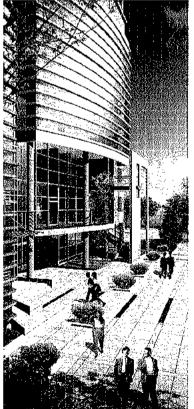
동선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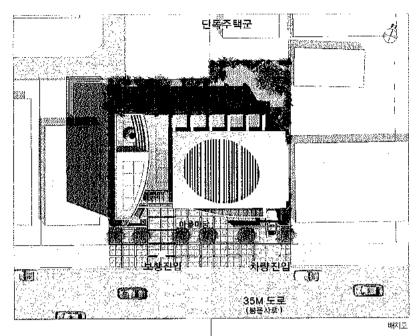
- •동행정 및 복지시설 기능의 수직적 동선계확
- 효율적 접근을 위한 수평동선 단순화
- 동선 분리를 통한 행정기능의 독립성
- 저층부 밀도에 의한 동선의 상승효과
- 2층 민원실의 별도 목외 동선계획
- 관 민의 중간 접지층 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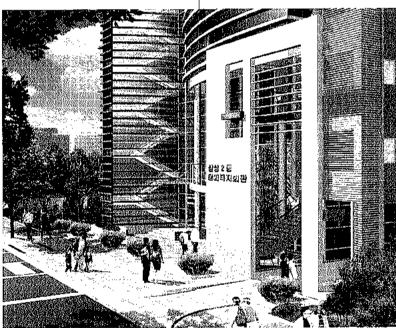
매스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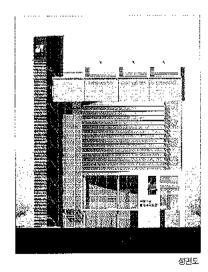
- 리운드형 계단(투명유리) : 주진입부 의 시각적 인지성 고조
- •매스의 분절 : 지역주민의 포용적 입면 구현
- •옥상 파고라(휴게공간) : 열려있는 하늘, 열려있는 주민 행정 표현
- 문화예술관의 상징성
- •라운드형 벽면 : 획일적 입면 탈퇴, 변화하는 행정기능 표현
- •기벽: 2층 동사무소 진입의 인지성. 기로경관의 순응(새로운 장소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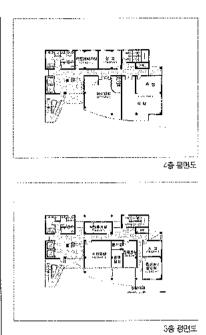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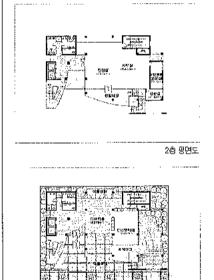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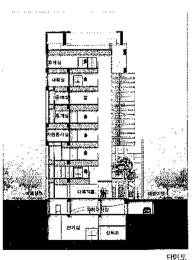












1층 평면도

a+u

2002년 3월

해외잡지통향 overseas journal

a+u

Architecture

World Architecture

이번 호에서 는 특집으로 연도 타다오 (安藤忠雄)의 작품들이 선 보이고 있다. 1990년대 이 후 해외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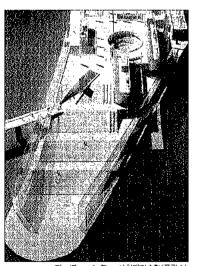
의 작품이 많아진 그의 활동들을 소개한 것으로 일본 밖에서 이루어진 프로젝트 들을 소개하고 있다. 작품 소개와 더불어 프랭크 게리, 리치드 로저스, 피터 준터, 크리스티앙 드 포잔박 등 세계적으로 저 명한 건축가와 윌리암 J. R. 커티스, 케 네스 프램투과 같은 근대 건축가플로부 터 안도 건축에 대한 인터뷰내용을 싣고 있다.

■ 특집:인도 타다오(安藤忠雄)/ Inside Outsid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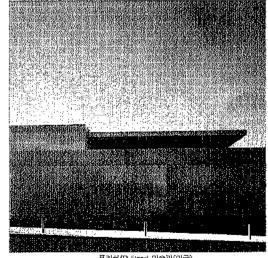
▶90년대 이후 안도 타다오는 활약의 무 대를 해외로 넓혀갔다. 그는 마이스터로 서 진정한 건축을 원하는 그 자신 뿐만 아니라 세계 각지의 클라이언트의 기대 에 십분 부용하였다. 시대가 세계화

(globalization)의 파도에 휩쓸려갈 때에 도 안도의 건축은 불변의 빛을 발하고 있 다. 그의 건축에 담긴 한 시대에 있어 공 유되는 어떤 보편성과 장소에 대한 감성, 그리고 그들을 초월하는 '안도 타다오' 라는 독자성에 의해 그곳에만 존재하는 건축이 탄생한다. 안도의 건축은 사람들 에게 있어서 상당히 'inside'이면서 'outside' 인 것이다. 그러나 안도의 건축 을 건축미학의 추구만으로 이해하는 것 은 충분치 않다. 그는 건축이라는 경계를 넘어서 사회에 발신하고 환경에 도달하 고 있는 것이다. 안도가 만들려고 하는 것은 자연과 인간과 도시와 건축, 그 모 든 것을 포함하는 '장소 '바로 그것이다. 건축은 단지 그 수단에 불과하다. 해서 바로 그 용기가 2002 AIA 골드메달을 시작으로 하는 다수의 수상 이유이며, 지 금 계속해서 달리고 있는 건축가의 힘인 것이다. 안도 타다오의 해외에서의 작품 을 모아 건축가의 "inside"와 "outside" 를 평행하게 놓고 보므로써 우리는 무엇 을 발견할 수 있을까. 거기에는 건축의 가능성, 건축의 미래를 여는 열쇠가 발견 될 지도 모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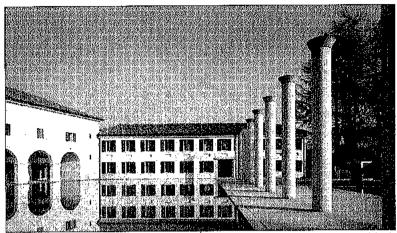
▶소개된 작품들은 피노(François Pinault)현대미술관(프랑스), 포트워스 (Fort Worth)근대미술관(미국), 퓰리쳐 (Pulitzer) 미술관(미국), 아르마니 (ARMANI)떼아트로(이태리),



피노(Fran ois Pinault)현대미술판(프랑스)



퓰리쳐(Pulitzer) 미술판(미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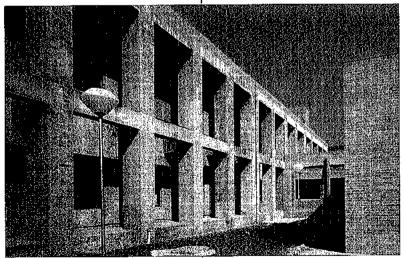


FARRICA(O ICHZ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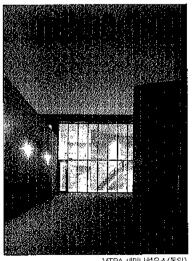
FABRICA(이태리), 라인강 세계문화박 물관(독일), 싯다르타(Shiddhartha) 어 린이 · 여성 병원(네팔), VITRA 세미나 하우스(독일) 등 주로 유럽(영국, 독일, 프랑스, 벨기에, 스페인, 이태리)과 미국 에 산재한 30개 작품으로, 완공된 것은 물론 설계경기 참여작품과 계획안도 포 함되어 있다. 세계지도에 표시된 그의 작품소재지들을 보면 본격적인 세계화 시대를 맞은 안도의 작품 활동기를 확인 할 수 있다. 모두 1990년 이후의 작품들 로서 안도의 최근의 작품성향 또한 살펴 볼 수 있다. 그의 작품은 세계화의 시기 를 맞으면서 또 작품 규모의 거대화를 통해 이전과는 다른 환경 속에서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고도 할 수 있다. 그의 작 품에서는 더 이상 한 장의 콘크리트 벽 으로 된 상자만이 발견되지는 않는다.

안도의 글에서도 나타나는 바와 같아 기존의 문맥에 대해 자극적인 관계창 출 을 하기 위해 유리박스의 도입이 상 당히 많이 눈에 띤다(포트워스 미술관, Invisible house, Reina Sofia 미술관, 라인강 세계문화박물관, 맨하탄의 팬트 하우스, 테이트갤러리 현대미술관 등). 피노 현대미술관에서는 '수면에 떠있는 우주선 이라는 컨셉을 가지고 그가 기 존에 해왔던 랜드스케이프적인 건물의 배치에 떠있는 우주선과 같은 매스를 접합시키고 있다. 네팔의 병원건물에서 는 현지의 건설사정을 고려한 듯 벽돌 로 외부를 마무리하여 인접한 인도와 방글라데시에서의 루이스 칸의 작품들 을 연상시키고 있다. 안도는 이렇듯 세 계각지의 서로 다른 컨택스트들과 새롭 게 주어지는 프로그램들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각 프로젝트별로 새로운 시도들을 해나가고 있다.

▶창조예의 여행-안도 타다오: 2001년 10월 피노 현대미술관의 지명 설계경기 에서 당선된 후 지난 10여 년간 해외에 서의 활동을 뒤돌아보며 안도 타다오 자 신이 쓴 글이다. 피노 현대미술관에서의 당선은 여러 차례 국제 설계경기에서 낙 선한 후 오랜만에 손에 쥐어본 승리였 다. 그러나 안도의 사무실에서는 당선의 기쁨과 동시에 이처럼 거대한 프로젝트 를 자신들이 과연 만족스럽게 해낼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 또한 금할 수 없었 다 한다. 안도는 '지명 설계경기 중 중도 포기한 피터 준터와 알바로 시저의 마음 이 그들의 건축과 공통점이 많은 자신의 로서는 이해가 간다 고 전하고 있다. 공 간의 구석구석까지 신경을 쓰면서 전체 를 한 사람이 정리해내기에는 프로젝트 가 너무나도 거대했던 것이다. 안도는 그간 10여 년 동안의 해외에서의 프로 젝트경험을 되새기면서 자신의 사무소 와 현장의 거리감 또한 극복해야할 큰 벽이라고 한다. 문화, 전통, 국민성의 차 이 등을 포함하여 모든 것이 미경험의 환경에서 작업하는 것이므로 당연히 예 상치 못한 사태가 차례차례 발생하는 것 이 사실이다. 퓰리쳐미술관에서는 계획 도중에서 부지가 변경되고 클라이언트 의 사망소식이 있었으며, 조각가인 리챠



싯다르타(Shiddharina) 어린이 - 여성 병원(너팔)



VITRA 세미나하우죠(독일)

드 세라, 엘스워스 켈리와의 협업 결정 등의 일이 십 수 년간 계속되었다. FABRICA에서는 현지기술자들의 열의 에도 불구하고 법적 문제로부터 계획이 수 차례 중단되었으며, 반대로 아르마니 떼아트로의 경우 스케줄에 있어서는 놀 리올 정도로 순조롭게 진행되었으나 현 지 밀라노의 시공수준이 예상외로 낮아. 급기야 콘크리트를 다시 치는 사태까지 발생하게 된다. 물론 모든 일이 생각한 대로만 움직여주지 않는 것은 건축에서 는 항상 있는 일로 국내이건 해외이건. 상황은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그때 그 때 즉각적으로 대처하기 곤란하고 판단 착오를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해 외 작업에 있어서의 어려움으로 지적하 고 있다. 그러나 안도는 이러한 모든 점 을 건축에 있어서 발생하는 긍정적인 도 전들로 파악하고 작업에 임하고 있다. 그는 자신의 작품을 일정한 원칙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으로 지적하는 사람이 많 은데 그것은 조형적인 면에 국한된 것이 며, 그 발상의 프로세스는 각 프로젝트 가 서로 완전히 다르다고 말하고 있다. 각 장소의 문맥을 주의 깊게 살피며 거 기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기존 의 장소를 자극하고 새로운 문맥을 창조 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한다. 신 · 구의 대립과 같은 기존 문맥과의 자 극적인 관계창출을 해내는 것이다. 그는 이러한 새로운 작업을 위해 건축을 통해 여행을 계속해나가고 있다. 창조에의 여 행을 말이다.

▶인터뷰: 세계의 저명한 건축가나 건축 사가로부터 안도의 작품과 그의 활동에 대한 의견을 물은 인터뷰 기사의 내용도 큰 홍미를 끄는 부분이다. 커티스(가장 긴 대답을 작성한 사람이다)나 프램**튼**과 같은 건축사기는 역시 이론기땁게 5-6 개에 이르는 질문의 항목마다 그에 적합 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고 있으나 대부 분의 건축가들은 모든 질문에 대해 짤막 한 답변 한 마디로 뭉뚱그려 대답하고 있다. 질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1)그의

건축이 일본적인가? 그렇다면 어떠한 점에서 그런 것들을 느끼는가? 2)&3) 그의 건축에서 가장 지극을 받는 점은 어떤 점인가? 4)어떠한 단어가 안도의 작품을 표현하는데 적당하다고 생각하 는가? 5) 안도는 로 꼬르뷔제에게서 영 항을 받았다 한다. 안도와 꼬르뷔제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등이다. 동일한 질 문들에 대한 커티스와 프램톤의 견해차 이를 보는 것은 매우 홈미로운데, 커티 스가 안도에 대해 전체적으로 호의적인 태도를 갖고 그가 일본 건축문화의 형태 가 아닌 그 속에 담긴 정신을 그 자신의 방법으로 해석하여 표현하고 있으며, 꼬 르뷔제, 칸, 바리간과 같은 건축가의 작 품들을 받아들이는 방법또한 마찬가지 라고 서술하고 있는데 반해 프램톤의 태 도는 다소 냉소적으로 빛과 물 등을 다 루는데 능숙하다고 지적하는데 그치고 있다. 커티스는 세계의 (건축)문화가 융 합되는 것이 바로 모더니즘이라고 말하 면서 안도가 이러한 점을 보여주는 작가 중의 하나라고 답하고 있다. 건축가들의 대답 또한 눈길을 끄는 것들이 많은데. 프랭크 게리는 그를 알고 있다는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라고 짧게 대 답하고 있으며, 일본의 건축가 세지마 카즈요는 '그의 건축은 별로 일본적이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대답하였다. 항복별 로 비교적 성실히 답한 것은 리치드 마 이어, 각기 다른 안도 건축에 대한 답변 속에 각 건축기들의 건축관과 개성 또한 엿볼 수 있다. (번역 : 강상훈)

Architecture

2002년 1월호

이번 호의 중 십 기사는 매 년 열리는 P/A상의 선정 결과다. 아을 러 지난 9월 뉴욕 세계 부 Awards



역 센터에 가

해진 테러 이후 건축계의 동향을 특집으 로 다루고 있다.

■ 특집 - 9 · 11 이후의 건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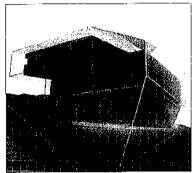
- ▶재건축 작업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건 축가들과 개발업자들이 서로의 역할에 대해 새로운 인식을 하고 있다. 뉴욕의 개발업자들은 세계 무역 센터의 폭격이 긴 부진을 겪었던 오피스 프로젝트의 완 성에 박치를 가하게 될 것이라고 믿는 다. 그러나 현재의 불경기로 많은 건물 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 ▶붕괴 현장에서 나온 철재 구조재들 은 뉴저지의 재활용품 처리소로 옮겨 지며, 수사에 필요한 부분들을 제외한 나머지는 절단되어 해외 제철소에 판 매되고 있다.
- ▶히로시미의 A-Bomb Dome이나 베를 린의 Kaiser Wilhelm Gedachtniskirche 는 2차 대전의 전혼을 그대로 유지한 채 현대 건축물과 어우러짐으로써 시민들에 게 역사적 교훈을 기억하도록 하고 있다. 뉴욕의 세계 무역 센터 붕괴 현장에서도 이런 시도를 할 수 있을지 고찰해 보았다. ▶태풍 피해 지역 등 재난 현장을 돌아 다니며 재건축 조언을 해주는 건축가 Charles Harper와의 인터뷰도 실려 있다.

■ 제49회 P/A상

심사위원장 Hsin-Ming Fung을 비롯

하여 Gregg Pasquarelli, Regine Leibinger, Terence Riley, Rick Jov21-565작품 기운데 선정한 P/A상 선정 결 과가 소개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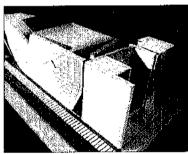
▶Johnston Marklee의 Hill House



Johns:on Marklee≗l Hill House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언덕 지역에 위치 할 이 저택은 건축법에 의해 부여된 제 한선들에서 시작하여 내부를 구성해나 간 작품이다. 외부 조건을 그대로 표출 시키고자 한 의도는 충분히 반영되었지. 만 내부 조직에 관한 의문은 여전히 남 아 있다.

▶Office dA의 Tongxian Art



Office dA31 Tongxian Art

베이징 인근의 Tongxian에 사는 예술 가 및 비평가들을 위한 복합 시설로, 갤 러리, 스튜디오, 사무실로 시작하여 바, 극장, 미디어센터 등의 기능까지 단계별 로 확장시킬 계획이다. 기존의 벽돌벽을 그대로 살려 자연과 인공적 환경이 대립 하고 있는 사이트의 긴장감을 해소 시키 며, 내부에 다양한 중정을 도입해 시설 간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있다. 벽돌이 구축제로 상징적으로 사용되어 온 기존 의 관행에서 벗어나 곡선의 형태로 만듦 으로써 시각적으로 전혀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다.

▶Marble Fairbanks Architects의 미국 시카고 공립 학교. ▶Vincent James Associates의 Longitudinal House 역 시 선정되었으며, 가작으로 ▶ Hanrahan+Meyers, Architects≌ Oiai Libbey Bowl 실외 극장, ▶Brian Healy Architects의 다중 소득층 주택, ▶Kennedv & Violich Architecture의 East Harlem River Ferry Landings. ▶ Loom의 49 Grace Street, >William E. Massie의 사진가를 위한 집. ▶ Darren Petrucci의 Glue. ▶ Saucier+Perrotte Architects의 Perimeter Institute for Theoretical Physics. IN SR + T Architects의 20+22 Renwick가 소개되어 있지만. 제출된 작품 수에 비하면 우수작이 별로. 눈에 띄지 않았다는 것이 심사위원단의 대체적인 의견이다.

■기타

▶Tadao Ando의 AIA 금상 수상 소식. ▶1990년대 뉴 어버니즘의 선두 주자로 Vincent Scully, Jane Jacobs에 이어 제3회 Vincent J. Scully 상 수상자로 결 정된 Andres Duany and Elizabeth Plater-Zyberk, ▶Rem Koolhaas의 미 국 Los Angeles County Museum of Art 증축 계획안. ▶저서 Cities From the Sky, Building the Cold War: Hilton International Hotels and Modern Architecture 소개. ▶Winv Maas의 연극 무대 디자인, ▶Kava Massih Architects의 미국 캘리포니아 Emeryville Sliver Building 계획안 등을 다루고 있다.

World Architecture

2002년 3월호.

Dresden 유태 교 회 당 Koolhaasº! ††† 욕 Prada 상점 등 신작들을 소 개하고 있으며, 근대 건축가 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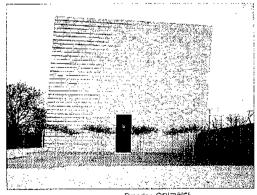
신업 디자이너 Ame Jacobsen의 탄생 100주년을 맞아 그의 건축계 내 위상을 재고해보는 코너도 미련되어 있다.

■ 근작소개

▶Wandel Hoefer Lorch의 Dresden 유태교회당

드레스덴은 1945년 영국군과 미국군의 폭격으로 온 시가지가 폭격을 받아 전소 된 도시이다. 그러나 이러한 폐허는 나 치 점령으로부터 이미 시작되었다. 1840년 Gotfried Semper에 의해 세워 진 유대교회당은 나치에 의해 불타 없어 졌으며, 드레스덴의 유태인은 거의 몰살 되었다.

드레스덴에서 유태인의 역사는 단절되 었으며, 그들은 새로운 시작을 필요로 하였으며 미래를 위한 새로운 건물을 세 웠다. Semper의 옛 건물 기초에 세운 이 유태교회당은 그러한 그들의 바램의 결실로서 완공을 앞두고 있다. 장방형의 대지에 트위스트된 박스와 직육면제 박



Dresden 유대교회당

스의 병치를 이루는 이 건물은 각각 유 태교회당과 커뮤니티 센터를 수용한다. 트위스트된 형태는 매우 미묘해서 근거 리에서만 인식이 가능하다. 이러한 조작 은 사이트와 컨텍스트에서 연유한 것인 데, 건물의 기초를 전체 도시 조직 그리. 드에 일치시키고, 유태인이 동쪽을 향하 여 기도하는 것을 반영, 내부의 신도석 과 지붕을 동쪽을 향하게 하여 트위스트 도된 형태를 이루었다.

▶Henning Larsen의 덴마크 전자부품 생산공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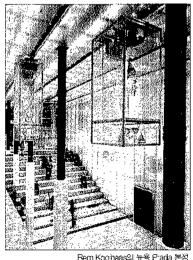
동판과 유리만으로 건물을 덮고 있는 아 건물은 북부 덴마크의 공장지대의 일반 공장들과는 구별되는 건축을 원했던 건. 축주 Mekoprint사를 위해 디자인 되었 다. 동판은 스캔디나비아 기후에 의해. 그 질감과 색깔의 변화를 겪으며 건물의 외관을 변화시킬 것이다. 건물의 대부분 은 공장으로 이용되며 동쪽 끝부분에 오 피스가 위치한다. 남쪽의 유리외피에 에 칭된 전자 서킷을 형상화하는 이미지는 본 건물 내부의 구성과 존재이유를 설명 하고 있다. 건물의 동서로 관통하는 주. 복도는 백색의 벽과 천창으로부터 흘러 들어오는 빛에 의해 공장내부의 일상적 공간이라고 믿기힘들 정도로 매우 신비 한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다. 사용자들 은 초기에 이 복도를 그림등을 걸어 갤 러리로 사용하고자 하였으나 곧 마음을 바꿔 마음을 정화시키는 공간으로서 깨 끗하게 비워두기로 하였다.

▶Rem Koolhaas의 뉴욕 Prada 본점 최근 하버드에서의 연구 결과를 저서 The Harvard Design School Guide to Shopping로 발표한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현대 도시의 쇼핑 문화는 Koolhaas에게 새로운 화두로 제시되고 있다. Junkspace라는 개념으로 설명하 기도 하는 이러한 공간을 실제적으로 설 계한 첫 사례라고 할 수 있는 뉴욕의 Prada 상점을 살펴 보았다.

▶그 외에 Carlos Ferrater의 스페인 lbiza 주택도 소개되어 있다.

■기타

▶러시아 건축계에 새롭게 일고 있는 젊 은 건축가들의 바람, ▶건축가보다는 산 업 디자이너로서 더욱 명성을 떨쳤던 Arne Jacobsen의 작품 세계. ▶Kisho Kurokawa의 중국 Zhenozhou 신도시 계획. ►Architecture Studio의 아테네 Onassis 문학 및 예술관을 소개하고 있 으며, ▶Vittorio Gregotti의 밀라노 La Scala 오페라 왼공식 전 사고.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의 구겐하임 미술관 건 축 거부. ▶휠체어 접근이 불가능한 Santiago Calatrava의 베니스 다리 준 공 반대. ▶Norman Foster의 Greater London Authority 건물 설계 변경에 대한 시민들의 항의. ▶Arup의 런던 말 레니엄 다리 구조 결함 해결과 관련된 소식을 다루고 있다. (번역 : 전신영)



가우디거축 20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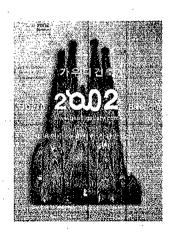
교육연수 : 문화체험 참관단 모집

스페인 바로셀로나에서는 안토니 가우 디(1852~1926)의 출생 150주년을 맞 이해[가우디건축2002]행사를 마련한 다. 이번 행사는 예술 및 건축에 관한 그 의 시간, 그의 사람, 그의 생각, 그 관계, 그의 직업, 그의 클라이언트, 그의 합작 자, 그의 방법 및 세로운 건물 양식의 연 구 그리고 그의 관심사 등 20여개의 이 벤트를 마련, 많은 사람들이 가우디의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체험할 수 있게 한다. 이와 관련하여 기우디를 사 랑하는 단체인 갸우디아시아재단 (GAF)은 바로셀로나 현지에서 짧은 시 간에 좀 더 세말하고, 다양한 교육적인 내용을 기우디박물관측으로부터 집중 적인 강의와 현장실습 및 문화를 체험하 고, 그에 따른 단기교육수료증을 발급받 는 과정을 기우디박물관측과 협정하였 다. 가우디 현장연수 교육은 우리나리뿐 만 아니라 일본, 중국까지 동시에 진행 하는 국제행사이다.

▷기 간: 2002년 6월 16일~8월 13 일(8박9일 교육문화체험 프로그램) ▷일 정: 기우디 현장교육 3일간/스페 인문화체험 5일간 등 총 9일간 일정 ▷주 최: 기우디아시아제단 기우디박물 관 주한스페인대시관

▷문 의: 기우디아시아재단 02-763-3353 choi is@yahoo.co.kr

'▷참 조: www.gaudi2002,bcn.es www.gaudigallery.com



번령 laws & ordinances

건축시번시행규칙중개정령

건설교통부령 제310호(2002. 4. 4)

◇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건설교통부장관이 건축사의 업무실적 관 리 등에 관한 업무를 건축사협회에 위탁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건축사법 (2001, 8, 14, 법률 제6503호) 및 동법 시행령(2002. 3. 18. 대통령령 제 17545호)이 개정됨에 따라 건축시협회 에 대한 업무실적의 제출, 건축사협회의 업무실적증명서 발급 등 그 시행에 구체 적으로 필요한 사항과 서식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려는 것임.

건축시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길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본문중 "법 제2조제2호"를 "법 제7조제2항"으로 한다.

- 제10조제2항제7호률 제8호로 하고, 동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7. 제15초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엔지 니어링활동주체 또는 건설업자에 소속된 건축사의 그 업무에 관한 신 고의 경우: 2만원
-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1조(업무실적의 관리 등) ①건축사 는 법 제1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 하여 업무실적을 제출하고자 하는 때 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설계업무실 적제출서 또는 별지 제14호의2서식 의 공사감리업무실적제출서를 건축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2)건축사협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 여 업무실적을 제출받은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설계업무실적관리대장 또는 별지 제15호의2서식의 공사감리 업무실적관리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유 지 과리하여야 한다.
- ③건축시는 업무실적을 증명받고자 하 는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업무실 적증명발급신청서를 건축사협회에 제 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사협회는 별지 제16호의2서식의 설계업무실적 증명서 또는 별지 제16호의3서식의 공 시감리업무실적증명서를 발급하고, 이 를 별지 제16호의4서식의 업무실적증 명서발급대장에 기재하고 유지 · 관리 하여야 한다.
- ④건축사협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 여 업무실적증명서를 발급하는 때에는 실비의 범위안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수수료를 신청자로부터 받을 수
- 제12조의2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영 제21조의2제1항"을 "법 제23조제3 향"으로 한다.
-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22조의2(건축사업무실고 등의 통보) ①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 는 때에는 이를 건축사협회에 통보하 여야 한다.

- 1.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 축사업무신고를 받은 때
- 2.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업 무신고 사항의 변경, 휴업 또는 폐 업의 신고를 받은 때
- 3. 법 제2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 에 의한 건축사업무신고의 효력상 실처분 또는 업무정지명령을 한 때
- 4.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업 무신고부의 정리를 한 때
- (2)건축사협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 여 도지사로부터 통보받은 내용을 유 지 · 관리하여야 한다.

별표 1 제1호의 과목란증 "배치계획"을 "대지계획"으로 하고, 동호 건축설계의 출제범위란중 "대지계획"을 "배치계획" 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중 "건축사법 제2조제2 호"를 "건축사법 제7조제2항"으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4호의2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5호의2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6호의2서식 내지 별지 제16호의4서식을 각각 별지 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0호서식 앞쪽의 수수료란중 "없음"을 "20,000원"으로 한다.

칙

- ()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 행하다.
- ② (신고 수수료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건축사의 신고 수수료에 관한 제10 조제2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 최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세무인내 taxation business

2001년부터 재시행된 금융소득종합과세 안내

♣ 금융소목종합과세제도란 무엇입니까?

- ☞ 금융소득종합과세란 연간 부부의 이자소 득 및 배당소득 합계액이 4천만원보다 많 은 경우에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사 업소득 등 다른 종합소특과 합산하여 종 합소득세 기본세율(누진세율)로 종합소득 세룔 과세하는 것을 말합니다.
- •이 경우 4천만원까지는 종합과세하지 않고 원천장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 ♣ 금융소득 종합과서를 시행하는 이유는 무 엇인가요?
- ···· 금융소독을 기존의 종합과세 대상소독과 합산하여 누진과세함으로써 소득계층 간 · 소독종류간 과세의 형평성을 제고하 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금융소독을 명 의자에게 과세함으로써 차명거래의 소자 를 축소하여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 는데 있습니다.
- ♣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실시하게 되면 세금 이 늘어나지 않나요?
- ☞ 1년간의 부부합산 금융소득이 4,000만원 이하인 대부분의 국민들은 금융소득이 종 합과세 되지 않고 원천징수세율을 20%에 서 15%로 낮추었기 때문에 제금이 줄어. 들게 되며
- · 금융소득과 다른소득이 많은 일부 고소득층 의 경우에만 금융소독이 다른 소득과 합산되 어 20%~40%의 세율이 적용되어 종합과세 되므로 세금이 늘어나게 됩니다.
- ♣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언제부터 시행하 LIG?
- ☞ 금융소득종합과세는 2001. 1. 1 이후 최 초로 발생하여 지급하는 금융소득(이자·

- 배당소득)부터 시행합니다.
- 그러므로 2000, 12, 31 이전기간에 발생 된 이자소득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2000.12.31 이전에 발생된 이자소득을 2001, 1, 1 이후에 지급받는 때에도 금융소 득종합과세 대상이 아닐니다.

종합과세 되는 금융소득은 다음연도 5 월말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 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 2001년 귀속 금융소득에 대하여는 2002, 5, 31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세확정신고를 하면 됩니다.

- ♣ 금융소득은 어떠한 방법으로 종합과세가 되나요?
- ··· 종합과세대상 금융소득은 금융기관에서 먼저 15%세율로 원천장수 한후 부부의 연간 금융소득의 합계액이 4,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부부중 자 산소득(이자 · 배당 · 부동산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사업 · 근로소득 등)이 많은 주 된 소득자의 소득에 합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 · **납부**해야 합니다.
- 【사례1】금융소득이 1억원인 경우의 과세 방법
- ▶금융소득 1억원중 4천만원은 15%로 분리 과세되며, 4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6천 만원에 대하여 종합과세<u>됨</u>.

[사례2]

\	그리지트	- E	자 산 소 득	
/		WETA	금융소특	부등산소득
남 편		1억5천만원	3천만원	
배 우 자	3천만원		2천만원	5천만원

- ▶ 자산소득 이외의 종합소득이 많은 날편이 주된 소독자이므로 남편의 사업소득 1억6 천만원에 4천만원을 초과하는 부부합산 금융소득 1천만원과 자산소득인 배우자 의 부동산소득 6천만원을 합한 2억 1천만 원을 종합소득금액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금융소득 4천만원은 분리과세됨.
- * 자산소득은 주된 소득자의 소득에 합산 과세 합니다.
- ♣ 2000년에 정기예금을 하고 2000. 12. 31 이전기간과 2001. 1. 1 이후기간의 이지를 2001년에 함께 지급받은 경우에 는 모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해당 됩니까?

- ☞ 2000. 12. 31 이전에 정기에금을 하고 2000. 12. 31 이전 기간이지와 2001. 1. 1 이후 기간이지를 2001, 1, 1 이후에 함 께 지급받는 경우에는2001, 1, 1 이후 기 간의 이자소득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이 됩니다.
- •보유기간별로 이자소득을 계산하여 2001, 1, 1 이후 기간분만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 에 해당한니다.
- ♣ 금융소득에 대하여는 모두 종합과세가
- ~ 금융소득이라 하더라도 비과세 및 분리과 세되는 금융소독은 종합과세다상에서 제 외됩니다.

또한, 비과세 및 분리과세분을 제외한 금 융소득중 4,000만원 초과분에 대하여만 종합과세가 되므로 연간 금융소득이 4,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5%의 원천 징수로 분리과세됩니다.

종합과세	당 연 종합과세	비영알대금의 이자 (사쇄이자) 심장받인의 대주주 배당소록 바당소록 바당소록 국외에서 지급받는 이자 - 배당 소독
금융소득	조건부 종합과세	분리과서되는 금융소득이 아닌 것으로 연간 부부할산 금융소득 이 4,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 제 외 금융소득	비과세	'개인연금저축 · 신탁의 이자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이자(7년 이상) '근로자우대저축의 이자 '장기저축성보험차의(7년 이상) '노인 · 장애인 등의 생계형 저축 '주식양도차의, 채권매매차의, 공역신탁의 이익
	분리과세	

- ※ 5년 이상의 장기저축 및 장기채권의 이자는 이지를 지급받는 날까지 반드시 금융기판에 분리과세신청을 하여야만 30% 세율로 분리 과세가 됩니다.(선택 적용)
- ♣ 자녀의 금융소득도 부모의 금융소득에 합 산됩니까?
- ☞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는 부부의 연간 금 융소득을 합하여 4천만원을 초과할 때 종 합과세를 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자녀 의 금융소득은 부모의 금융소득에 합산되 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소유자가 부모이 고 명의만 자녀명의로 된 경우는 합산과 세 됩니다.